

SPORTS
DO
DREAM

2019 학생선수 진로 · 취업 가이드

스포츠 두드림

발 간 사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기치로 설립된 한국대학스포츠협회가 2020년, 설립 1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대학운동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학스포츠의 바른길을 규율하기 위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무엇보다도 전인적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사관리 정상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각 대학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촌 내에서 이동수업이 열리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며 설립 초기 학생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취업백서를 발간한 바 있는 우리 협의회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은퇴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선수들을 위해 진로·취업 분야의 정보를 최신화하여 학생선수 진로·취업 가이드북 『2019 학생선수 진로·취업 가이드, 스포츠 두드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9 학생선수 진로·취업 가이드, 스포츠 두드림』은 다양한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선수들이 은퇴 후 긍정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총 9개 분야 45개 직종으로 스포츠 분야 유망직업을 구분하여 다양한 직무·직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의 기술, 관련 자격증 소개 등 실효성 높은 진로·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유망직업을 소개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은퇴 후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분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선수 출신 전문가와의 생생한 인터뷰는 학생선수들이 진로 설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흐름 속의 진로·취업에 관한 이해와 정보파악은 학생선수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대학운동부의 모든 학생선수들이 이 가이드를 통해 스포츠 분야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힘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책자를 제작하시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우리나라 스포츠를 이끄는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30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장 김 창 수

CONTENTS

〈Prolog〉

발간사

Round 1 위밍업

1. 꿈과 직업의 하모니 • 12
2. 학생선수, 직업선택 가이드 • 19

Round 2 스포츠 두드림. 유망직업 살펴보기

Part 1. 스포츠 관련 기업 분야

1. 스포츠 브랜드 매니저 • 27
 2. 프로구단 프런트 • 31
 3. 포털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 • 35
 4. 스포츠 에이전트 • 41
- | 멘토 인터뷰 | 심찬구 대표이사 사장(스포티즌) • 46

Part 2. 스포츠 지도자 분야

1. 건강운동관리사 • 54
 2. 생활스포츠지도사 • 58
 3.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62
 4. 노인스포츠지도사 • 66
 5.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70
 6.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 73
 7.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 76
 8. 전문스포츠지도사 • 80
- | 멘토 인터뷰 | 장영술 감독(현대제철남자양궁단) • 84



Part 3. 스포츠 교육 분야

1. 체육 관련학과 교수 • 90
2. 특수학교 체육교사 • 94
3. 체육 관련 연구원 • 97
4. 중 · 고등학교 체육교사 • 100

| 멘토 인터뷰 | 오정훈 교감(서울체육중학교) • 103

Part 4. 스포츠 기술 분야

1. 비디오 분석관 • 109
2. 스포츠 게임 기획자 • 113
3.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 프로듀서 • 117
4. 스포츠마케터 • 121

| 멘토 인터뷰 | 이승용 팀장(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 125

Part 5. 공공/행정 분야

1. 공무원 • 132
2. 스포츠 외교 전문가 • 136
3. 경찰공무원 • 139
4. 소방공무원 • 143
5. 학사장교 • 147
6. 경호원 • 151
7. 체육 행정 전문가 • 155

| 멘토 인터뷰 | 김창범 부장(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 158

Part 6. 스포츠 미디어 분야

1. 스포츠 프로듀서 • 163
2. 스포츠 해설자 • 166
3. 스포츠 애널리스트 • 170
4. 스포츠 영상 전문가 • 174
5. 스포츠 전문기자 • 177

| 멘토 인터뷰 | 정재용 스포츠 전문기자(KBS보도본부) • 181



Part 7. 스포츠 의학 분야

1. 재활승마치료사 • 188
2. 수중재활운동사 • 192
3. 스포츠 심리상담사 • 196
4.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 199

| 멘토 인터뷰 | 이제훈 실장(진천선수촌 물리치료센터) • 202

Part 8. 스포츠 전문 분야

1. 스포츠 심판 • 207
2. 피지컬 트레이너 • 212
3. 스포츠 경기장 디자이너 • 216
4. 장내 아나운서 • 219
5. 스포츠 전문통역사 • 222

| 멘토 인터뷰 | 김민수 스포츠 전문통역(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 225

Part 9. 미래 유망 분야

1.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 • 230
2. 스포츠 1인 방송 • 233
3. 스포츠 큐레이터 • 237
4. 익스트림 여행 가이드 • 240

| 멘토 인터뷰 | 홍성찬 교수(초쿠바대학교) • 243



Round 3

취업 준비 작전 타임. 이력서와 면접의 기술

1. 취업도 전략이다 • 250
 - 선수에게 취업이란 무엇인가?
 - 스펙 쌓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 나만의 취업 지도 완성법
 2. 면접관을 사로잡는 이력서 만들기 • 262
 - 이력서는 설득을 위한 문서
 - 설득력을 높이는 스토리텔링의 기초
 - 면접관을 사로잡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3. 사례로 보는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 278
 - 살아온 인생을 펼쳐 보여라!
 - 현재의 나를 보여줘라!
 - 미래의 나를 표현하라!
 4. 면접의 기본기 • 293
 - 쉬운 면접 공식
 - 면접에 유리한 정보 습득법
 - 면접 실전을 위한 액션 플랜
 - 건강한 외모, 밝은 인상 만들기
 5. 성공 면접을 위한 테크닉 • 304
 - 용모와 자세 점검법
 - 성공 면접을 이끄는 7가지 방법
 - 반드시 피해야 할 면접장 실수들
- | 취업 준비 관련 채널 (28개 / QR코드 스캔 가능) | • 311

Round 4

스포츠 관련 자격증 살펴보기

1. 전문스포츠지도사 • 322
2. 생활스포츠지도사 • 328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333
4. 건강운동관리사 • 337
5.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340
6. 노인스포츠지도사 • 343
7. 스포츠경영관리사 • 346

〈부록〉

- KUSF 소개 • 349
- KUSF 회원대학 소개 • 350



| Round 1 |

워밍업



『2019 학생선수 진로 · 취업 가이드, 스포츠 두드림』

1라운드는 세부적인 직업별 소개에 앞서 왜 이런 연구와 정보가 중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이다. 학생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운동에 매진해왔다.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진학을 거듭했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선수로서 거둔 그 성과가 그대로 사회생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선수의 신분을 내려놓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냉정한 현실이지만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은 비단 학생선수에게만 주어진 운명은 아니다. 일반 학생들 역시 졸업과 동시에 사회라는 냉혹한 벽과 맞닥뜨려야 한다.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통과 의례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미래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다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차근차근 고민하고 준비해야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도 마음놓고 쉬지 못했던 선수 시절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할 듯하다.

물론 더 혹독할 수도 있다. 그동안 쌓아온 선수로서의 가치를 살려 도전해 볼 직업군이 우리 사회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난관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길은 언제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리게 되리라 믿는다.

본 라운드에서는 여러분이 직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위밍업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꿈과 직업의 하모니

직업 선택에는 왕도가 있을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나에게서 과연 어떤 기회가 있을까?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이 나로선 아직 먼 미래의 일 같은데…….

보통의 학생선수라면 누구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이기에 어쩌면 가장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땅한 답이 없는 질문이다. 주변의 누군가와 상의하고 싶어도 똑 부러지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협의회에서 이런 가이드북을 기획했지만 이 책도 완벽한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작은 등불 정도의 역할이라도 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운명과는 다르다. 하늘이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질과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갖고닦아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회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더없이 신중하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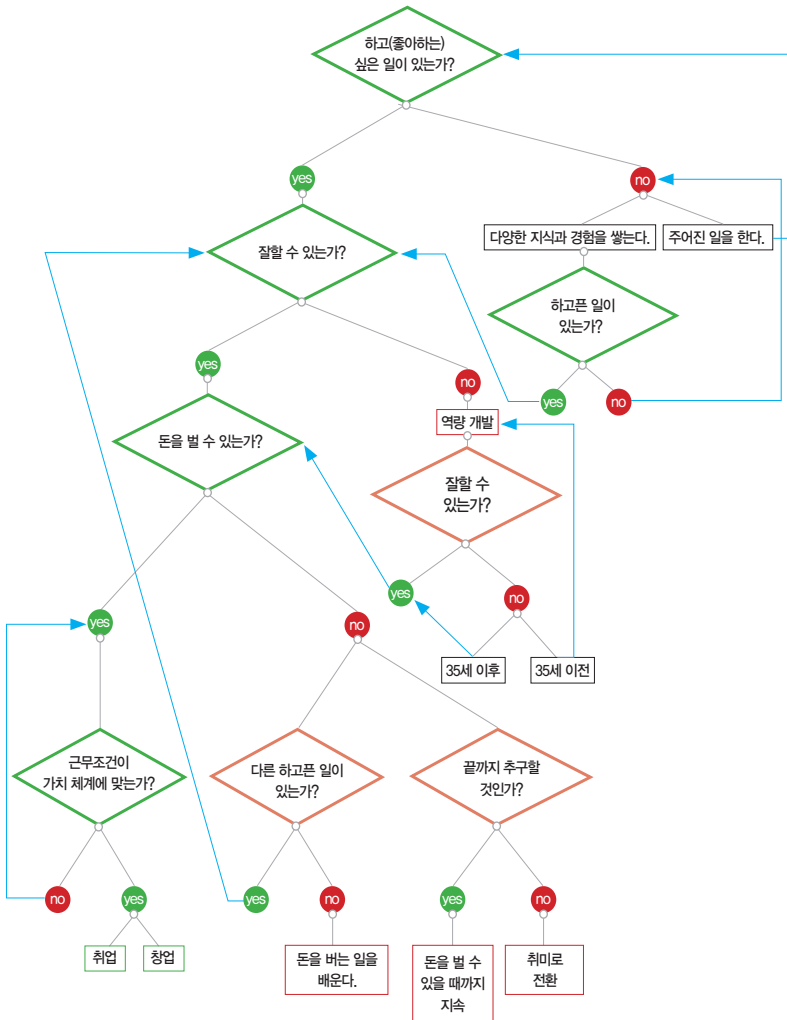
우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폭이 참 좁아 보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넓어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동시에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을 통해 거머쥘 수 있는 첫 번째 자산으로는 자격증을 들 수 있다. 꿈꾸는 분야나 직업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꿈에 다가설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감히 말하지만 자격증은 꿈과 직업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고 도시화된 사회이기에 직업이 곧 사회적 얼굴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그 직업의 미래가 당신의 미래가 되기도 한다. 꾸준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과 노력 여하에 따라 직업 선택의 폭이 결정되고 그만큼 미래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의 적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 / 아니오’ 진로탐색 모델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직업이 어떤 부류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이어지는 <진로탐색 로드맵>의 ‘예 / 아니오’를 신중하게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근접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참고해서 직업 선택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

본문에 앞서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을 보고
자신의 진로 결정 방법을 생각해 보자.



| 합리적 진로 탐색 매트릭스 |

가치관 진단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선택하시오(10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한다.
가족이 행복하다.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다.
건강을 지킨다.	성취감을 느낀다.
결정력 있는 사람이 된다.	소득이 높다.
국가를 위해 일한다.	스트레스가 적절하다.
권력을 갖는다.	승진을 한다.
근무 시간이 자유롭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
근무 종료 시간이 명확하다.	알아 가는 즐거움이 있다.
근무지가 거주지와 가깝다.	업무 강도가 높다.
근무지가 수도권이다.	업무 강도가 적당하다.
근무지는 스스로 선택한다.	여가 시간이 주어진다.
급여가 높다.	여럿이서 일한다.
기업 문화가 나와 맞다.	인정받는 위치에 오른다.
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이 있다.	일 외에도 취미 생활을 갖는다.
나의 관심 분야다.	일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한다.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극심을 느낀다.
남을 돕는다.	자식에게 존경을 받는다.
남의 인정을 받는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한다.
내 가치를 높인다.	자유 시간을 갖는다.
내 사업을 한다.	잘 알려진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재미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할 권위를 가진다.	적성에 맞는다.
다른 사람의 삶의 질에 기여한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닌다.	조직의 비전이 명확하다.
대인관계가 넓다.	좋은 동료가 있다.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다.
독점력이 있다.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독창적인 일을 한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을 처리한다.
동료와 협력한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떳떳하게 내 삶을 이야기한다.	주위와 관계를 잘 유지한다.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귄다.	중산층 이상의 돈을 번다.
만족감을 얻는다.	중요한 업적을 이룬다.
맡은 일에 만족한다.	즐길 수 있는 일이다.
맡은 일에 책임을 진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한 삶을 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무언가를 이룬다.	직업 진입 장벽이 높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	창조적인 일이다.
발전을 위해 끝없이 도전한다.	최소한의 여가 시간이 보장된다.
발전할 수 있다.	최고를 추구한다.
보람된 일이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시간을 할애한다.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	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진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팀원으로 일한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사회에 봉사한다.	프로젝트 리더가 된다.
사회에 이익이 된다.	하고 싶은 일이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상승한다.	사회에 봉사한다.

합리적 진로 탐색 매트릭스

〈샘플〉

가치관		즐길 수 있는 일이다.	소득이 높다	자유 시간을 가진다	승진을 한다	창조 적인 일이다	건강을 지킨다	최고를 추구 한다	중요한 업적을 이룬다	가족이 행복 하다	사회에 봉사 한다	합계
가중값		10	9	8	7	6	5	4	3	2	1	
직업	1. 스포츠 관련 기자	8	3	1	6	8	3	10	8	3	8	
	소계	80	27	8	42	48	15	40	24	6	8	298
	2. 체육교사	6	7	9	4	5	10	5	6	10	7	
	소계	60	63	72	28	30	50	20	18	20	7	368
	3. 비디오 분석관	10	8	9	7	10	5	10	10	8	3	
	소계	100	72	72	49	60	25	40	30	16	3	467

비디오분석관의 점수가 467점이라는 것은 작성자의 가치관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뜻하므로 진로로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체육교사는 368점인데, 이는 비디오분석관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천한다. 스포츠 관련 기자는 298점이므로 진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결과는 작성자의 가치관에 가중값을 반영하여 측정한 것으로 가치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여러 가치관을 종합한 결과 개인의 가치체계에 의해 결정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

500점 이상	강력한 추천 진로
400~499점	비교적 추천 진로
300~399점	고려해 볼 만한 진로
299점 이하	고려 대상에서 제외

※ 20점 정도의 차이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인 작성용〉

가치관		가치관 1	가치관 2	가치관 3	가치관 4	가치관 5	가치관 6	가치관 7	가치관 8	가치관 9	가치관 10	합계
가중값		10	9	8	7	6	5	4	3	2	1	
직 업	직업 1											
	소계											
	직업 2											
	소계											
	직업 3											
	소계											

1. 가치관 진단 검사에서 얻은 가치 10개를 가치관란에 옮겨 적으세요.
2. 직업 1, 2, 3에 각각 희망 직업을 적어 주세요.
3. 각 직업이 각 가치관을 얼마만큼 만족시킬지 절대평가로 1~10점을 주세요.
4. 가치관의 가중값을 결정하세요(1~10점).
5. 가중값과 점수를 곱하여 소계를 계산한 다음 소계를 합하여 합계를 구하세요.
6.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관에 적합한 직업입니다.

학생선수, 직업 선택 가이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기록’이었다. 즉,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야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운동선수의 대학 진학에도 학과 공부가 상당 부분 반영된다. 2020년부터 대학마다 비율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학생부 반영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두뇌 회전이 빠를수록 운동을 잘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잘 써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두뇌를 쓰는 일에 적극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명석한 두뇌와 체력이 결합한다면 그 자체로도 막강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학생선수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 몇 가지 선택의 기준을 세워 둘 필요가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분류는 비록 평범해 보이지만 진지하게 살펴보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래를 위해 스스로에게 적합한 선택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읽어보기 바란다.

1) 나는 학구파!

먼저 공부에 뜻을 둔 학생선수라면 당연히 학문의 영역에 들어서야 한다. 국내에서 학위를 따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다면 금상첨화다. 운동과 관련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경우 국내외 주요 스포츠 브랜드나 학교 혹은 그에 준하는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다.

2) 그래도 운동파!

누가 뭐라 하건 운동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면 그와 관련한 직업을 찾아야 한다. 스포츠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직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학교, 정부기관, 관공서, 기업 등 도전해 볼 곳은 정말 많다. 하지만 프로로 나서는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운동으로 사회에 진출하겠다면 아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얼핏 운동과 관련한 직업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라운드(Round) 2’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직업을 살펴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고민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3) 안정지향파!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어려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운동을 고집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런 안정적 직업군이 의외로 본인의 적성에 맞을 수도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면 자격증이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직업에 관

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 혹은 공무원 등이 가장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할 것이다. 당연하게도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 혹은 시험일수록 가치와 안정성은 높아진다. 다만,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앞이 안 보이는 경우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와 직업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변 요소들은 우리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운드(Round) 2'를 세심하게 살피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가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직업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 Round 2 |

스포츠 두드림,
유망직업
살펴보기

『2019 학생선수 진로·취업 가이드, 스포츠 두드림』

2라운드는 본격적으로 분야별 세부 직업의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이다. 직업과 일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직종의 변화도 심해지는 추세다. 유망하다는 직업의 인기가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직업이 IT기술과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유망 직업이 되기도 한다.

이런 직업과 직종에 대한 트렌드를 보통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운동에 전념하는 학생선수들 입장에서선 더욱 감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2라운드에서는 각 직종/직군 별로 세부적인 직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소개하는 각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학생선수들의 미래 설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본 라운드에서는 스포츠와 관련한 직종을 9개 분야로 구분하고 총 45개의 직업으로 분류해 소개한다. 기존의 스포츠 관련 직업부터 미래 유망 직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주목받고 있거나 주목받을 만한 직업으로

선별했으며 그 직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리했다. 각 직업별로 제도나 자격 등의 변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직업에 대해 참고할 만한 인터넷 정보도 직업 소개 마지막에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제공했다. 9개의 각 분야에서 학생선수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만한 인물을 발굴해 실제 인터뷰도 답았다.

아무쪼록 2라운드를 함께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며 꿈을 키워나가길 응원한다.



Part1

스포츠 관련 기업 분야

- > 01 스포츠 브랜드 매니저
- > 02 프로구단 프런트
- > 03 포털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
- > 04 스포츠 에이전트
- >>> 멘토 인터뷰 | 심찬구 대표이사 사장(스포티즌)

스포츠 브랜드 매니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유통 전문가

다국적 스포츠 브랜드 매니저란?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언더아머 등은 세계를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다. 학생선수들이라면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서 더욱 친숙한 브랜드일지도 모른다. 운동장에서 혹은, 코트에서 그 브랜드와 함께 땀땀에 젖어 본 기억이 있을 테니까.

스포츠 브랜드도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출발했지만 언제부턴가 과학과 기술이 집약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뒤에도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접목하며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웃도어가 유행하면서 스포츠 브랜드의 영역이 넓어졌다.

국내 토종 스포츠 브랜드도 그 틈을 파고들어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브랜드는 탄탄하게 구축된 과학 기술과 견고한 자본력을 토대로 기능성 스포츠 의류와 장비 부문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의 주요 영역은 의류와 신발 그리고 이큅먼트(장비)다. 조금 넓게 확장한다면 스포츠 패션이나 유통업도 그 영향권에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스포츠 브랜드 업계에 스포츠와 관련한 전문 인력들이 의외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테일(유통) 분야에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요한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직접 입고, 착용한 선수 출신들이 고객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일부터 대리점이나 직영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 광고와 홍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스포츠 브랜드만의 독특한 업무인 스폰서십 마케팅 파트에서도 활약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국가대표 스폰서십, 프로구단,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을 관리하는 일까지, 스포츠 브랜드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 영역이 존재한다.

그런 곳에서 선수 출신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그리고 그들이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각종 스포츠 브랜드에서 선수 출신의 활약이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과 비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특징은 일반 기업처럼 정기적인 채용이 없다는 점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해당 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주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헤드헌터를 통해 구인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스포츠 브랜드 카테고리에서 직원들이 순환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일단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브랜드에서 브랜드로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며 성장해 간다.

스포츠 브랜드 매니저의 일반적인 채용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헤드헌터나 지인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고 그것을 검토해 2배수 혹은 3배수 정도로 후보군을 좁힌다. 이후 실무부서에서 면접을 보고 통과하는 경우 최종 면접을 보아서 채용을 결정한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업계에선 대부분 언어능력을 중요한 포인트로 본다. 본사와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시로 영어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직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해외 출장도 잦은 편이다.

스포츠 브랜드 업계에 취업하길 원한다면 해당 분야에서의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처음부터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토플이나 토익 같은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점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학부 시절부터 영어 소통 능력을 키운다면 스포츠 브랜드 취업에는 아주 큰 강점이 될 것이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아주 좁은 취업문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토종 스포츠 브랜드는 그 폭이 조금 더 넓은 편이다. 국내 스포츠 브랜드 중에도 한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아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곳이 존재한다.

스포츠인들은 오랜 기간 관련 용품들을 사용하면서 저마다 선호하는 브랜드가 한두 개쯤 있게 마련이다. 당연히 스포츠 용품에 대한 이해도도 일반인보다는 높다. 그것을 장점으로 십분 활용해야 한다. 스포츠 브랜드는 보통 개발과 유통, 마케팅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바탕이 된 상태라면 어떤 분야든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목표로 하는 스포츠 카테고리나 평소에 관심 깊게 보아 온 제품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고들기 바란다. 그 관심사를 자신의 운동 분야와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정보를 축적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리며 앞서 나갈 수 있다.

단기간의 관심이나 준비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만의 노하우와 정보 수집 능력을 키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고 그 자신감은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무엇이 되었건 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라.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다국적 스포츠 브랜드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이 요구된다.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본사 차원의 업무는 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인턴십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사직종의 국내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뒤 경력직에 응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력직은 대개 구인 공고나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진다.

프로구단 프런트

선수와 팬을 연결하는 소통 전문가

프로구단 프런트란?

프로구단 프런트는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 해당 종목의 구단에서 운영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 지원은 물론이고 시즌 중의 홍보 마케팅, 팬과의 소통과 선수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살림꾼의 역할을 한다. 아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지 못하고 사무국 업무와 시즌 기간의 경기지원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늘 스포츠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최고의 선수들 옆에서 호흡하고 필드에서 이룬 승부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스태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단 프런트도 공채로 직원을 모집하기보다는 인턴십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추세다. 따라서 구단 프런트의 스태프가 되고자 한다면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인턴십을 위해서는 체육인재아카데미(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정가 과정을 신청하

는 것이 좋다. 이곳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각종 행정지원 능력 및 스포츠마케팅, 이벤트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단 프런트 스태프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질과 능력을 배운다면 인턴십에 큰 도움이 된다.

또 하나 참고해야 할 것은 각 구단의 홈페이지다. 대부분의 인턴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련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서 정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대기업 계열의 프로구단인 경우에는 그룹 공채를 통해 프로구단 스태프가 되는 경우도 있다.

현황과 비전

구단 프런트는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장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진정으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얻는 즐거움도 크다.

비록 선수 자격으로 경기를 뛰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현장에서 좋아하는 선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점, 경기가 진행되는 다양한 영역을 관리하며 승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경기가 주말과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 근무가 잦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업무 강도도 센 편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구단이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사무국 업무와 홈경기 필드 업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일당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봉은 구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입직원은 대략 3천~3천5백만 원 수준이다. 물론 구단의 규모나 경제 여건에 따라 연봉에 큰 차이가 있다.

축구 2부 리그 신설, 독립야구단 창단, 핸드볼리그의 프로화 등 국내 스포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구단도 늘어나게 될 테고, 그 속도에 맞추어 프런트의 인력도 충원될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경쟁해야 할까?

우선, 프런트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외국어 능력이 필수다. 외국선수들의 영입과 국내선수들의 해외진출에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진 프런트라면 최상의 조건으로 선수를 관리하고 그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스스로 능력 개발을 위해 애쓰고 특성화된 직무를 개발하며 전문성을 향상해 나간다면 프런트라는 직업은 긍지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전문직이 될 것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대기업 소속 프로구단에 입사하기 위해선 그룹 공채에 지원해야 한다. 그 외의 방법은 해당 구단에서 운영하는 인턴십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물론, 인턴십의 관문도 비좁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능력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인턴십은 취업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활용, 사진 및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다. 또한, 스포츠 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업무를 미리 마스터하는 것도 좋다. 아래 체육인재아카데미의 체육행정가 연수교육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정보



체육인재아카데미 체육행정가 연수교육 과정

포털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

가장 빠른 스포츠 뉴스를 전달하는 게이트키퍼

포털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란?

미디어의 발전은 사회를 큰 방향에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 소통의 방식은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스포츠가 과학의 힘으로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도 과학과 더불어 새롭게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전화의 등장에 이어 TV가 탄생했고 그것은 다시 컬러TV로 한 단계 진전을 이루었다. 컴퓨터의 발전 속도 역시 눈부시다. 노트북의 등장에 놀랄 틈도 없이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이제는 누구나 컴퓨터 하나쯤은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백여 년 전만 해도 소설 속에서만 등장했을 법한 상황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서 멈출 것 같지도 않다. 디지털 기술은 그 가속을 더해갈 테고 미디어의 발전 속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게 분명하다.

할아버지 세대가 아침마다 종이신문을 받아 읽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아버지 세대는 TV로 9시 뉴스를 챙겨보던 시대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과



학 기술은 세대의 경계마저 무너뜨렸다. 이제는 나이를 떠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할 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확인하는 시

대가 되었다. 뉴스라는 정보의 생산, 유통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실시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보 전달의 시간 격차가 사라졌다. 뉴스는 이제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유통 방식으로 변화된 셈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접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포털 사이트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로 대변되는 국내 양대 포털은 메인 화면에서부터 각종 뉴스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런 뉴스와 볼거리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차려지는 것일까? 이제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직업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포털에는 콘텐츠 편집자(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화된 안목으로 포털에 적합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편집해서 화면에 제공하는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다.

포털에 등장하는 뉴스는 자동화되어 뿌러지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끊임 없이 뉴스를 발굴해 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콘텐츠 매니저들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는 특별한 뉴스 섹션을 구성하고 한정된 시간 동안 정보를 집약, 편집, 소개해야 해서 업무 강도가 몇 배로 증가한다.

주요 업무

포털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들은 커뮤니케이션 관련학과 출신이 많다. 신문방송이나 문학 등 미디어와 밀접한 학문의 전공자들 중에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에디터 직종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분야에도 스포츠인으로서 과감하게 도전할 만하다. 운동을 체계적으로 한 선수 출신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안목에 큰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해당 스포츠의 전문 해설자들이 방송 해설을 도맡았지만 최근에는 은퇴 선수들이 직접 해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필드에서 뛰며 체감하고 체득했던 경험과 지식들이 한 차원 높은 해설을 가능하게 하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에서 일하는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은 대개 10명 내외이며 분야별 담당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만 주요 경기의 중계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대응한다.

예전에는 스포츠 콘텐츠라고 하면 텍스트 기사와 사진이 전부였다. 하지만 휴대폰으로도 언제든지 라이브 중계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포털 스포츠 섹션 역시 뉴스(텍스트와 사진)와 중계화면(동영상), 라이브(생중계), 시청자 참여 공간까지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유통되는 뉴스와 동영상을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게 포털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들의 메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뉴스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즉 해당 스포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포털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들은 대부분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스포츠 분야를 순환한다. 그럼으로써 스포츠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들은 스포츠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 지식만으로 훌륭한 에디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털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는 말 그대로 포털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IT분야의 지식도 필요하고 UI(User Interface) 같은 디자인 감각도 요구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털의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들은 실시간으로 등장하는 뉴스를 분류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이런 생동감은 스포츠인의 습성과 잘 어울린다. 치밀하게 짜인 조직 내에서 동물적인 감각과 순발력을 발휘해 한정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스포츠인들에겐 짜릿한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직업군일지도 모른다.

현황과 비전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 분야에서 포털은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 주는 곳이다. 근무환경도 좋다. 벤처에 뿌리를 둔 자율적인 기업 문화 덕분에 일반 직장에 비해 그 여건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취업을 위한 노력의 강도도 세다.

대기업이나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과 비슷한 수준을 갖춰야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학벌이나 성적 외에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기타 개

인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포털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에 도전하고 싶다면 스포츠 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습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글쓰기,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한다면 이력서에 적을 소중한 자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면접이다. 서류 전형에서는 보통 2~3배수의 후보를 뽑는데,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최종 당락은 면접에서 결정된다. 만약 면접에서 스포츠인답게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면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IT와 SNS 그리고 포털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꾸준히 즐기며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추천한다. 콘텐츠를 직접 다뤄본 사람과 눈으로만 즐긴 사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스포츠 콘텐츠 에디터라는 직업에 한정해서 볼 때, 국내 포털 시장은 취업 희망자들에게겐 가혹할 정도로 비좁다. 주요 포털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줌인터넷, 네이트 등으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비좁고 들어갈 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스포츠 전문 포털과 각 언론사 스포츠 미디어, 구단 프런트의 홍보팀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보자. 물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스포츠에 대해 진지한 애정을 품고 있다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샘솟게 될 것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포털의 스포츠 뉴스를 편집하기 위해선 상당한 콘텐츠 편집 능력이 요구된다. 포털은 국내 모든 스포츠 뉴스가 모이는 곳이므로 큐레이션(Curation)을 통해 그것들을 잘 정리해 보여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포털(다음과 네이버 등)의 채용 정보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참고정보



네이버 채용정보



다음카카오 채용정보

스포츠 에이전트

선수를 프로 스포츠로 이끄는 전문 비즈니스맨

스포츠 에이전트(Sports Agent)란?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프로 선수는 누구일까? 일반적으로는 프로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호날두는 최근 몇 년간 이 부문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018년 6월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1년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프로선수는 미국 복싱 영웅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였다. 그의 연간 수입은 무려 2억 8천5백만 달러, 한화로 무려 3천5백억 원이었다. 프로 스포츠의 세계는 수입과 자본이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하지만 선수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세계를 헤쳐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스포츠를 비즈니스로 설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들을 스포츠 에이전트(Sports Agent)라고 부른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 혹은 스포츠클럽으로부터 협상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서 선수의 연봉협상, 광고나 방송 출연 등 계약과 관련한 일들을 총괄 대리하는 직업이다. 계약에는 거액의 계약금과 부수적인 거래가 발

생한다. 운동에 주력하는 프로선수들로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여력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대신 처리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마치 연예계의 매니지먼트와 비슷하지만 스포츠 에이전트는 그 이상으로 전문적인 직업이다. 실제로 세계 스포츠의 각 프로 리그에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약하는 메이저 에이전트가 있으며, 그들이 그 세계를 주름잡다시피 하고 있다.

뉴스로 전달되는 선수들의 계약 소식은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실제 그 계약을 두고 오가는 금액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선수의 연봉은 단순히 부른다고 성사되지는 않는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자신의 선수가 그 금액에 합당한 선수라는 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그러자면 마케팅과 경영 그리고 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언뜻 보기에 운 좋게 선수만 잘 발굴하면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에이전트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를 발굴하는 안목뿐 아니라 그 선수가 소속된 리그에서 최대한 기량을 발휘하며 가치 있는 선수로 살아남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스포츠 에이전트를 전문직의 반열에 올려놓는 이유다.

현황과 비전

스포츠 에이전트의 수입은 계약에 기반한다. 선수와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 혹은 스포츠클럽이나 구단 등과의 계약에 의한 수수료가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계약은 에이전트의 숙명이다. 각 업계에는 거대한 인맥을 형성한 거물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최근에는 기업형 스포츠 에이전트사가

등장해 활약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아마도 에이전트의 수입원인 수수료율이 궁금할 것이다.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수료율은 보통 선수가 받는 총수입의 3%~10% 사이에서 형성된다.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세계 프로선수 총수입 1위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에이전트를 예로 들어보자. 최소 수수료율로 계산을 하더라도 3천억 원의 3%인 30억 원이 선수 한 명으로부터 들어오는 에이전트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수와 공생 관계를 구축하면서 최근에는 예전처럼 계약과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고 선수의 삶 전체에 대한 서비스로 발전하는 추세다. 더 좋은 선수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인 훈련 프로그램, 선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 서비스, 각종 법률 서비스와 개인 재산관리(주거 및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자산관리 등), 더 나아가 팬 관리에 이르기까지 선수 개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듯 에이전트에겐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그 활동 영역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프로리그도 야구와 축구, 농구 등 종목들이 확장되었지만 구단과 선수와의 협상 및 계약에서 에이전트들이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계약은 여전히 구단 프런트와 선수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각 구단이 에이전트보다는 선수와 직접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구단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강한 에이전트보다는 선수와 직접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분명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다. 당장의 사소한 이익보다 프로 스포츠의 건전한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자면 전문성을 갖춘 에이전트의 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 선수들의 해외 진출과 국제 스포츠의 건전한 교류를 위해서도 에이전트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그들을 포함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프로 스포츠라는 하나의 생태계가 활력을 찾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스포츠 에이전트

앞서 이야기했듯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은 해외에 비해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프로 스포츠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프로구단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올 것이다. 어쩌면 그 시기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 최근 국내 프로 스포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박찬호와 류현진 덕분에 우리에게 친숙해진 미국 프로야구의 스캇 보라스나 영화 「제리 맥과이어(Jerry Maguire, 1996)」에서 '쇼 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에 맞춰 춤을 추던 제리 맥과이어는 미국이라는 글로벌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비즈니스의 세계를 어렵풋하게나마 짐작하게 한다. 또한 그들의 프로 스포츠 문화를 부러워하게 한다. 반면 우리 프로 스포츠 문화의 빈곤한 현실을 뻣속 깊이 체감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소 늦을 뿐 모든 문화는 성장하게 마련이다. 만약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꾸고 있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멈추지 않고 정진하면 한국 프로 스포츠

에이전트 분야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스포츠 에이전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와의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선수 및 전 세계 리그 정보에 통달할 필요가 있다. 은퇴선수들 가운데 TV에서 활약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스포츠 및 미디어 분야) 어느 쪽이든 꽤 전망 있는 업종이지만, 취업이나 성공을 위해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아래 홈페이지들은 국내 스포츠 마케팅 및 에이전트 비즈니스에서 주목할만한 기업을 소개한다. 각 기업의 사업영역 및 관리 선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정보



스포츠즌



갤럭시아sm



올댓스포츠

“스포츠에서 이제는 스포츠 산업으로”



스포츠 에이전트
심찬구 대표이사 사장(스포티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스포티즌>의 대표 심찬구입니다. 대학에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지만 스포츠를 체험하고, 관람하는 것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0년 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관련 메가 이벤트가 속속 펼쳐졌습니다.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사회문화적 시스템과 함께 스포츠도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이전트, 매니지먼트를 포괄하는 개념)은 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일입니다. 스포츠가 산업화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스포티즌이라는 회사를 통해 실천하면서 꾸준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를 창업한 동기와 과정은?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를 거치며 대한민국 스포츠는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월드컵 4강이라는 누구도 상상 못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 스포츠는 그냥 체육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죠. 스포츠는 있으나 스포츠산업은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스포티즌을 창업했던 2000년과 비교하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스포츠만 있고 스포츠 산업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스포츠가 산업이 될 때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 모두가 스포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국내 최초로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티즌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 것은 개척자들이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정신이 필요했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스포츠계도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다분하지만 그래도 산업화로 가는 여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스타의 매니지먼트에서 각종 스포츠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벨기에 축구단 인수, F1 그랑프리, 프리스타일스키 & 스노보드월드컵과 1인 방송에 진출하는 등 스포츠의 산업화를 위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직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은 도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른 안정적인 직업처럼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아니죠. 또한 업무도 상당히 비정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스포츠마케팅(에이전트, 매니지먼트) 분야의 직업인은 그런 안정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예측이 불가능한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일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액티브한 스포츠 세계가 직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늘 활기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일한다는 기회 자체가 열정을 불러오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마케팅 시장의 미래는?

스포츠 분야는 국내외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올림픽 등의 세계적인 경쟁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넘사벽이라고 생각했던 동계올

림픽에서도 이제는 금메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는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며 이제는 질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마케팅 분야는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은 시장입니다.

한 예로 일본의 J리그와 국내 K리그를 비교하겠습니다. J리그의 중계권은 약 2천억 원이고, K리그의 중계권은 고작 50억 원 수준입니다. 2000 vs 50. 하지만 축구 실력과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면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스포츠의 산업화가 그만큼 뒤져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분야의 미래는 무척 밝은 편입니다. 또한 보며 즐기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선수들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먼저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면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선수들은 운동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 국가대표 선수가 결승전 끝에 금메달을 따고 리셉션에 참가했는데 은메달을 딴 선수가 정말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

고 보니 그 친구는 본업은 의사였고 일을 마치고 겨우 하루에 2시간 정도 운동을 해서 은메달을 딴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운동에 매달려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신이 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스포츠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한순간 무너질 수 있고 다른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목을 넓히고 좀 더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할 수 있다면 스포츠 이외의 분야를 전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디어, 문화, 머천다이징 등 다양한 분야를 권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 나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나라의 문화, 전시회, 음악 등을 경험하며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지도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경험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장의 메달 색깔보다는 장기적으로 선수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 어찌면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의 목표와 더불어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지금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차별하고 다양한 경험이 나의 미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Part2

스포츠 지도자 분야

- > 01 건강운동관리사
- > 02 생활스포츠지도사
- > 03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 04 노인스포츠지도사
- > 05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06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 > 07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 > 08 전문스포츠지도사
- >>> 멘토 인터뷰 | 장영술 감독(현대제철남자양궁단)

체육지도자 관련 제도 안내

2015년 7월 2일,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시행되면서 체육지도자와 관련한 직업도 세분화 되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류와 등급,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요건 외에도 자격취득 과정인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과 연수 과정의 내용,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과 면제되는 사항, 자격검정 기관과 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등이 전면 개선되었다.

새로운 자격제도의 핵심은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수혜 대상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이전에는 경기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간단히 나뉘어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도하는 내용과 대상, 분야와 수준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세분화했다.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을 하고 비장애인의 경우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유소년 체육지도자와 청소년과 성인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를 각각 구분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에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뉘 지도자를 구분해 직업적인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개정 이전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별도 과정없이 새로운 제도의 자격을 맞춰 승계한다. (이상 관련

한 상세한 자격제도는 P320 스포츠 관련 자격증 살펴보기 참고)

체육지도자 자격체계

지도 내용	대상		분야	자격등급 · 종류
스포츠 종목	비장애인	유소년 (만3세~초등학생)	체육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청소년 · 성인	전문체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개정 전 1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개정 전 2급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개정 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개정 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노인(65세 이상)	생활체육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		체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운동 수행 방법 지도 · 관리			건강운동관리사 (개정 전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운동관리사

처방에 따라 운동으로 치료하는 의무 트레이너

건강운동관리사란?

의료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발달 덕분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히던 질병들이 하나둘 극복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덕분에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의 증가가 반드시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 체계가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보건 교육과 캠페인으로 사전에 질병을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질병에 빠르게 대처하는 등의 방법이다. 그리고 평균 수명의 증가와 관련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의학 분야에서 약물이나 수술은 적극적이며 고전적인 치료 방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치료보다는 예방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예방의 대표적인 방법이 운동 처방이다. 운동 처방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기초체력의 유지

나 강화가 예방 차원이라면 기초체력의 회복은 치료에 가까운 개념이다. 운동의 효과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의 신체 특성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운동 유형과 시간, 강도 등을 제안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그들이 바로 건강운동관리사이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기존에 있던 민간자격증인 운동처방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단,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건강운동관리사(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건강운동관리사)는 자격증 획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의학적 검진을 통해서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의사의 의뢰를 받는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상태와 체력, 질병 이력이나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운동의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수행방법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와 함께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치료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검토 및 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활동 영역과 비전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증(라운드 4 스포츠 관련 국가자격증 상세내용 참조)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사, 석사, 박사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이 인정하는 외국계 학교의 학위 취득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응시 자격요건이 경력에 따라 달라지니 잘 확인해야 한다. 필기시험에서 다뤄지는 분야는 기능

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 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등 총 8개 과목이다. 쉽지 않은 과목이니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주요 목표는 긍정적인 신체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운동 관련 지식과 신체에 대한 공부야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체육이론의 전반적 영역(사회체육학개론, 지도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여가교육론 등)과 인체 역학 및 심리 관련 영역(인체 해부, 스포츠심리학, 스포츠 의학, 트레이닝론, 영양학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직무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게 되면 매일 컨퍼런스 등을 통해 환자 사례를 공부하면서 전문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 스포츠센터 등 병원과 보건소, 관련 기관 등에서 운동 처방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에서 건강운동관리사를 유망한 자격증 분야로 분류한다.

전문직이므로 경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며 병원이라는 근무환경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격증의 취득은 좁은 문이다.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직으로 나서면 그만큼 보람이 있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분야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비만과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운동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각종 질병의 예방과 재활, 치료를 위해서 환자에게 운동을 처방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주목받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강운동관리사이다. 건강운동관리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병의학과 스포츠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하고 어려운 자격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참고 정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시험 안내

생활스포츠지도사

시민들을 위한 체육 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사란?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전문스포츠지도사와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주로 학교나 기타 단체에 소속된 운동부의 감독과 코치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일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맡아 수행하는 시민을 위한 체육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생활체육이 광범위하고 활발한 영역을 구축해 전문스포츠를 이끌고 있다. 클럽 체육이 생활체육의 토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지역 혹은 직장 등을 중심으로 동호인 체육이 다양하게 조직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활동이 확장되고 전문화되면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역할도 점점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학교나 사회체육, 지역체육, 직장체육, 동호인 중심의 체육 활동 등 우리 사회에서의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반영되어 스포츠 전문직의 역할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는 중이다. 생활스

포츠지도사라는 자격 제도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2015년부터 적용된 자격제도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혼



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예전의 경기지도자 자격이며,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에서 변경되었다. 물론 예전에도 전문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는 구분이 되었으나 최근 개선된 제도는 생활체육 부분을 지도 내용과 대상, 분야 및 수준에 따라 좀 더 세분화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기본적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대상은 청소년과 성인, 분야는 생활체육으로 규정된다. 먼저 필기시험은 아래와 같으며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이다. 또한 필기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다음에 실시되는 시험해 한하여 1회의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안내〉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총 4과목)

－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총 7과목 중 5과목 선택)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응시 가능한 자격 조건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다. 기존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학사학위 소지자 등은 바로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경력에 따라서는 필기와 실기가 면제되고 바로 연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자격검증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유리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자격시험 관련해서는 라운드4 스포츠 관련 자격증 살펴보기 참고)

현황 및 비전

생활체육이 활성화함에 따라 활동 영역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공공체육 시설, 사설체육시설, 스포츠센터, 기업, 학교, 공원,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것은 기본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도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무형태는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무가 대부분이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별정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활동시간과 기간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다소 불규칙한 취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클럽스포츠, 동호인 체육활동과 기업의 체육활동이 확대되면 이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됨.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함.

선진국의 경우 생활체육으로의 클럽 체육이 오래전부터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형 생활체육 체계가 갖춰질 경우 우리 생활체육도 그 움직임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프로 스포츠가 사회인 체육을 이끌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프로 스포츠와 사회인 체육의 접목을 위해서도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미래 지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사회체육이 활성화할수록 각광받게 되는 전문직이다. 생활 스포츠는 선진국을 모델 삼아 발전하기 마련이어서 클럽 혹은 동호회를 지도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역할이 차츰 커질 전망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종목의 자격증을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정보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성장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키우는 체육 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증진을 위해 체육 관련 자격제도가 개편되면서 체육지도 대상을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 제도가 탄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해당 제도에서 규정한 유소년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연령대를 의미한다.

연령상 청소년이 아니고 유아와 아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이전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으로 체육을 지도할 지도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탄생한 것이다.

KBS 2TV 해피선데이 코너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했던 꼬마 축구 천재 이강인 선수가 지금 유럽의 유명 축구 클럽에서 프로 선수로 출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만약 이강인 선수가 유소년 시절 축구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활약은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 사례가 증명하듯 유소년기의 체육 활동은 때로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유소년들에 대한 체육 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종목의 스포츠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한 분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갖는 책임감이 얼마나 크고 진지한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유소년 스포츠 자격 종목(총 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플라잉디스크, 피구, 하키, 핸드볼, 행글라이딩.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위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기존 자격증과 동일하게 1단계 필기, 2단계 실기와 구술시험, 3단계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자격시험 관련해서는 라운드4 스포츠 관련 자격증 살펴보기를 참고).

현황과 비전

국민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학원 스포츠와 클럽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소년 연령층에 대한 체력 강화에 학부모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그동안 어수선하게 뒤섞여 있던 자격제도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로 통합되었다. 본 자격종의 취득자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과 학교 등에서 활약이 가능하다.

취업이 가능한 곳은 국공립 보육시설(행정기관부설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나 민간 보육시설(민간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아기 스포츠단이나 유소년 스포츠단 등이다. 근무장소는 운동장이나 수영장 또는 체육관 같은 스포츠 현장이 대부분이다. 아직은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고용이 주를 이루지만 시설에 따라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미취학 유아나 어린이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이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 종일반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학교에 다니는 취학아동은 방과 후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연봉수준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 초임 평균 연봉은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다. 장애 유소년을 돌보는 특수체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며 보수 자체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유소년의 신체활동 및 단체활동은 유년기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 따라서 이 시기 체육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아동복지 시설의 경우 사회 소외계층이 많다. 체육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래를 꿈꾸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고 그에 적합한 전문 체육지도자의 양성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수요의 증가 속도에 비해 전문가의 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아·아동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유치원 선생, 유아·아동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보육교사, 유아·아동 체능단 설립 운영, 태권도, 검도체육관 운영, 유아·아동 체육지도자 파견 전문 업체 운영, 대형할인매장 및 백화점에서 영·유아프로그램 지도 관리 운영, 대학에서 유아 및 아동 체육강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체육지도자가 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과연 어떤 대상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자격증 제도 변경 시 초점을 맞춘 것도 그 부분이다. 성인 혹은 청소년 운동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문화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선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해야 한다. 유소년들과 소통하며 젊고 힘찬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은 젊은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참고정보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노인스포츠지도사

퇴행기 노인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체육 지도자

노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증진을 위해 스포츠 관련 자격제도에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자격 분야가 노인스포츠지도사다. 우리 사회는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령사회를 넘어 이제는 초고령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노인들도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건강하게 늙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노인들에게 적당한 운동은 삶의 활력을 얻는 에너지가 된다. 근력이 증가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병원비도 절감할 수 있다. 즉, 노인 스포츠의 활성화는 국가재원까지 절약하는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노인 스포츠는 우울증과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피부미용 및 노화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신체적 한계가 있어서 젊은 시절처럼 혼자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스포츠지도사는 스포츠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다. 노인스포츠지도사는 수혜 대상을 노인으로 특정하며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이 개편되어 적용된 자격이라고 보면 된다.

〈노인 스포츠 자격 종목(총 55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 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키,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하키, 핸드볼, 행글라이딩.

현황과 비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스포츠지도사는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사설 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직장 동호회, 노인복지회관, 구민회관, 기타 민간체육시설(58,884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 · 신고체육시설업현황」 2017년), 공공체육시설(24,303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 · 신고체육시설업현황」 2017년), 노인전문병원 등이다.

국내의 경우 노인스포츠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요는 점점 커져갈 전망이다. 그럼에도 아직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인력난이 예상된다.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농촌지역의 경우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추가 양성하여 배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이 분야의 지원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노인의 경우 무리한 체육활동이 치명적인 건강 악화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식생활이나 정신건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실제로 지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가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단 그런 기대심리가 아니더라도 노인스포츠 분야는 사망감을 안고 뛰어든 만한 분야다.

전문가의 가치는 어려움 속에서 더 커지게 마련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란다.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시험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며 시험 방식과 자격 제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노후의 삶의 질 개선이 조명을 받고 있으며 스포츠를 활용해 그 목적을 이루려는 노인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생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에 노인을 위한 스포츠 분야도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할 전망이다. 노인들의 건강은 사회적 비용과도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 역시 끊임 없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역할 그리고 보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정보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의 운동 능력을 키우는 체육 지도자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게 구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기존 사회 시스템 안에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다. 패럴림픽(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흔히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함)에서의 활약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스포츠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혹은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장애인을 지도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탄생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모두에 관여하며 장애 유형을 살펴 그에 적합한 종목과 방식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요

구되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자격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본 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는 생활스포츠지도자 3급이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체계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나뉘어 있다. 자격증 시험은 필기와 실기, 구술과 연수로 나뉘어져 있고 해당 과정을 모두 통과 수료해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시험 체계는 기존 제도들과 유사하다. 자세한 요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매년 변동되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자격시험 관련해서는 라운드4 스포츠 관련 자격증 살펴보기 참고)

〈장애인 스포츠 자격 종목(총 36개 종목)〉

골볼, 공수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노보드, 승마,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크로스컨트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핸드볼.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활동 영역

스포츠는 비장애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재활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활동이다. 다행히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치료와 재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멈추

지 않아야 한다.

아쉽게도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활동 영역은 아직 제한되어 있다. 특수학교나 장애인 실업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이 협업을 통해 지자체별로 새로운 장애인 대상 스포츠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관심에서 비롯된다. 그 관심이 배려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서비스로 전환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관련 지식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희생정신과 배려는 기본이다. 스스로의 자질에 대한 질문도 필요하다.

참고정보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흥전문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기업체, 학교, 복지기관 등이 개최하는 캠프나 모임에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한다. 사전에 참가자 규모나 모임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 모임의 성격, 장소, 시간, 인원수, 남녀비율과 연령대 등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오락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기도 하고 노래, 율동, 게임 등을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문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예능이나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MC(Master of Communication)라고 부른다. TV 속의 그 인물들을 모임이나 행사로 옮기게 되면 그대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청소년 캠프와 기업체 연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요도 점점 늘고 있다. 지명도

에 따라서는 연예인처럼 전국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도 한다. 팀으로 움직이거나 기업화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바로 레크리에이션 분야다.

현황 및 비전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민간 자격증으로는 세계레크리에이션교육협회에서 주관하는 레크리에이션 자격증과 YMCA나 레크리에이션 관련 사단법인(협회)에서 발급해 주는 1급, 2급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민간자격증이 있다. 그런 자격증들이 취업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 자격증은 발급 기관별로 해당 기관 및 협회 또는 각 협회가 인증한 교육원에서 교육연수를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낭비일 수도 있다. 적절한 선별이 필요하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포함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종사자 수는 4만 8천3백 명(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실태조사」 2016) 정도 수준이며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약 65% 정도라고 한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포함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성비는 대략 남자가 75%, 여자 25% 정도 수준이며 평균 연령은 34세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던 방법이었다. 그러한 인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새로운 측면에서 살

떠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레크리에이션이 대부분 오락과 게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레크리에이션 자체를 스포츠의 한 분야로 인식해서 체육 활동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형식을 참여형(체험형)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스포츠 관련 지식과 경험을 접목시킨다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체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전문분야를 활용해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기 바란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청소년 캠프의 활성화, 기업의 직원 연수 상시화 등 단체 문화의 변화 추세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닌 분야이다 보니 경쟁 역시 치열하다. 그럼에도 노래와 춤, 게임 등 단체를 이끄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면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전문 매니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란?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현대사회. 특히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만날 기회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비만도를 높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비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소모적인 비용이 높아질수록 사회 경제는 건전성을 잃어가게 마련이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은 국가 경제적으로 또 전체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제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비만은 체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그리고 개인의 의지와도 관련되어 있다. 즉흥적으로 체중 감량을 다짐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누구나 각오를 다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꾸준히 수행해 몸을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뛰어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이어트 프로

그래머는 미래 유망 직종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는 대상자의 체중과 체지방 등을 기계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들의 식습관, 운동량,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한다. 그렇게 얻은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등 다양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설계해 준다. 그리고 고객이 설계된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체중 및 체지방 감소 여부를 측정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그때그때 고객에게 다이어트의 진행 상태를 설명하고 협의하는 일까지가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는 저마다 일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업무 영역 자체는 크게 상담, 다이어트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그리고 실행 및 관리 업무로 나뉜다. 업체에 따라 각각의 영역이 재조정되기도 한다. 상담과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실행과 관리는 테크니션(Technician) 또는 테라피스트(Therapist), 영양 분야는 별도의 영양사가 담당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현황 및 비전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으로는 다이어트 정보학과, 식품 영양학과, 피부 미용과, 체육학과 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규 학위과정을 거쳐야 다이어트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도 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다. 아직 국가 공인 자격제도는 없지만 한국 다이어트 프로그래머협회 등 민간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즉, 해당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으

나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유사한 국가공인 자격증을 찾자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정도다. 실제로



그것들은 서로 비슷하고 도움이 되기도 한다. 업무에 유익한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도전한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리라 판단된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의 평균 연봉은 2,70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래머가 받는 임금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기업에 따라 다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관리하는 고객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지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비만 클리닉, 바디케어샵, 다이어트 식품회사, 헬스센터 등이다. 직업 특성상 아직은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여성을 케어하기 위해 여성 위주의 지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헬스센터 등에서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남성들의 진출도 가능하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도 앞으로는 상당히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헬스센터에서 1:1 케어의 목적으로 나온 PT도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의 해당 직업 범위가 넓게 해석되므로 어떤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할지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다이어트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따라서 다이어트와 관련한 산업과 서비스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경쟁 또한 거세지고 있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는 직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탄생했다. 신체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동능력, 독창적인 아이템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한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인과 청소년 그리고 팀을 리드하는 체육 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사란?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직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대상과 종목을 세분화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체육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한다.

물론 현역의 우수한 지도자들이 모두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경력과 실력만으로 충분히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전문스포츠지도자는 주로 학교나 단체의 감독과 코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일반인을 위한 체육지도자로도 활약할 수 있다.

스포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마다 지도자는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스승의 권유로 지도자로 입문하거나 우연한 기회에 팀을 맡는 경우가 스포츠 지도자가 되는 경로였다.

수많은 개별 종목 중에서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종목은 다음과 같다.

〈전문스포츠지도사 관련 체육 분야 55개 종목〉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켈레톤,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자격 취득 과정

전문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체육 분야별로 1급과 2급의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전에는 모두 1급, 2급 경가지도자였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단계에 따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을 통과해야 한다.(자격시험 관련해서는 라운드4 스포츠 관련 자격증 살펴보기 참고)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실기 및 구술시험

3단계) 연수(실무) 과정

위에 있는 3단계의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각각에 맞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필기시험의 검정기관이며 실기 및 구술시험은 〈대한체육회〉, 〈태권도협회(태권도 단일 종목)〉가 검정기관이다. 마지막 단계인 연수(실무) 과정의 경우 1급은 〈국민체육진흥



공단), 2급은 한국체육대 외 3
곳이 검정기관이다.

각 체육 분야는 위에 있는 총
55개의 전문분야 중 자신의 전
문 분야를 선택하고, 연수과정

은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자 관리, 컨디션 관리와 스포츠심리 및 트레
이닝 방법 그리고 지도역량 강화 등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기본
적으로 각 과정과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인정요건 등을 상세하게 이해하
고 준비해야 한다.

현황 및 비전

평균연봉은 개인과 팀 그리고 해당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특
히 개인 실적에 따라 스카우트하는 체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전문스포츠
지도사는 주로 국가대표팀, 실업팀, 프로팀, 학교 운동부 등에서 활동한
다. 이들은 해당 종목의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합숙이 많아서 시즌 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
시즌 기간에도 전지훈련 등이 있어서 시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한
다. 따라서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운동선수에서 코치, 수석코치를 거쳐 경험을 충분
히 쌓으면 감독으로 성장하게 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도자 경험
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대학팀이나 프로팀으로 스카우트 되는 경우
도 있다. 팀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 외에 스포츠 해설자, 스포츠 센터 강

사, 스포츠 에이전트, 전문 스카우터 등의 분야로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체육시설을 경영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선 건강과 운동 그리고 프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전망이 밝은 편이다.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얻은 성과들은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국가에서도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있다. 전문스포츠지도사를 위한 일자리나 대우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체육지도자 중 최상위 직종이 바로 전문스포츠지도사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직책이기에 무게감과 책임감도 따른다. 학생 혹은 선수들에게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작은 팀에서부터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정보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외국어는 필수!”



전문스포츠지도자
장영술 감독(현대제철남자양궁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남자양궁팀 장영술 감독입니다. 오랜 기간 체육부대와 국가 대표 양궁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양궁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을 통해 한국 양궁이 양궁 역사에 남을 큰 족적을 남기도록 일조해온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금은 현대제철 남자양궁팀을 이끌고 있고 한국 양궁의 역사와 기록을 모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매뉴얼과 훈련법을 비롯해 선수 개인 훈련부터 실전의 모든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훈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준비과정은?

양궁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은사님의 요청

으로 대학 졸업과 함께 지도자의 길로 바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때 제가 다른 생각을 했거나 양궁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비록 뜻밖의 길이었고 선택이었지만, 양궁 지도자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지만 그 길에 들어선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 지도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대학 다니면서 지도자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다운 모습을 갖추려고 더욱 노력한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돌아보니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성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스포츠지도자의 근무환경과 직업적 장단점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전문지도자 영역 중 가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감이 크게 요구되는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직업적으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특히 선수와 대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해서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미안합니다. 지금도 아침 7시면 훈련장에 출근해 난방을 하고 이런저런 정리를 해서 선수들이 도착했을

때 바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또 일찍 나와야 하고요. 그런 모든 것이 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지도자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에 어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스스로 잘 적응하고 확신을 가져야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좋은 선수가 나올 수 있겠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도자의 길은 넓고 무한합니다. 그만큼 스스로 잘 관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가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양궁만 하더라도 전문선수지도자의 길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길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단단하게 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꿈과 목표’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도 “꿈과 목표가 없다면 훈련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꿈을 가졌다면 당연히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없는 목표달성은 없기 때문이죠. 꿈과 목표는 늘 높게 가지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조금이나마 꿈과 목표에 다가가도록 만

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라면 선수들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꿈과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다가가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코치로 참가한 첫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두 번째 감독으로 참가했던 올림픽부터 결실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꿈과 목표를 두고 해당 경기장을 분석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훈련으로 꾸준히 소화시킨 결과였습니다.

만약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과 목표가 없었다면 구체적인 훈련도 기획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금메달이라는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이 꿈과 목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지도자를 동경하기보다는 스스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선수를 위하여

오랫동안 지도자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외국어 능력입니다.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로막힌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 혹은 중국어 같은 언어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된다면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 무대에서 지

도자로 활동하며 뼈저리게 느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언어 습득에 노력해 주길 당부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촉매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꿈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외국어 능력을 겸비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멋진 지도자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Part3

스포츠 교육 분야

- 〉 01 체육 관련학과 교수
- 〉 02 특수학교 체육교사
- 〉 03 체육 관련 연구원
- 〉 04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 〉〉 멘토 인터뷰 | 오정훈 교감(서울체육중학교)

체육 관련학과 교수

체육을 학문으로 달성하는 금메달리스트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2018년 현재 체육학과는 총 403개, 재적학생 수는 56,923명이며 관련 교수자원은 1,071명(출처 : 교육부 통계 2018)이다. 교육 수준과 재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국에 분포한 대학 수는 동결 혹은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체육 관련학과는 아직까지 포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축소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체육 관련 교수 자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체육 관련 교수직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체육 관련학과 교수란?

체육 관련학과 교수는 대학에서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유능한 체육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체육, 무용, 레크리에이션 및

관련 분야의 이론과 지식을 연구하고 강의한다. 체육 관련 기초학문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신체적 운동 능력과 직업적 직무수행 능력을 연마하도록 지도하는 것 역시 교수들의 몫이다.

체육지도법, 트레이닝, 구급처치법 등의 이론 분야는 물론이고 각종 구기 종목, 검도, 골프, 레슬링, 복싱, 볼링, 사격, 수영, 씨름, 유도, 태권도 등 개인 종목의 실기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교과목으로는 레크리에이션, 무용, 사회체육,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체육사, 체육실기, 체육이론, 특수체육 등이 있다.

대학에서는 대개 예술과 체육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체능계열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 계열의 교수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공과목의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지만 일부 전문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특별한 업적이나 해당 분야의 오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일 경우 교수로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공 분야에 관한 다양한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수를 꿈꾸는 이라면 국내외 학술지를 통해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관련 학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교수 임용은 학과별로 공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3년 정도 전임강사로 채용한 후 연구 성과, 강의평가 등을 고려하여 교수로 정식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황 및 비전

체육 관련학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가르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학생들을 조율하고 이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

다.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기훈련은 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며 시범을 보이는 등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다. 같은 동작과 내용을 반복



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인한 체력도 요구된다.

예체능계열교수의 고용은 앞으로 5년 정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매우 많은 상황이어서 각 대학은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간 강사의 비율을 줄이고 교수 충원률을 높이는 등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에 힘쓰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취업 성과에 비중을 두어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대학의 양적 팽창 탓에 일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에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 간, 학과 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이렇듯 각 대학이 이런저런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서 교수 임용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육계는 공무원만큼이나 안정된 직업군에 속한다. 학교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특별한 과오가 없고 노력이 뒷받침되는 한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사회연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직업에는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공부는 지구력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학문과 운동 모두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노력 여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국내 대학의 현실이 사뭇 밝지는 않다는 점이다. 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이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 실력과 의지만 있다면 해외에서도 지도자 혹은 교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특수학교 체육교사

장애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교육자

특수학교 체육교사

특수학교 체육교사는 일반학교 체육교사와 업무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장애 학생을 상대로 수업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특수학교 체육교사의 보편적인 일과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교사처럼 아침에 학생들 등교지도를 하고 시간표에 따라 체육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마친 뒤에도 교사의 역할이 남는다. 학생들이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를 할 때, 식사 이후 양치질하는 것까지도 교사가 함께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수학교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오를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또한 특수학교 체육교사는 수업할 때도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체육교과 과정대로 장애 학생들에게 수업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창의적으로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 영역 및 비전

특수학교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뒤에 특수교사 임용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현재 교육제도에서는 특수학교 체육교사를 따로 뽑지 않고 ‘특수교사’로 통합적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수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들과 특수체육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두 ‘특수교사 임용고시’를 치러야 한다. 한 사립 특수학교에서 체육교사를 채용하는 사례를 보면 특수학교 교사(중등 체육)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필기, 수행평가, 면접을 진행해서 최종 합격자를 정한다.

특수학교 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263만 원(출처 : 2013-2014 JOB MAP) 수준이다. 물론 앞서 체육교사처럼 근무연수, 지역, 채용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근무환경은 다른 교과 선생님보다는 실외근무가 많지만 실제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만큼 실내근무가 많은 편이다. 반면, 실제적인 활동량은 적지 않다.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항상 긴장감 속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취업 전망은 어둡지 않다. 앞으로 특수학교 체육교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특수학급을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 영아학급, 순회학급도 늘고 있다. 그 흐름에 맞추어 특수학교 전공 학과의 설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특수교사의 배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하는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듯 특수

교육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특수교사는 취업 측면에서 볼 때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에 관심이 높아져서 학교가 아닌 치료실, 복지관, 병원 등에도 특수교사의 취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사라는 직업의 안정성은 특수학교 체육교사에게도 적용된다. 정년의 보장, 기업 연금보다 유리한 사학연금, 연차에 따른 호봉의 꾸준한 상승 등은 이 직업을 선망하게 만드는 조건들이다. 단, 특수학교 체육교사 역시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초·중·고 교사와 같은 이유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직업은 아니다. 사명감과 소명의식 없이 일을 하기엔 버거운 직종이다. 최근에는 특수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아직 그 증가폭은 넓지 않은 편이다. 아래 링크인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 및 기본 정보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가이드북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정보



국립특수교육원

체육 관련 연구원

건강한 삶의 비결을 찾아라!

체육 관련 연구원은 체육활동 및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사회학, 심리학,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주제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인간과 체육 활동의 관계성을 기초로 국민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스포츠 사회학 연구원

스포츠 사회학 연구원은 말 그대로 스포츠와 인간 사회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다. 즉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동 유형과 현상을 그 자체로 분석하지 않고 사회화 과정이나 기능 등 다양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 구조, 스포츠와 미디어와의 관계성, 스포츠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응집, 심지어는 폭력 등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스포츠 심리학 연구원

체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 요

인들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인간 행동과 심리작용(인지, 정서, 동기유발 등)과의 관계를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교육하고 각종 질문지를 사용하여 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심리문제를 조사·분석하기도 한다. 상담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의 의욕저하를 해소하며 동기유발이나 주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또한 리더십, 일탈행동, 대화기술 등 운동선수와 지도자 간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신훈련 기법 연구, 운동학습 모형 개발,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코칭 기법 연구 등도 스포츠 심리학 연구원의 수행과제다.

스포츠 정책 연구원

스포츠 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국민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평가부터 시작해 관련법과 자원, 인력, 조직, 시설 등 체육 기반 조성에 관여한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부문별 정책을 연구하고 체육 지표 개발 및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스포츠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도 빼놓을 수 없다.

생활체육 연구원

국민의 건강과 체력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결과를 체육정책 자료로 제공하거나 생활체육현장에 적용하는 일을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국민 체력 및 체격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균 기준치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한다. 국민 체력증진을 목표로 체력관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 여가활동의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이 외에도 국민 체력진단, 운동처방 등 다양한 영역을 연구하고 각 언론매체를 통해 건강과 체력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생활 체육에 대해 강의하기도 한다.



체육 의학 연구원

국민의 건강 및 체력관리,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의학적 연구를 수행한다. 성인병 예방과 처치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며 운동선수의 혈액학적 검사도 지원한다.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에 관한 의학적 검사내용을 체계화하고 운동 상해에 관한 예방 및 분석, 재활에 관한 의학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매스컴을 활용해서 국민의 건강 및 체력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대학과 대학원에서 자신만의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왔다면 해당 분야의 지속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원이 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연구원 업무는 비교적 대학과 비슷하지만 일부 이윤 창출을 위한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인 연구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도 아직은 관문이 넓지 않은 편이지만 연구 자체를 즐긴다면 도전할 가치가 있다.

중 · 고등학교 체육교사

청소년의 체력과 건전한 성장을 돕는 교육자

중 · 고등학교 체육교사

중 ·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학교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서를 유지,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체육 종목의 기술과 동작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일을 한다. 이론 수업을 통해 체육의 원리를 가르치고 실기에서는 학생들의 움직임 관찰해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기도 한다.

중 ·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단순히 해당 과목의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로 역할이 끝나지는 않는다. 잡다한 학교 업무와 행정 업무 처리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춘기에 들어서거나 대학입학 시험을 앞에 둔 아주 예민한 청소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체육교사라는 직업이 생각처럼 단순한 영역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 ·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임용고시는 크게 3차까지 나뉘어 있다. 1차, 2차 필기고사를 치르면 3차 수업시연 및 면접이 이루어진다. 체육교사 임용고시에서는 실기시험

도 함께 치러진다. 실기시험의 종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실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사범대학 관련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비사범계열이라면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4학년 1학기에 시행되는 교생실습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하게 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는 비사범계열학과 졸업 후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2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현황 및 비전

교사들의 평균 연봉은 3,000만 원 이상(출처 : 교육부 커리어넷)이며 근무연수, 채용형태(계약직, 정규직), 학교형태(사립, 공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근무환경은 뛰고, 견고, 서서 일하는 실외근무가 많은 편이다. 또한 업무 상 예민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생기는 직종이다.

앞으로 5년간 체육교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에 따라 중등학교의 학교 및 학급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중등학교 교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체육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는 어렵다.

중등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 시험의 합격자는 지원자 수 대비 10% 미만으로 점차 취업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체육교사를 희망하고 있다면 오랜 시간의 준비와 끈기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사는 기본적으로 서로 비슷한 대우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연금체계가 일반 기업과 다르고 정년 등의 보장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교사 초기에는 박봉에 어려움이 많지만 정년이 되어갈수록 점점 더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심하다. 만약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실천이 필요하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가장 안정적인 직종 1순위로 꼽혀 온 직업이 바로 교사였고 지금도 그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호흡하며 신체와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봉은 다소 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년퇴임할 무렵엔 그 어떤 직업도 부럽지 않을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과 교직 이수를 위한 제반준비가 필수다.

“미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체육교사
오정훈 교감(서울체육중학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체육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훈입니다. 1989년에 중학교 체육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 업무지원을 통해 인연을 맺은 장학사의 권유로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여 2007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로 근무했습니다. 7년 동안의 장학사 근무를 거쳐 2014년부터 서울체육중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선택의 동기와 준비 과정은?

체육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결과가 저의 소신과 의지로

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982년은 88서울올림픽 유치 결정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육 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담임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와 타고난 운동신경을 덕분에 자연스럽게 체육교육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약칭 ‘교원 임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기에 그 전에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게 된 저로서는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최근 교사는 안정성이 높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임용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특히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체육교사 선발과 응시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중등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시행되는 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3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과 중등 체육교원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중등 체육교원자격증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체육 관련 학부나 학과에서 교직 이수 및 졸업 또는 체육학과를 졸업한 뒤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으로 진학하여 무시험자격검정을 거쳐 졸업해야 합니다.

교원임용시험 과목으로는 일반 교육학, 체육교육학 및 체육 내용학 등의 이론과 육상, 체조, 수영 등의 기초종목과 배구, 농구, 축구, 무용 등

의 실기시험 준비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준비도 해야 합니다. 교감이 되는 과정으로는 중등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근무 및 연수 성적 관리를 하거나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청이나 연수원 등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 교감자격연수를 거쳐야 합니다.

근무환경과 직업의 장단점은?

대체로 양호한 근무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은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기에 교원이라는 직업군에 속해 있지만 교과수업을 담당하지는 않기에 수업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학습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하고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 일반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업무 부담과 책무성의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교감은 학교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기에 이에 따른 전문성 제고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원 등의 발생 증가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준비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4차산업 혁명으로 불리는 미래사회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는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과 환경도 이에 맞게 변화하고 추진돼야 하기에 교감은 남다른 교육관과 신념,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량은 교원임용고시 준비와 일선 학교에서의 교사로서의 경험과 노력의 과정을 통해 축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선수를 위하여

정부가 수년 동안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상 구현에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에 운동부 지도자, 학생선수,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적 의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와 운동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운동은 몸과 신체활동을 통해 체험적 지혜를 얻는 또 다른 형태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회출전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최저학력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졸업이나 운동 중도포기 및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운동학습과 교과학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 등에서의 입상

또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각종 대회에서의 메달 실적이 은퇴 이후의 직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국가대표가 최종적인 직업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직업을 찾아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현존하는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동학습 외에 다양한 분야의 학습역량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창의적 사고역량과 협력적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이라는 매우 유용한 학습 내용이자 방법을 경험한 학생선수가 어학공부, 음악, 미술 등의 교과학습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학습경험도 함께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쟁논리를 넘어서 타인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녀야 할 성품과 역량인 협력적 인성을 키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창의적 사고역량과 협력적 인성역량은 직업 선택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에 체육교사나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 등의 직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art4

스포츠 기술 분야

- > 01 비디오 분석관
- > 02 스포츠 게임 기획자
- > 03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 프로듀서
- > 04 스포츠마케터
- >>> 멘토 인터뷰 | 이승용 팀장(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비디오 분석관

스포츠를 영상으로 분석한다

비디오 분석관이란?

최근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비디오 판독이다. 전문성을 갖춘 심판들이 경기 전반을 육안으로 꼼꼼하게 살피지만 간혹 육안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 각자의 팀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심의 권한으로 비디오 판독을 결정하기도 한다.

지난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경기 중 첫 번째 골의 오프사이드 여부를 결정지은 것이 바로 비디오 판독이었다. 만약 당시 비디오 판독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한국은 첫 골을 날려 버렸을지도 모른다.

비디오 판독은 비디오 분석관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원래 비디오 분석관은 각 팀을 위해 경쟁 팀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자체 훈련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수의 문제점을 파악해 경기력을 강화시키는 등 팀의 전체적인 전략 향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을 한다.

수영이나 육상, 스케이트 같은 기록경기에서도 각 선수들은 영상 분석을 통해 0.0001초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은 결코 선수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어떤 포지션에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개선했을 때 기록 단축이 가능한지 팀의 전력 분석부터 선수 개개인의 기록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리포트 하는 것이 비디오 분석관의 역할이다. 단순히 영상을 기록하고 돌려보는 작업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활동 영역

비디오 분석관은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 필요한 직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을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그야말로 도제 방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특수한 프로그래밍과 영상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하는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점은 몹시 아쉬운 부분이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디오 분석관의 필요성은 부각된다. 하지만 단순한 영상 테크닉이나 컴퓨터 능력만으로 비디오 분석관이 될 수는 없다. 일단 각 스포츠 종목에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 분석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영상 테크닉과 컴퓨터 활용법에 능하다면 경쟁력은 더욱 커진다. 언어능력이 갖춰질 경우 해외 진출까지도 꿈꿔볼 수 있다.

비디오 분석은 종목에 따라 특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그것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만들어져 보급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거나 운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미래 비전

프로구단과 국가대표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비디오 분석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비디오 분석을 통해 좋은 성적을 올리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스포츠 전 분야에서 비디오 분석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의 직원이 파견되거나 은퇴 선수, 구단 관계자가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직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문 인력으로서의 대체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 안타깝게도 전문 비디오 분석관을 양성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아직 없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디오 분석관에게 각 종목에 따른 채용정보와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게 유리하다.

각 협회나 팀, 구단 등에서는 비디오 분석관을 위한 보조 인력을 채용하

는 경우가 있다. 그런 방식의 인턴십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당 업종에 먼저 발을 디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비디오 분석관은 단순한 촬영과 편집자 역할을 뛰어넘어 전략적 자료 분석으로 감독의 판단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한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비디오 분석관은 영상 기술에 대한 지식, 경기의 흐름과 선수의 움직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스포츠 단체나 협회 단위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턴으로 출발해서 분석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다. 전망이 밝은 분야이기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 및 컴퓨터 관련 기술을 꾸준히 익혀 두는 것이 좋다.

참고 정보



권혁수 (제주UTD 비디오분석관)

스포츠 게임 기획자

스포츠 게임을 더욱 현실감 있게 설계하라

스포츠 게임 기획자란?

게임 기획자는 새로운 게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로 실제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게임을 기획하는 직업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서 크게 시스템 기획자와 레벨 기획자로 구분되는데 시스템 기획자(System Designer)는 게임 구성과 게임의 기본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 축구게임을 개발하는 경우 ‘귀여운 캐릭터가 움직이는 볼 차기’라는 게임 콘셉트를 정했다고 하자. 시스템 기획자는 이제 캐릭터 간 공을 차는 방법의 차이는 무엇이고, 아이템은 어떻게 얻고, 개인기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설계하게 된다. 그에 비해 레벨 기획자(Level Designer)는 게임 퍼포먼스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둔다.

가령 게임에서 일정 단계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지 원하는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원을 모아야 한다는지 하는 문제들에 답해 주는 게 그들의 역할이다.

게임에는 롤플레이팅 게임, 슈팅 게임, 퍼즐 게임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중에서도 게임 분야 베스트는 스포츠 게임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축구, 야구, 농구 같은 종목별 게임 개발에 이어 전 세계 관련 리그를 게임화하기도 한다. 각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규칙의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 게임 기획자란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기획하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스포츠와 게임 엔지니어링 모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게임기획자가 되는 데 특별히 학력이나 전공에 제한은 없다. 그렇다 해도 게임 제작 혹은 기획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과거에는 게임 기획 전문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대학 내 게임 관련학과가 증설되거나 게임전문고등학교가 등장하고 게임 기획자를 양성하는 학원도 설립되는 등 교육 환경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다.

게임기획자 선발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게이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게임 업계의 한 구성원으로 시작해서 오랜 시간 경험을 쌓은 후 게임 기획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게임기획전문가’가 있다. 스포츠 게임기획자의 경우 기획하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종목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선수들의 플레이를 집중해서 연구하는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황 및 비전

게임기획자의 평균 연봉은 3,400만 원 수준으로 업무 경력과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신입의 경우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시작하지만 자신이 기획한 게임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시장 내 몸값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게임기획자는 기획하고 있는 게임이 완성될 때까지 매우 긴장되고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기획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 게임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분야가 다른 각 개발팀을 관리하는 일도 해야 해서 실제 게임이 출시되기까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게임으로 완성해 내겠다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설새 없이 분주하게 일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게임 기획자이며 그 가운데 스포츠에 특화된 전문 기획자가 바로 스포츠 게임 기획자다.

전반적인 게임불황으로 업계가 개발 투자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게임의 신작 출시는 매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출시된 스포츠 게임 역시 매년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아야 해서 스포츠 게임 기획자는 다른 게임 분야에 비해 롱셀러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올림픽, 월드컵 등) 시즌이 되면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상승과 맞물려 다양한 스포츠 게임이 새롭게 출시된다. 문제는 경쟁이 치열한 게임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게임의 성공여부는 시작 단계인 기획에서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기획자

의 역할은 중요하다. 비록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지만 게임기획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게임은 개발 유형에 따라 PC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은 짧은 시간 내 다양한 게임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바일 게임기획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게임기획자가 되고 싶다면 관심 있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쌓고 실제 경기를 관람하면서 게임의 콘셉트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덕후 기질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최근엔 게임 분야에서도 질 높은 현장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 경기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스포츠 게임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들 게임은 매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며 그때그때 선수들을 교체하기도 한다. 게임과 스포츠 모두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스포츠 관련 게임 기획은 아주 매력적인 직종이다. 하지만 이 분야 역시 아직은 취업의 문이 좁은 편이다. 학원이나 아카데미에 등록해 관련 교육을 받는 동시에 해당 기관을 취업의 전초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 프로듀서

가상으로 체험하는 VR 스포츠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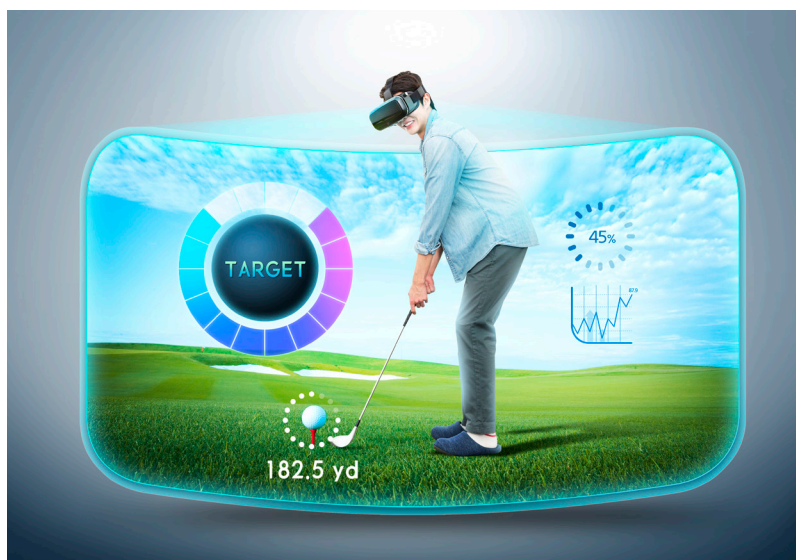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 프로듀서란?

이번에 소개할 직업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스포츠와 관련한 미래의 유망직종이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 VR)은 4차산업 혁명의 주변부에 위치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여겨지던 기술이 어느 순간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는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VR방이 좋은 예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재미있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가상현실이 스포츠 분야에 적용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최근 10여 년의 경향을 보면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스크린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이다.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초가 된 것은 골프였다. 세계 주요 골프장을 스크린으로 옮겨놓고 현실과 비슷한 가상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게임 시뮬레이션에 접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골프를 뛰어넘어 야구까지도 구현이 되었고 다른 스포츠도 스크린으로 재현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스포츠는 365일 실내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준비 없이도 관심 분야의 스포츠를 익히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스크린 체험이 좀 더 진화하면 가상현실의 구현도 가능해진다. 눈에 고글을 쓰고 각종 스포츠 레슨을 즐길 수도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는 간접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계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는 섬세함을 제공해서 가상체험을 현실처럼 느끼게 만들어 준다. 자전거를 예로 들면 하드웨어는 실제 페달을 밟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그리고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그 속도감을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와 연동시키면 마치 유명한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직접 달리는 듯한 쾌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가상체험에 현실감을 제공하는 일이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저 예정된 그것도 조만간 현실화될 미래의 일일 뿐이며 그 즈음엔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아마 낯설지 않은 직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직업은 아마도 스포츠와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직업으로 평가될 것이다.

활동 영역과 비전

현재도 스포츠 시뮬레이션 기업에서는 스포츠와 관련한 전문직 도전이 가능하다. 스포츠 가상현실을 게임과 같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둘 사이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상현실은 게임보다는 더 현실에 근접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오락성으로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스포츠에 대한 규칙과 기교를 익히고 진지한 취미로 인정받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 발 더 나아가 운동선수들의 훈련에도 가상현실을 접목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오리라 믿는다.

최근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AR)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증강현실이란 카메라를 이용해 현실에 없던 캐릭터나 물건 등을 현실처럼 등장시켜 몰입감을 주는 방식이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포켓몬 GO’가 좋은 예이다. 이런 증강현실은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도중 증강현실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가상현실은 비단 프로듀서라는 직업뿐 아니라 IT기술을 스포츠

에 접목할 때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진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최근 VR체험방이라는 콘셉트의 업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 장래엔 교육과 체험 분야에도 가상현실이 접목될 전망이다. 스포츠에서도 가상현실을 활용해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현장감을 강화시켜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 등 여러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스포츠 체험 코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프로듀서의 출현은 이미 등장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스포츠와 가상현실 두 분야를 병행해 공부해 나간다면 당신이 그 미래 직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마케터

구단과 팀의 이미지를 기획하는 사람들

스포츠마케터란?

스포츠마케터는 스포츠와 관련한 기업, 구단, 소속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특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지원, 선수지원, 스포츠용품 판매 등을 대행하는 업무로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각 스포츠 기업과 구단은 소속 선수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의 이미지가 모여서 하나의 팀컬러가 된다. 선수 개인의 능력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선수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팀과 구단의 이미지까지 돋보이게 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다. 그 효과는 곧장 데이터로 나타나곤 하는데 선수 개인의 광고료 상승, 입장권 판매율과 SNS 팬 수의 증가 현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선수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스포츠마케터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수가 지닌 이미지를 제품 혹은

서비스와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한다. 뛰어난 스포츠마케터라면 그런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미 스타가 된 피겨여왕 김연아, 마린보이 박태환, 국민 여동생 손연재 선수 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광고 모델이 되었을지 추측해 보자. 아마도 그들 스스로 광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훈련에 쫓겨 그런 상상을 할 겨를조차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포츠마케터의 손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에서 혹은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포테이너(스포츠+엔터테이너)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프로구단은 경기 흥행을 위해 스타선수를 발굴해서 영입하는데 여기서도 스포츠마케터의 역할이 작용한다. 그들은 선수들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선수와 관련된 상품들도 함께 기획해서 팬들을 유혹한다. 팀과 관련된 상품들(유니폼, 신발, 액세서리 등)뿐 아니라 스타의 이미지와 접목할 수 있는 모든 제품군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가치를 창출한다. 마치 마술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이들 스포츠마케터들의 일이다.

현황 및 비전

대학에서 경영이나 마케팅 혹은 스포츠 경영학, 스포츠마케팅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육과학연구원 등의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 관련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실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스포츠경영관리사 시험이 있다.

스포츠마케터는 전문 에이전시나 구단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수시채용으로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몇몇 대형 에이전시가 업계

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깃으로 하는 에이전시에 대한 철저한 기업분석과 자신이 타깃으로 하는 종목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에서 발표한 스포츠마케터의 평균 연봉은 3,968만 원(2015년 기준)이다. 하지만 고객에 따라 역할과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업계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하거나 외부 고객을 대해야 하기에 외부활동이 잦지만 각종 지표를 분석하고 전략을 기획하는 등 내근 업무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항상 스포츠 현장과 가깝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이 오히려 더 바쁜 업종이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이유로 각광받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역사가 짧고 기반이 약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프로 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터들의 활동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별한 종목에서 세계적인 톱클래스를 유지하는 팀과 글로벌 스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국어를 꾸준히 익혀 국제 스포츠마케터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프로 스포츠 초기에 스포츠마케팅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팬이 곧 수익이라는 프로 스포츠의 공식에 익숙해지면서 구단은 팬을 구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 본격적인 마케팅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어느덧 스포츠마케팅은 중흥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분야이기에 성장 가능성은 아직 밝다. 프로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전문적 지식, 거기에 외국어 능력까지 겸비한다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참고정보



한지연 (세마스포츠마케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열정과 능력은 기본!”



스포츠마케터

이승용 팀장(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e스포츠팀에서 오버워치(다중 사용자 1인칭 슈팅 게임)를 담당하는 이승용입니다. 저는 전통 스포츠 산업에서 약 8년 정도 근무하다가 현재는 e스포츠 세계로 건너와 약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 스포츠에서 일할 때는 IMG와 코오롱에서 스포츠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코오롱 한국오픈’, ‘2015 프레지던츠컵’ 등의 대회 진행 외에도 최경주 선수와 정현 선수 등의 매니지먼트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스폰서십 세일즈, 올림픽 마케팅 컨설팅도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블리자드 e스포츠팀에서는 오버워치 게임의 e스포츠 대회를 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리그 같은 글로벌 리그는 한국 지역 담당자 역할을 그 외 국내 리그는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동기와 준비 과정은?

어릴 시절부터 스포츠 세계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에는 농구, 야구, 축구 등을 보고 플레이하면서 자랐고 게임 역시 좋아해서 대학교 때는 PC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도 스포츠 산업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진로 상담해 줄 멘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고민을 하던 중 대학과 ROTC 장교로 군생활을 마치고 세계 최고 선진 스포츠 시장인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에서 인턴십 등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지만 미국 생활이 익숙해지던 무렵 첫사랑 스포츠를 버릴 수가 없어 스포츠경영 전공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골프에 포커싱을 맞춰 매학기 무급인턴을 하며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졸업과 함께 IMG코리아에 취업했습니다. 그동안의 커리어 전략이 통한 것이죠.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국제골프대회 담당자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골프, 골프, 러닝,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스포츠마케팅 컨설팅, 스폰서십 세일즈, 선수관리, 이벤트 매니지먼트 등을 경험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e스포츠가 제 레이더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관점에서 제 경력의 다음 스텝을 e스포츠로 생각한 것은 스포츠 산업에 근무한 지 약 5년 정도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해서 e스포츠의 문을 두드렸고 결국 제게는 꿈의 직장인 블리자드에서 e스포츠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과정이 쉽지 않았고 좌절도 많았지만 산업을 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그 과정에서 쌓인 내공이 현재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준 핵심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과 직업의 장단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회사에서 e스포츠를 담당하는 것만큼 행복한 근무여건은 없을 것입니다. 블리자드는 최고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자랑합니다. 근무 중 언제든지 게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회사 내 라운지와 무료 커피숍, 안마기까지 준비된 사무실을 보유했다는 것은 작은 보너스 정도이고 회사에는 늘 컵라면과 콜라, 스낵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 환경이 좋다는 것만이 장점은 아닙니다. 블리자드는 우선 게임 자체의 완성도와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게임이 많다는 것이 좋은데 특히 블리자드에 대한 어린 친구들의 관심과 사랑이 넘친다는 것도 제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

다. 대부분의 e스포츠는 글로벌 단위로 계획하기 때문에 온라인만 연결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영어가 기본 스펙입니다. 본사가 미국에 있고 전 세계에 지사가 있기 때문에 밤과 낮 명확한 구분 없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기에는 글로벌하게 업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선 산업을 보는 눈을 키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터의 자질은 단순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열혈 팬과는 다릅니다. 열정은 기본이고 거기에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능력이란 단순한 이력서 상의 스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포츠산업은 현장이 최우선입니다. 스포츠마케터의 비즈니스 업무능력은 현장 경험, 컴퓨터 활용, 언어능력 등이 중요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스포츠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킹도 상당히 중요한 준비과정 중 하나입니다. 예비 스포츠마케터를 위한 강의, 세미나 등이 종종 있습니다. 부지런히 쫓아가 자신의 멘토를 만나보세요. 그곳에서 모든 인연이 시작되고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취업관련 사이트는 ‘스포츠잡알리오’이

고 추천 학회는 'SMR', '스마터', '드레포스'등입니다. 저도 이런 사이트나 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감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책은 단순히 지식의 집약본이 아니라, 삶의 등불이 되어 자신의 길을 보여줍니다. 전문서적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불릴 수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 서적이 없어 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결국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직접 '스포츠마케팅 쏘개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책을 읽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 읽기를 위한 책 읽기가 아닌 자신에게 정말 제대로 된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라고 생각하고 책을 접하길 권합니다. 저는 독서를 제 인생의 가장 큰 무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1년에 50~100권 독서를 하며 현재 블리자드 내에서도 독서동호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선수를 위하여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운동으로 커리어를 마감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회로 나와야 할 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같은 산업에 있다는 이유로 저도 많은 사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은퇴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뒤쳐진다고만 남은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나만의 특별한 분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만 20년 이상 해온 선수 출신에게 갑자기 영어공인시험 준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그 종목이나 산업 분야에서 자신이 봐왔던 기회(창업, 네트워크)를 잘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4차산업 혁명과 더불어 요즘처럼 개인이 스스로 뭔가를 창작하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1인 방송, 유튜버,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단순한 취업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젊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선수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스포츠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 역시 국가의 지원으로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세요.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선수 출신이 더 길게 남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Part5

공공/행정 분야

- 〉 01 공무원
- 〉 02 스포츠 외교 전문가
- 〉 03 경찰공무원
- 〉 04 소방공무원
- 〉 05 학사장교
- 〉 06 경호원
- 〉 07 체육 행정 전문가
- 〉〉 멘토 인터뷰 | 김창범 부장(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공무원

모두가 선망하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이란?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크게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직무에 따라 9급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는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뉜다. 이들 공무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곳에서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체육 관련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무원이 되는 길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전공을 살려 체육 관련 부처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체육 관련 부처라고 해서 특별히 체육 전공자만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무원은 9개의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개 9급이나 7급부터 시작하거나 국가고시에 도전해 5급인 중간관리자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 기간 연수를 받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지원해

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요즘에는 공무원 임용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인정받아 공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험이 아닌 방법으로 행정 공무원이 되려면 전문성과 관련해 입증될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 어쩌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투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타당한 성과와 경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전해 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언론, 국정홍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일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체육국의 기간제 근로자로 지원하여 채용되는 방법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내 알림 마당의 인사채용 부분에 관련 채용공고가 수시로 게시되므로 관심이 있다면 자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과 관련된 소속부서로는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과,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있다. 각 부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다면 청년인턴제를 활용해서 근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무원의 미래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연봉제는 고 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 연봉제로 나뉜다. 우선 9급 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 연봉은 2,000만 원 초반 대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공무원의 호봉과 연봉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 수록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근무환경은 부처에 따라 다르지만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고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올림픽 등 큰 경기가 시작되기 전 혹은 시작되는 동안에는 근무가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공무원은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체육계에서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하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일정 수의 고용은 이뤄질 것이다.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시대에도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직업 더불어 국가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인 만큼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 한 개인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앞날 그리고 체육계의 앞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망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 덕분에 오랜 기간 최고의 인기 직종 자리를 지켜왔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서 시험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스포츠를 특기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지켜보는 이들도 흐뭇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되게 마련이다.

참고정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스포츠 외교 전문가

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외교관

스포츠 외교 전문가란?

국제관계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외교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 외교는 한 나라의 외교정책과 연계한 민간외교의 한 분야로서 각종 국제 스포츠 경기와 행사를 통해 상대국과 친선 및 교류를 도모한다. 더불어 국위 선양의 역할도 담당한다.

‘체육인재아카데미’에서는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 스포츠 인재 육성의 미래비전심포지엄을 열어 선수 경력자,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배양 및 경력개발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차세대 스포츠 외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국내·외 체육기구 또는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하고 있다.

활동 영역과 비전

유능한 스포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선 우선 국제 스포츠계의 동향과 흐

를 잘 파악해야 한다. 국제 스포츠 단체의 성격과 기능, 역할 등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2~3개의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를 불편 없이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서 상호 간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국제 스포츠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외교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운동선수 출신들은 선수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감대(같은 선수 출신이며, 고된 훈련의 경험이라는 점)를 형성할 수 있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비선수 출신 학생들이라 해도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지식을 쌓고 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얼마든지 유능한 외교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제행사장에서 통역사가 대신하여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와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통역을 거칠 경우 본연의 요지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도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소통’은 스포츠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분야는 각 종목별로 세계적인 연합단체가 있고 그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굳이 외교관의 자격이 아니더라도 해당 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국내 체육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정식 국가 외교 채널과는 별도로 단체와 협회에 소속되어 국가의 이익과 국내 체육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스포츠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와 민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중요한 소통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스포츠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상대 국가와 친목을 다지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런 스포츠의 영향력을 일컬어 스포츠 외교라고 하는데 그 행사의 중심에선 늘 스포츠 외교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의 역할은 글로벌 스포츠 대회에서도 빛을 발한다. 스포츠 경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혹은 소속 협회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분야에 관심 있다면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스포츠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체육인재아카데미 국제스포츠인재양성(외국어교육) 과정을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참고정보



체육인재아카데미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외국어교육) 과정

경찰공무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파수꾼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최근 안정적인 직업으로 공무원이 인기를 모으면서 경찰공무원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업무 강도는 상당히 강한 편이다. 경찰서, 파출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현장으로도 출동해야 한다. 또한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 긴장 속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러기에 사명감 외에도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국가에서 채용하는 경찰공무원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 3)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채용 방법과 활동의 특징

경찰공무원은 공개채용을 기본으로 한다.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간부후보와 순경공채로 채용 방식이 구분된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필수 과목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순경 공채를 기준으로 할 때 한 국사와 영어 2과목은 필수과목이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필기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곧장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체력 조건이 있다.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나 문신 여부 등 다양한 조건과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일반 경찰공무원과 하는 일이 조금 다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 기관으로서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와 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해양교통질서 확립,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방제업무를 수행한다.

이상의 임무에서 짐작할 수 있듯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도 어려운 근무 환경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건실한 체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공채에는 간부후보와 순경직이 있는데, 공채순경의 경우는 일반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선택 과목 중 해양경찰학개론이 추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열차이용을 주요 임무로 삼아 철도지역 및 열차 내의 범죄예방과 단속, 테러 예방활동, 철도사고 수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최근 고속철도가 늘어나면서 철도 관련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은 다른 경찰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적고 업무 환경도 좋은 편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공무원은 7급과 9급으로 나뉘 공채를 진행한다. 신체 조건은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 기준과 동일하다. 7급과 9급 각각 필기시험, 체력 검사 그리고 면접 순으로 진행한다. 상세한 안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체력과 정신력, 사명감 없이는 도전하기 어려운 직종이다.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생명을 담보로 범죄와 싸우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철한 준법정신과 건강한 신체는 기본이다.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기에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도전하기에 앞서 각오를 다질 필요 필요가 있다. 만약 마음의 결정이 섰다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참고정보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철도특별사법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슈퍼맨

소방공무원이란?

어느 나라나 소방공무원과 군인, 경찰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직업이기도 하다. 국내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양쪽 모두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방공무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화재를 예방, 경계하며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 현장에 출동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고 구급하는 활동을 한다. 이렇듯 그들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항상 서 있다.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 채용한다. 소방위, 지방소방위 등의 선발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임용 및 응시 정보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사와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중앙정부 소방공무원의 시험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관하고 지방정부 소방공무원의 시험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다. 국가중앙정부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 지방정부 소방공무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다.

시험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필기와 면접 외에 체력시험이 추가된다. 먼저 필기시험의 경우 소방사는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택해서 시험에 응시한다.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다.

우선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총 4개의 필수과목은 공통이다. 반면 선택과목의 경우 문과 계열은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이과 계열은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역시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응시에서는 실제로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며 각 과목당 원점수 만점의 40%를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이미 언급했듯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시험과 달리 필기와 면접 외에 체력시험이 추가된다. 측정하는 종목은 총 6가지로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다. 이것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실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마지막 체력기준을 통과해야 정식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이 가능하다.

대우 및 비전

소방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경찰직과 같은 연봉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근거해 연봉이 책정 지급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업무 강도와 비교해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목숨을 걸고 재난과 사고 현장을 누비며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소방공무원이 장래 직업에서 손꼽는 순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이다. 그만큼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은 없다. 다행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안정된 생활과 노후 보장을 위해 일관되게 요구되어 왔으며 여론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므로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은 다른 공무원직에 비해 경쟁률이 높지 않다. 그만큼 위험요소가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진압 장비의 현대화, 과학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소방공무원도 언젠가는 안전한 직종으로 분류되리라 믿는다. 타인의 안녕을 지킨다는 자긍심이나 공무원의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숭고한 직종으로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직업이다. 위험이 도사린 재난 현장의 제일선에서 있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소방관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만큼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할 자신이 있다면 꼭 도전해 보길 바란다.

참고정보



Scan me

중앙소방학교



Scan me

중앙119구조본부

학사장교

장교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

학사장교란?

학사장교는 전국 각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한 후 엄격한 군사훈련을 거쳐 장교로 임관한다. 각 병과학교에서 16주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소대장 및 참모장교로서 필요한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군 복무를 한다.

학사장교 지원 요령

학사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육군학사장교〉

육군학사장교의 경우 임관일 기준 20~27세 이하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학사 이상 학위(복수전공자/학점미달로 당해 연도 미졸업자 선발 불가)를 소지해야 한다. 육군의 경우 연 1회(8월~이듬해 1월)에 접수를 받아서 1차로 필기평가(국사 과목 포함)와 서류전형 그리고 2차로 면접평

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학사장교로 선발되면 육군 3사관학교에서 사관후보생 신분으로 17주 간의 양성교육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한다.

〈공군학사장교〉

공군 학사장교 선발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뉘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기본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일반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전형의 1차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군에서 자체 개발한 간부선발도구를 통해 지적능력평가,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등을 행한다. 영어는 2년 이내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는 한 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던지 혹은 필기시험에 응시해야한다. 단, 한국사의 경우 기존 성적 제출과 시험 모두 선택이 가능하며 시험 후 가장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면 된다. 2차 전형은 신체검사와 면접으로 이뤄진다.

신체조건은 공군 자체의 신체검사 규정 합격 등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시력은 교정시력 우안 0.7 이상, 좌안 0.5 이상이어야 하고 왼손잡이는 반대로 적용 받는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 중 시력 교정수술 적용은 가능하나 3개월 이후 입대가 가능하다. 한편 색각이상자(색약 혹은 색맹)는 지원이 불가하다. 기타 항목은 과목별로 신체등급 1~3급인 자여야 하며 단, 정신과는 2급 이상이 합격 가이드라인이다. 여성은 산부인과 검진이 추가 실시된다. 면접은 장교 3명의 면접관으로 구성되며 국가관, 리더십, 품성, 핵심가치 등의 요건을 평가한다.

3차 전형은 입영 후 정밀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성검사로 구분해서 실

시한다. 정밀 신체검사는 혈액·소변 검사, X-Ray 촬영 등 13개 부위(여자: 부인과 검사 추가)로 판별하며 체력검정 종목별 합격 기준은 별도로 공개된다. 인성검사는 군 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까지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된다.

〈해군학사장교〉

해군학사장교의 경우는 병과별 지원 자격 전공을 고려 1, 2지망으로 2개 병과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영어와 한자능력평가 점수에 따른 가산점이 있다. 전형방법은 육군이나 공군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각각의 모병 사이트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학사장교의 역량과 비전

학사장교는 장교로 해당 월급을 받으며 군복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7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위관급 장교(준위, 소위, 중위, 대위)의 평균연봉은 3,722만원으로 일반 병사와 비교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미혼인 경우 독신자 숙소가 제공되고 기혼인 경우에는 아파트나 관사가 제공된다. 또한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군인공제회를 통한 각종 금융과 재테크, 군의료시설 이용 등이 가능해서 편의를 보장받는다.

장기복무 결정을 하면 최소 10~15년 근무가 가능해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 군인으로서의 근무환경은 병과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투병과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훈련의 양이 많은 편이고 특수병과의 경우 전투훈련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둔다.

육군에는 현재 약 10,000여 명의 학사장교들이 현역으로 국방 현장에
서 복무하고 있으며 육군 중대장·소대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학사장교 출신은 각 군의 핵심전력으로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한다.

의무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한 장교들은 전문분야 지식, 장교로서
의 리더십과 군인정신을 내세워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다. 인적네트워
크가 풍부할 뿐 아니라 간부 대상 취업박람회 등 전역자를 위한 군의 지
원과 혜택을 발판삼아 취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장교는 군인으로서의 위엄과 리더십을 요구받는 직업이다. 징병제인 대한민국
에서는 아직 군인이라는 직업이 각광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직업군인에 대
한 처우는 꽤나 안정되어 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대라는 조
직문화에 적응해 나갈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은 필수다.

참고정보



대한민국 육군장교 모집 안내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안내

경호원

주요인물을 보호하는 전문직

경호원이란?

경호원은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재산(물적, 시설, 정보 등)을 보호하고,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개인의 생명이나 사생활 등을 보호하는 직업이다. 경호 대상의 성격, 신상명세와 경호내용을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업무 범위의 자체는 상당히 폭넓다.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장소에서는 일정 범위를 지정해서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돌발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긴장 속에서 장시간을 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요인경호를 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경호원의 이미지는 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유명인 주위에 둘러선 선글라스의 사내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호원들은 요인경호의 원칙상 주변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경호원들을 몰라보는 경우도 흔하다. 경호 업무란 그만큼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밀하

고 치밀해야 한다.

국내에서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은 경찰, 대통령 경호처, 헌병과 군경호대 등이다. 그 외에 사설경호업체들도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기본이며 경호무술이나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의 무도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

또한 경호 전문지식과 관련 기술을 숙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체적 요건뿐만 아니라 학력 수준도 검토한다. 경호와 관련된 학과(경호학과, 경찰학과, 군사학과, 사회체육학과 등)에서 전공 과정을 밟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경호 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경호전문교육기관(국제경호아카데미 등)이나 협회(국제경호협회)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다. 기동력이 필요하므로 운전면허증은 필수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해 두면 도움이 된다. 경호원은 민간경호업체에서 일하거나 보안경비업체, 무인경비업체, 대기업의 경호전문요원 등으로 일할 수 있고 특정한 신체 조건과 필기시험,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대통령 경호실로도 진출할 수 있다.

활동 영역과 비전

경호원들의 보수는 편차가 큰 편이다. 연봉은 소속된 조직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별 평균연봉에 따르면 경호원의 평균연봉은 약 3,018만 원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직업의 미래 비전도 88%로 다른 직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론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 활약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가에 따라 취업의 경로나 연봉 수준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가령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면 외국의 주요 요인을 근접 경호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수는 특별히 높아질 수 있다. 신체를 다지는 훈련과 병행하여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분이다.

경호는 현장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언제 위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항상 긴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업무에 속한다. 경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수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일정에 맞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 편이다. 경호시간에 따라 2교대, 3교대의 교대근무를 하기도 해서 제때 식사를 못하거나 잠을 못 자는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한다.

사회면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 소식을 보면 정말이지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사회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사회 전반적으로 경호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경호협회나 경호 전문교육훈련기관과 더불어 전국 140여 개의 대학에 설치된 경호 관련 학과에서 꾸준히 예비 경호인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은 경호 관련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계발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한편 경호원은 특별한 정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업적 수명은 긴 편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경호원의 수요는 늘어난다. 개인과 개인 간 갈등은 물론이고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개입에는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사적 경호원의 활동 영역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요인의 개인 경호부터 국제 규모의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경호 업무에는 일정 수준의 격투 능력도 필요하므로 무술 유단자가 유리하다. 무술 자격증과 지속적인 체력단련은 필수다.

참고 정보



대통령경호처

체육 행정 전문가

체육을 위한 제도와 운영 매니저

체육 행정 전문가란?

국가 단위에서 볼 때 체육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는다. 국민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및 활동을 담당하는 체육 행정이 주목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행정이 뒷받침될 때 체육 분야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최근에는 체육 행정이 정책으로까지 연결되며 국민 체육의 근간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체육 관련 행정과 정책을 돌보고 연구하며 구현하는 일을 하는 이가 바로 체육 행정 전문가다. 얼핏 보면 이들은 그저 행정 분야에 특화된 직종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스포츠 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전문가 영역의 직업군에 가까운 셈이다.

국내를 예로 들자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도 여러 개의 체육 관련 단체가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과 각종 스포츠 참여 기업 혹은 단체, 선수들이 모여 조직한 민간 체육 관련 단체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많은 체육 관련 조직이 존재한다. 체육 행정 전문가는 그런 체육 단체들에 소속되어 관련 행정과 정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아주 순수하게 관련 스포츠의 종사자나 선수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바람직한 변화는 일정한 원칙과 체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체육 조직의 변화나 특정 활동과 관련해서 국민 전체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이들이 바로 체육 행정 전문가들인데 이 직종은 앞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 영역과 비전

일단 체육 행정·정책과 관련한 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역할과 활동 영역이 저마다 다르다. 국내의 대표적인 체육 행정 관련 기관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이 두 기관이 대한민국의 체육 행정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셈이다. 그 외에도 종목별로 다양한 체육 단체가 있는데 종목의 인지도나 인기도에 따라 단체의 규모에도 큰 차이가 난다.

팀과 선수의 폭이 넓고 두터운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규모 역시 큰 것이 일반적이다. 선수층이 빈약하고 종목의 역사도 짧다면 단체의 역량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거나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구인 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관련 카페나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구인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체육 관련 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일반 행정 업무와는 달리 외근이 많다. 체육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비교적 활동적인 업무가 많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체육 행정 전문가에겐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와 대우가 주어진다. 장기적으로 일을 할 경우 꽤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군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체육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체육 행정 전문가는 체육에 특화된 영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특수직으로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특히 체육 관련단체에선 비교적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받는 직종에 속한다. 단점이라면 비좁은 취업의 문이다. 경쟁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참고정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소통하라!”



체육 행정 전문가

김창범 부장(안양한라아이스하키 선수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사무국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창범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무국은 현재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스포츠 구단이라면 한 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혹 프런트라고도 불립니다.

사무국(혹은 프런트)에서는 구단의 1년 동안의 운영과 살림살이를 도맡아 합니다. 주로 대회 준비, 선수 훈련 등을 관장하는 일입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구성 인력이 많거나 적을 수도 있고 주요 업무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 등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략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업무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동기와 준비 과정은?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을 창단하면서 선수로 입단해 운동하다가 은퇴 후 코치로 선수들을 지도하였습니다. 당시 감독님이 외국인이었는데 그 시즌에 성적이 좋지 않아 시즌 후 감독님과 함께 재계약에 실패했고 팀과 헤어지는 변환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가 2008년이었고 그 후로 아이스하키단을 떠나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영업 관리와 구매 등을 경험하고 성과를 이루면서 나름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아이스하키단으로의 업무 전환 기회가 생겼고 나는 망설임 없이 아이스하키단을 택했습니다. 물론 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사무국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코칭 스텝과는 서로의 자리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로 팀을 더 탄탄하게 만들며 현장 스텝과도 팀의 발전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과 직업의 장단점은?

한 경기, 한 경기의 승패를 위해 선수, 감독, 코치, 현장 스텝 그리고 사무국의 동료들이 기쁘고 재미있게 도전하도록 돕는 것이 내 역할이며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최후의 결과에 함께 울고, 웃으며 모두

가 공유하는 그 시간들이 뿌듯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경기가 주말에 있다 보니 가족들과 즐거운 휴일을 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포츠 구단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열정을 가지고 좋아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느 스포츠이건 외국인 선수들과의 교류, 입단 등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를 제대로 익혀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된다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해당 자리에서 좀 더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중 프로구단 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신 학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프로구단 사무국에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이 특정학과 출신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문과 출신도 있고 경영학과 출신도 있고, 체육과 출신도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홍보라는 것이 다른 분야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입사를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입사 자체가 워낙 어렵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명 정도 뽑으면

많이 뽑는 것입니다. 보통 구단 프런트라고 하는 사무국은 10명 내외의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이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을 해도 보통 경리, 통역 등을 몇 년에 한번 어찌다 선발하지만 공개 채용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구단에서 사람을 뽑는지 알기도 어렵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만큼 어느 종목에서든지 그 종목의 전문가가 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입니다. 구단 프런트 혹은 사무국에서의 스포츠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면 기회가 왔을 때 분명하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와 준비가 없다면 누구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Part6

스포츠 미디어 분야

- > 01 스포츠 프로듀서
- > 02 스포츠 해설자
- > 03 스포츠 애널리스트
- > 04 스포츠 영상 전문가
- > 05 스포츠 전문기자
- >>> 멘토 인터뷰 | 정재용 스포츠 전문기자(KBS보도본부)

스포츠 프로듀서

스포츠 중계방송을 지휘하는 사람

스포츠 프로듀서란?

스포츠 프로듀서는 방송국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연출가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크게 중계 프로그램과 제작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중계 프로그램은 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중계방송을 의미하고 제작 프로그램은 중계 하이라이트나 아이টে임을 기획·편집하여 녹화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스포츠 프로듀서는 경기장 내 카메라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중계차에서 모든 모니터 화면을 확인한다. 아나운서와 해설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대화를 조율하며 상황에 맞게 화면을 스위칭(화면 교차)한다. 이렇게 연출자는 화면과 오디오,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만들어내는 긴박감을 하나로 엮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이외에도 예고 멘트 작성, 성우 섭외, 하이라이트 장면 선정, 그래픽 등의 예고편 작업을 진행한다. 탁월한 순발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이다.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 아이টে임을 결정하는 것부터

터 시작해서 화제의 스포츠 인물을 인터뷰하고 장면을 분할하는 등 최종 편집에 이르기까지 프로듀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장악해야 한다.

스포츠 프로듀서 역시 공채 방식으로 입사가 이루어진다. 메이저 방송사는 일반적으로 연 1회 공개 채용을 진행하며 스포츠 프로듀서의 경우 별도의 직군으로 채용한다.

최근에는 케이블 스포츠 전문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언론사 시험 없이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

활동 영역과 비전

스포츠 프로듀서는 극한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 경기의 경우 주중에는 주로 밤에 펼쳐지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경기가 진행되는 탓에 365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더구나 월드컵 같은 장기간의 국제 스포츠 축제가 시작되면 시차와 싸워가며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중계를 해야 한다.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업무 스트레스를 피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중계를 위해 전국 곳곳의 경기장을 옮겨 다니는가 하면 좁은 편집실에 갇혀 밤새 편집에 골치를 앓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불규칙한 생활과 시간에 대한 강박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만큼 체력관리는 필수 항목이다.

미디어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스포츠 전문 채널이 생겨났다. 예전에는 선택적으로 방영되었던 중계나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종목에 상관 없이 하루 종일 방영되고 있다. 그만큼 스포츠 프로듀서가 활동할 수 있

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스포츠 프로듀서는 앞으로 제작 자체보다 중계권을 사고파는 마케터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 소통 능력과 비즈니스 협상력 등을 키운다면 활약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미디어를 움직이는 지휘자가 바로 방송 프로듀서다. 예능이나 드라마와 달리 스포츠 방송은 카메라 활용 테크닉과 현장감 전달이 중요하다. 또한 스포츠 프로듀서라면 해설자에 버금가는 스포츠 지식과 탁월한 순발력을 갖춰야 한다. 방송국 채용 정보를 열심히 알아봐야 하며 경쟁이 치열하니 충분히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 해설자

전문 지식으로 스포츠 중계를 더욱 재미있게

스포츠 해설자란?

스포츠 해설자는 전문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분석하고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는 직업이다. 예전에는 스포츠 중계에서 아나운서를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해박한 전문 지식으로 중계의 재미와 질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목소리 출연, 라디오 해설, TV 해설, 인터넷 방송 등 활동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직종이다.

해설자는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도 그 전달 과정이 경기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 중계에서 아나운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중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해설자는 그 큰 그림의 빈 공간을 채우면서 색을 입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수 경험 등 해당 종목의 전문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더 쉽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최근 스포츠 빅이벤트에서는 해당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의 해설이 인기

를 얻고 있다. 그들은 비선수 출신 전문가들이 갖지 못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해설자가 되려면

유능한 해설자는 중계 포인트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스포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애정이 요구된다. 미디어와 관련된 직종임에도 학력이나 나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시청자들도 스포츠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다양해서 관련 지식 등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런 시청자들을 상대하자면 해설자 역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스포츠 해설자 역시 방송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방송에 적합한 표현 방식을 추가로 익혀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방송 아카데미 등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포츠 해설자의 채용 기회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해설자를 하나의 독립된 직군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개채용의 길은 열려있지 않다. 방송국에서 인맥을 활용해 적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방송국마다 자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 해설을 맡기는 것이다. 해당 종목의 유명 은퇴선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최근 공개채용 형태로 스포츠 해설자를 모집한 사례도 있다.

케이블 스포츠 전문채널이 생겨나면서 UCC 인터뷰 및 합숙면접을 통해 전문 스포츠 해설자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채용하는 이벤트가 열렸던

것이다. 물론 이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 하지만 스포츠 해설에 뜻이 있다면 사소한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노력과 전략도 필수다. 아카데미에 등록하거나 해설자들의 해설에 귀기울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 내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이고 언제든 기회는 찾아오는 법이다. 인터넷 방송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활동 영역과 비전

케이블 채널에서 한 종목의 스포츠 해설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영표, 안정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스타 해설자는 파격적인 연봉으로 계약하기도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대부분은 비정규직 프리랜서이며 그나마도 능력에 따라 급여의 차가 크다. 스포츠판 사이에서 나름대로 평가받는 해설자들의 경우 일반 기업체 직원 연봉 수준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파뿐 아니라 케이블, IPTV, DMB, 인터넷, 스마트폰 등 중계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해설자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국들도 최근 국내외 축구중계를 늘리는 추세인 만큼 해설자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해설자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해설 활동만으로는 장기적인 커리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스포츠 전문기자, 교수, 행정가, 마케터 등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병행하며 해설자의 꿈을 키워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도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쳐 왔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지난 월드컵 방송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의 해설이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스포츠 해설이다. 일반 캐스터와 달리 해설자에게는 해당 종목과 선수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된다. 체험에서 우러난 경기 지식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해설자라는 직업은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직업이 아니다. 해당 분야에서 나름대로 업적을 이뤄낸 선수 출신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거쳐 해설자로 데뷔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스포츠 해설자가 되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뚜렷한 경력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 애널리스트

스포츠를 냉철한 시선으로 논평하는 사람

스포츠 애널리스트란?

스포츠 중계 도중 선수의 위치나 움직임을 분석한 내용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는 게 많을수록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시청자를 위해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경기를 분석해 주는 사람을 스포츠 애널리스트(Sports Analyst, 약자로 SA)라고 한다.

스포츠 애널리스트는 각종 스포츠 경기 자료나 선수 개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기록, 분석, 평가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수치(데이터)와 영상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심리적 요인까지 파악하는 등 세밀한 해석을 통해 전술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를 선수 스카우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연봉협상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스포츠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체육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거나 언론, 영상, 컴퓨터, 통계 등의 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스포츠

애널리스트로서의 전문 지식이나 실전에서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스포츠 강국에서는 이미 스포츠 애널리스트란 직업이 전문 직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스포츠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전문적인 양성과정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최근 스포츠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인재아카데미에서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과정을 통해 교육을 시작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정형 혹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 시키는 전문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런 교육도 스포츠 애널리스트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과정 교육 대상은 선수경력자, 전현직 지도자, 체육행정가 등 체육분야 종사자 또는 체육전 공자로서 스포츠 정보분석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이론과 분석활동 그리고 현장 실습까지 이뤄지므로 실전에 활용할 많은 지식을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관심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활동 영역과 비전

스포츠 애널리스트는 경기가 펼쳐지는 장소를 쫓아다녀야 하기에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로의 출장도 잦은 편이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 애널리스트라면 축구경기가 있는 주말마다 전국 축구경기장으로 출장을 다녀야 한다. 주말이나 밤에 경기 일정이 잡힌 경우도 많고 해외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밤낮을 바꾸어 생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야간작업, 주말근무, 잦은 출장 등 극한의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것이다. 연봉은 해당 종목과 프로팀 구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농구와 야구 분야의 임금수준이 다른 종목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신기록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보면 선수들의 운동 스타일과 각종 기록, 전략 및 전술 등을 분석해 새로운 환경과 기술을 제공하는 스포츠 과학의 힘을 실감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과학적인 분석이 중요해지고 그 효과가 표면에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된 스포츠 애널리스트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스포츠 전문기자, 스포츠토트에 대한 정보 분석, 스포츠 통계분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포츠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 프로구단의 수나 경기 수가 적다 보니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꽤나 한정되어 있다. 또한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애널리스트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국내 스포츠계가 굵직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며 내실을 쌓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널리스트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스포츠 애널리스트는 고도의 분석 능력과 비평으로 스포츠 경기의 이해를 돕는다. 기자와 캐스터가 팩트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해설자와 애널리스트는 좀 더 전문화된 분석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또한 영상을 보며 실시간으로 비평을 하는 해설자와 달리 애널리스트는 지면과 온라인에 비평을 싣는다. 아직은 스포츠 비평을 전업으로 삼기가 쉽지 않지만 애널리스트로 명성을 쌓은 후 관련 아카데미에서 일하거나 책을 집필해 부가수입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경기를 해석하는 감각과 작문 실력이 필요하다. 이 역시 블로그 활동을 권한다.

참고정보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과정

스포츠 영상 전문가

스포츠 영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전문가

스포츠 영상 전문가란?

스포츠 영상 전문가란 스포츠 관련 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장면들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 그렇게 찾아낸 영상들은 다시 편집을 거쳐 해당 영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제공된다. 즉, 한편의 영상에서 수많은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하는 전문직이 바로 스포츠 영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스포츠와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과거 TV를 통해서만 유통되던 스포츠 관련 영상이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컴퓨터 작업 도중 포털에 들어가 관심 있는 경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오른 1분 가량의 골 장면을 즐기는 패턴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스포츠 영상 전문가들은 가치 있고 흥미로운 스포츠 영상을 발굴하고 수준 높은 편집을 거쳐 한편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일상 속의 휴식에 즐거움을 더한다. 알게 모르게 그들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스포츠 영상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방송국의 영상 아카이빙(디지털 파일로 구축되어 있는 방송국의 영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익숙해야 하고 모든 영상에 태그를 입력해 검색에 유리하도록 의미를 부여한 뒤 상황에 맞는 영상을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해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상을 편집을 통해 활용 가능한 영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현대가 요구하는 스포츠 영상 전문가의 역할이다.

과거의 영상에 색다른 해석을 가하거나 현재 벌어진 스포츠 이슈와 비교될 만한 영상을 순식간에 찾아내 제공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탁월한 감각과 집중력, 일에 대한 열정은 필수다.

활동 영역과 비전

현재로서는 스포츠 영상 전문가의 영역이 영상 분석관이나 스포츠 애널리스트, 비디오 분석관의 영역과 겹쳐 있는 느낌이다. 해당 직종이 아직 하나의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스포츠 영상 전문가는 타 직종과 차별화된다. 다행히 관련 분야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미 말했듯 스포츠 영상 전문가라는 직업이 아직은 업계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 하지만 방송국이나 신종 미디어, 영상 프로덕션과 포털 등에 영상 전문 담당자의 역할이 생겨나고 있다.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쪽 분야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영상 분석과 애널리스트 영역뿐 아니라 영상편집, 영상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까지 폭넓게 배울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자기소개서에 스토리텔링으로 녹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새롭게 생겨나거나 태동기의 직업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만큼 입성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스포츠 관련 영상 전문가는 아직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업종이지만 미래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영상과 컴퓨터 관련 기술, 데이터 분석과 처리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포츠 전반에 대한 지식과 컴퓨터 관련 기술을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그만큼 취업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스포츠 전문기자

스포츠와 미디어 그리고 여론을 이끄는 언론인

스포츠 전문기자란?

스포츠 전문기자는 미디어에서 스포츠 분야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사를 의미한다.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쓰고 방송사에서는 보도국에서 스포츠 취재 활동 결과를 방송한다.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 스포츠 캐스터라고 해서 스포츠 중계를 전담하는 전문직도 스포츠 전문기자로 구분할 수도 있을 듯하다.

대체로 스포츠와 관련한 미디어는 인쇄 매체인 신문사와 잡지사, 방송 매체인 방송사로 구분할 수 있다. 신문사는 중앙지와 지방지, 스포츠 전문지가 있고, 신문과 잡지의 발행주기에 따른 구분으로 주간, 월간, 부정기 간행물인 무크지 등이 있다. 방송 매체는 지상파(KBS,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IPTV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상파는 보도국에서 스포츠를 다루는 코너를 담당하는 전문기자가 있고 스포츠 중계를 담당하는 캐스터가 있다. 종편에도 지상파와 비슷한 종합채널이 있고 IPTV에는 스포츠만을 다루는 스포츠 전문 채널도 있다.

스포츠 전문기자는 업무 영역에 따라 취재기자, 편집기자, 사진기자, 카메라 기자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해당 기자는 직종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직종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 전문기자가 되는 길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공개채용으로 기사를 선발한다. 물론 언론사에 따라 스포츠 전문기자의 선발 방식이 다르다. 어떤 곳은 기자로 선발해 다양한 부서 근무를 하는 중 스포츠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 스포츠 전문기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방송사도 있다. 언론사마다 채용 방식이 다르므로 원하는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인 시험 과목은 영어와 일반상식, 국어 등이 있으므로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활동 영역과 비전

기자는 단순한 뉴스 전달에서부터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비전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스포츠 업계는 작은 국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펼쳐지면 매일 매시간 어마어마한 뉴스가 쏟아진다. 그런 뉴스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도 벅찬 일이지만 체육계의 현실과 염원과 숙제 등을 취재하면서 비판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특집 프로그램이나 기획기사의 준비도 필요하다.

인쇄 매체 기자의 경우에는 글쓰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맞춤법은 기본이며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능력 또한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실제로 기자가 되어 계속해서 글쓰기 능력을

단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기도 한다.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고 익숙하다면 기자로의 능력 발휘에 큰 도움이 된다.

방송 매체 기자는 정확한 말하기가 기본이다. 표준어 구사와 발성, 호흡 등 기본기를 갖춰야 하며 어떻게 해야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까 고민해야 한다. 글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전국에 총 19,700명이 있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남자가 72.9%이며 여자는 27.1%라고 한다. 월수입 평균은 337만 원으로 평균 연봉은 4,000만 원 이상이다(출처 : 2013~2014 Job Map, 통계청).

기자나 방송 캐스터와 달리 최근에는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 출신 리포터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스포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에 즉각 대처하는데 선수 출신은 경험을 토대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 직접 리포터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유명한 해설자도 있지만 리포터는 좀 더 현장 밀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골프는 갤러리처럼 선수를 따라가면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가 되었는데 역시 선수 출신의 리포터가 활약하고 있다. 향후 여러 스포츠에서 비슷한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도 크며 관심이 있다면 방송 아카데미 같은 곳을 통해 리포터 교육을 받고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언론사에 도전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언론사 시험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도 좋다. 언론사의 시험과목은 대부분 공통이기 때문에 영어, 상식과 논술을 위해 독서, 글쓰기를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이런 취업 준비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취업 이후에는 누구보다 보람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외부에서 보기에 기자는 선망의 직업이다. 경쟁 또한 치열하다. 일정한 지적 수준이 요구되며 안정된 목소리 톤과 몸에 밴 매너, 거부감 없는 외모에 더불어 글쓰기 능력까지 요구된다. 방송 기자는 카메라와 마이크와도 친해져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일정한 수준의 입사시험 통과는 필수이다. 경기장에서 활동하는 리포터라면 언어 능력과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기자가 어렵다면 스포츠 리포터로 경력을 쌓는 것도 좋다. 다만 스포츠 리포터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는 게 아쉬운 점이다.

참고 정보



한국언론진흥재단

“왕도는 없다, 책과 운동을 가까이”



스포츠 전문기자
정재용 스포츠 전문기자(KBS 보도본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KBS 보도본부에서 스포츠 전문기자로 일하는 정재용입니다. 경평(지금의 서울과 평양)축구에서 평양 대표로 출전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축구선수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체벌에 회의가 들었죠. 당시의 아픈 경험이 평생을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와 모순을 쫓고 개혁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과 결심이 있어 언론사 취업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로 KBS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부 기자 생활을 했지만 1년 만에 스포츠 전문기자가 되었고 뉴스와 함께 시사기획 쌈 「스포츠 변혁 프로젝트」(2007~2008), KBS 캠페인 「학교 체육 새로운 시작 시즌 1, 2」(2009~2010), KBS 캠페인 「스포츠는 권리다」(2011)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 스포츠계의 개혁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동기와 준비 과정

중학교 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고 고등학교부터는 보통 학생처럼 대학입시를 거쳐 진학했습니다. 학부에서는 체육을 전공하면서 중학교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반드시 스포츠 전문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부터 등록금을 직접 마련하며 공부했습니다. 구태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뜻과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을 이수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사의 길을 가던 그때 나는 혈혈단신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영어를 익히고 농구 전술서적을 번역하는 등 꿈을 위해 조금씩 전진해 나갔죠. 1년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용산 미군기지에서 국내 최초로 피지컬 트레이너 일을 하며 언론사 입사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언론사 기자라는 직업은 입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KBS에 입사하게 되었고 KBS 대전방송총국에서 사회부 기자로 첫 걸음을 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스포츠 전문기자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에 다음해 KBS 입사시험에 나온 스포츠

전문기자에 다시 도전했고 회사 내에서는 현직기자가 다시 입사시험을 보는 파장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죠.

결국 제 의지를 확인한 회사는 저를 곧바로 스포츠 전문기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스포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일을 해오고 있죠. 주로 저의 관심사는 학원 스포츠 시스템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의 체육 엘리트를 위한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100%를 담아내는 체육이 되어야 국가와 교육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유학을 다시 가게 됩니다. 조지아 대학에서 미디어 스포츠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미국의 학원 스포츠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하고 국내 학원 스포츠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천재라고 불리는 상위 1%의 선수에게 학교 체육의 혜택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 중에서 1%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해외 프로팀에 진출하는 등의 결실을 맺었죠. 하지만 그게 국민 체육과 스포츠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99%의 학생에게도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소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준비과정에 왕도는 없습니다. 영어 공부와

국어, 시사상식 등 언론사 시험에 필요한 공부는 필수이며 그와 더불어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다양하고 착실하게 축적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신문방송학을 복수전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내내 언론사와 미디어 진출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근무환경과 직업의 장단점은?

기자라는 직업은 최근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기자가 가지는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늘 분야의 문제와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입니다. 특히 스포츠는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에 의외로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파고드는 데 어려움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마주설 때 또 기존의 한국 체육계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마주설 때 그런 시스템의 문제로 피해를 입는 선수나 관계자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 뉴스는 정해진 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감시간에 맞춰 뉴스 꼭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국제 스포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장점이 아닌가 싶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그만큼의 어려움도 큼니다. 모든 직업이 가지는 장단점은 비슷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내 의지가 있으며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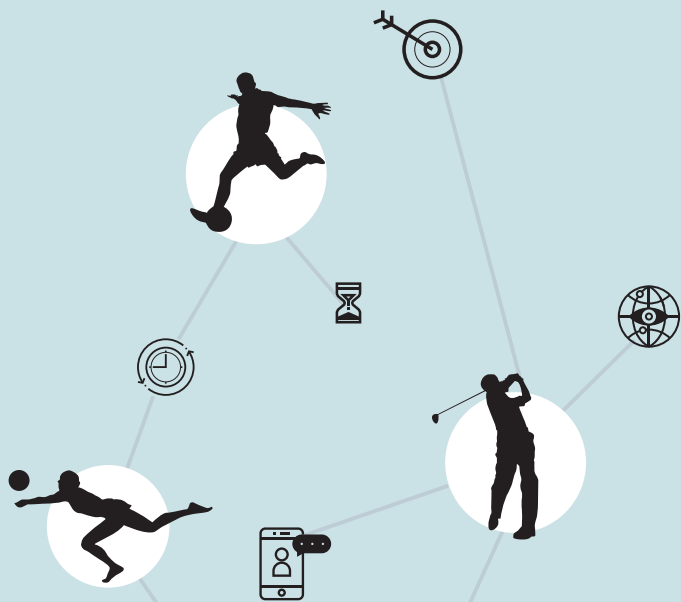
앞에서도 말했지만 언론사 취업에 특별한 왕도는 없습니다. 대학 내내 영어와 언론사 시험에 필요한 과목에 대해 꾸준히 갖고 닦는 길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더불어 스포츠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통해 스포츠를 몸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죠. 대부분 이 책을 보게 될 분들은 학생선수들이니 이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몸으로만 익히는 스포츠에서 자신의 전공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좀 더 다양한 스포츠로 확장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포츠를 몸으로 하는 것과 책으로 하는 것은 분명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다보면 스스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혹은 직업에 대한 의지와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을 모두 즐기시길 바랍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선수를 위하여

스포츠 전문기자에 도전하고 싶다면 가급적 운동만큼 공부에도 시간을 투자했으면 합니다. 언론사에 입사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왕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언론사 입사시험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가급적 신문방송학을 복수전공해서 미디어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생 시절 축구부에서의 체벌이 나를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이끄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운동을 해 오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한국 학원 스포츠 아니 대한민국 전체 스포츠 시스템의 새로운 변혁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앞장서 기여한다는 느낌으로 노력하면 좋을 듯합니다. 후배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Part7

스포츠 의학 분야

- > 01 재활승마치료사
- > 02 수중재활운동사
- > 03 스포츠 심리상담사
- > 04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 >>> 멘토 인터뷰 | 이제훈 실장(진천선수촌 물리치료센터)

재활승마치료사

승마를 통한 심리/육체 치료

재활승마치료사란?

재활승마치료사란 말을 매개로 환자를 치료하는 승마전문가를 말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표를 세우고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일은 재활승마치료사의 일상적인 업무다. 그렇다고 해서 재활승마치료사가 환자만 돌보는 것은 아니다. 말의 상태를 살피고 건강을 관리하는 부가적인 업무도 수행한다. 사람과 말 사이에서 서로를 매개하고 치료, 관리하는 특이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승마 치료를 위해선 먼저 팀을 구성해야 한다. 재활승마지도사, 마필관리사, 재활승마치료사로 팀이 구성되는데 그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치료를 진행한다. 팀의 하루일과는 말의 상태를 살피고 마구간의 청결관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승마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을 깨끗하게 목욕시켜 냄새를 없애는 일도 중요하다.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선 말의 심리도 살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선 말이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말에

계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람에 앞서 말의 심리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적당한 훈련과 스킨십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료시간에 맞춰 말과 장구를 준비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를 배정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실제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운동의 강도 및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다. 동물과 교감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무엇보다 안전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병원과 협력해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활동 영역과 비전

치료 승마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3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아직 정식 치료전문 교육과정은 없다.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다면 우선 동물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재활승마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관련 학과로는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등의 치료학과나 수의, 축산, 동물자원, 애완동물학과 같은 동물관련학과가 있다. 또한 주 치료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친숙해지는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직업이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재활승마치료를 고용하고 있는 곳은 삼성승마단, 한국마사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재활승마치료사에게만 해당하는 별도의 승진체계는 없으며 보통 기업 내

승진체계와 동일한 편이다. 다만 재활승마치료사의 경력은 일반 치료사의 경력과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병원, 복지단체 등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성격이 비슷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재활승마치료사로 활동하는 사람의 수는 현재까지는 적은 편이다. 임금 수준은 회사의 임금체계와 경력에 따라 다르며 급여는 일반 대학병원의 치료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직업 정보에 따르면 관련 직업인 물리치료사의 평균 연봉은 2,95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재활승마치료사는 새롭게 생긴 직업이어서 일자리의 증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선 재활승마치료사를 채용하는 기관이 일부에 그치고 있고 이 분야가 정규치료 분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차원에서 승마치료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장애인 복지활동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치료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많고 독보적인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유망직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크다.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전문 직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참고로 정부는 2016년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59억 원을 투입하고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 3급 국가자격시험으로 3종(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말 조련사)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말의 발굽이나 편자의 상태를 점검해 적합한 편자를 선택한 후 말발굽을 깎거나 편자를 연마해 이를 장착하는 전문가.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재활승마치료가 되기 위해선 승마에 대한 기본기나 관련지식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말과의 교감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소통하며 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재활승마치료의 효과가 인정되면서 국가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동물을 매개로 소통하고 재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며 관계를 지속하는 일은 힘든 만큼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 분야 역시 관련 자격증의 취득은 필수다. 아래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에서는 전국 승마장 및 관련된 일자리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정보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

수중재활운동사

물속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마린보이

수중재활운동이란?

수중재활은 물리치료의 한 분야로 수(水)치료(Hydro Therapy) 혹은 수중운동(Aquatic Exercise)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왔다. 특히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치료 개념이 두드러진 수치료가 발달해 왔고 미국에서는 치료의 관점뿐 아니라 심신의 건강을 위해 물을 이용하는 재활운동의 일환으로 발달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치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일반적인 수중운동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 물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킨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수중재활운동이다.

수중재활운동사는 물을 이용해 우리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물 전문 운동사다. 국내에서는 수치료와 수중운동이 별개로 소개되어 오다가 2000년경 비로소 하나의 분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장애인 및 환자를 위한 수중 치료 재활운동뿐 아니라 임산부, 고령자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수중재활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먼저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주관적, 객관적 운동 능력을 측정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중 환경을 조성한다. 환자에 맞게 수중시설, 수온, 수심, 수중장비 등을 선택한 다음 치료목적과 단계에 맞추어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한다.

보통 신경계, 근골격계, 심장순환계, 내분비계 등이 손상되었을 때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일정 기간 수중재활운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변화를 파악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치료를 끝내거나 수정된 치료목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서 치료 계획을 재수립한다. 즉, 환자의 치료 진행 과정에 맞게 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조정된다.

수중재활운동사는 물속에서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인 경우 피부질환에 시달리거나 소독약으로 인해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보습제를 사용해 트러블을 방지하는 등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활동 영역과 비전

수중재활운동사가 되기 위해 특별히 전공해야 할 학문 분야는 없다. 다만 인체와 밀접한 학문을 다루는 체육학과, 특수체육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전공자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국내 대학에는 수중재활운동과 관련한 전공학과가 없지만 몇몇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개설해 놓았다.

환자 및 장애인의 재활운동을 위한 수중재활운동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수중재활운동사 자격이 주어진다. 수중재활운동사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단체는 현재 두 곳에 불과하다. 수중재활협회를 예로 들면 기본적인 교육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2~4주 정도 진행한다. 이후 실습과정을 거치는데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습을 소화해야 한다.

수중재활운동사의 일자리는 의료기관, 복지기관, 스포츠센터에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종합병원, 정형외과병원,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재활치료와 관련해 수중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근골격계 환자, 노인성 질환자, 비만자 등과 같이 병원 진료와 연계해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반 스포츠 센터에서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중재활운동사의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수중재활운동사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직종이다.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서 취업이 보장되는 직종은 아니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분야의 지식은 물론이고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태도 역시 요구된다. 한편 서울수중재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수중재활에 대한 다양한 뉴스와 재활전문요원 교육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정보



서울수중재활센터

스포츠 심리상담사

심리치료로 최고의 경기력을 이끄는 사람

스포츠 심리상담사란?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선수의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신감 회복, 동기 부여, 불안감 극복 등 선수가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고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시합 결과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불안을 느끼는 선수에게는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슬럼프에 빠져 스스로에게 회의를 느끼는 선수에게는 스포츠를 지속해야 할 동기를 찾아주기도 한다.

이렇듯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선수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해 최고 경기력을 발휘하게 해 주는 멘탈 트레이닝은 물론이고 선수의 인간적인 성장을 돕는 멘토링 역할도 수행한다. 즉, 멘탈 트레이너와 멘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심리전문가인 셈이다.

국내에서 스포츠 심리상담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학계 역시 그에 보조를 맞추어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 심리상담사 1, 2급이 그것인데 각 단계별로 일정한 학력 수준이 요구된다. 게다가 현장수련과

심리상담 사례 발표를 수행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각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심리상담 관련 교육과 전문 트레이닝도 필수 요소다.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종 현황과 비전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자격을 취득한 뒤 선수 개인이나 팀의 전담 심리상담사가 되거나 개인사무실을 열어 활동할 수 있다. 상담 분야 종사자의 일 년 평균 급여는 200만 원 수준이지만 스포츠 심리상담 분야는 프로 선수를 전담하게 될 경우 일반 상담 분야 종사자의 급여보다 높다고 한다(출처 : 2013~2014 Job Map, 통계청).

물론 근무조건이나 본인의 경력에 따라 대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프로선수나 유명세를 지닌 선수의 전담 상담사가 된다면 평균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한국 선수 10명 중 9명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심리상담과 심리훈련을 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만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를 겪는 선수들이 많고 잠재적 수요치 또한 높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심리 상담이 선수의 경기력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꾸준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행히 국내 각 팀에서 스포츠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서 발전할 가능성은 높다. 스포츠 경험이 풍부하고 선수의 관점에서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선수들에게는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 또한 절실하게 요구된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경기에 임해서도 선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정신력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을 통해 선수들의 고민이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지속적으로 운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슬럼프를 예방하며 만약 슬럼프에 빠진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선수들 사이에서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스포츠 관련 심리상담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성장 전망 자체는 밝은 분야다. 또한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안내 및 취업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정보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선수의 몸상태를 관리하는 전문가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란?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는 선수들이 최상의 신체 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몸 관리를 중점적으로 행한다. 물론 선수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다. 그때도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의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스포츠 구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의 예를 들어 보자. 그들은 감독이나 코치와 협의해서 운동 계획을 수립한다. 종목, 포지션, 선수 개인의 특성에 맞게 근육을 단련시키고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교정운동을 실시한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는 일뿐 아니라 체중 조절 등 신체 건강 전반을 관리한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의 업무는 다양하다. 선수들이 경기 중에 부상을 입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상처 부위의 통증을 해소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몸을 마사지하기도 한다. 선수의 부상이 심한 경우엔 의사

에게 치료를 의뢰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재활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선 민간협회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체육계열학과나 물리치료학과 등을 졸업한 경우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트레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로 진입하는 경로도 살펴보자. 대학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뒤 운동부 혹은 선수촌 등에서 물리치료사로 경험을 쌓다가 트레이너 자격으로 프로구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간혹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의학이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 유학을 다녀오는 이들도 있다.

직종 현황과 비전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는 근무지에 따라 역할 범위가 달라지고 급여의 편차도 크다. 프로구단이나 대형 병원이 단연 급여가 높는데 그런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많다. 그 가운데 손에 꼽히는 것이 의학적 지식이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부상이기 때문이다.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때의 금전적 손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상실감과 좌절감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이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부상예방과 재활에 전력해야 한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의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다양한 선수들을 만나고 훈련의 노하우가 축적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만큼 직업적 안정성도 커진다. 또한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어

서 직종 자체의 발전 가능성도 큰 편이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는 현재 프로구단, 재활전문병원, 대형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 확장이 기대되는 영역으로는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이 활동하는 학교나 기업의 사내 동아리 등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선수들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전문가가 바로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다. 컨디션 유지의 전제조건은 일단 건강한 몸 상태다. 따라서 트레이너는 의학 적 측면에서 선수의 부상을 예방하고 돌발 상황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대처해야 한다. 의학과 스포츠 지식을 기반으로 부상 방지를 위한 위 명업부터 몸 상태 체크까지 선수 관리 전반에 관여하기에 업무 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참고정보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여러분의 운동에 최선을 다하세요!”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
이제훈 실장(진천선수촌 물리치료센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회 의과학부 메디컬센터에서 스포츠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이제훈입니다. 고려대학교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에 입사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업무는 열전기도수 치료와 재활운동치료, 부상예방프로그램 교육 업무와 국가대표 선수 참가 경기 의무지원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기 참가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5회 연속 본부임원으로 참가하여 선수들의 부상치료와 현장지원을 했고 아시안 게임과 유니버시아드 게임 등 각종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동기와 준비 과정은?

직업으로서의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기술 전문인력으로 주로 병원에서 중증환자부터 소아까지 다양한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합니다.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치료할 수 있는 태릉선수촌에 입사하면서 스포츠 물리치료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물리치료는 스포츠에 관련된 부상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태릉선수촌이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에서 대표 선수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과 직업의 장단점은?

현재 진천국가대표 선수촌 메디컬센터에는 세 명의 의사를 포함하여 20여 명의 의료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국가대표선수의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민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대표선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근무하는 곳이 진천군에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포츠 관련해 많은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전문 의무 트레이너를 채용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각 종목 프로팀과 스포츠 클리닉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관련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를 희망하는 분들은 먼저 스포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수관리 경험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스포츠 치료사 또는 스포츠 의무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관련 부상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동작에 따른 몸의 움직임과 반응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하고 선수들의 사례를 경험하면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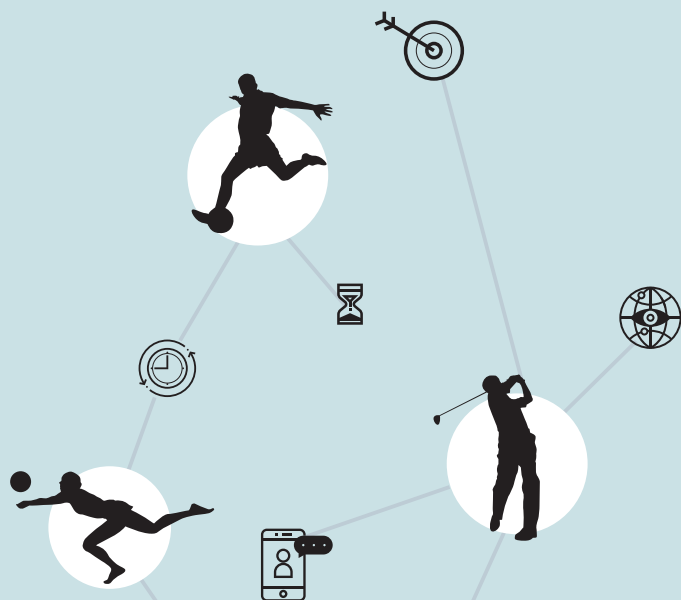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선수를 위하여

스포츠물리치료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석사를 하면서 스포츠 관련 부상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었고 선수들을 치료하면서 그 운동 종목을 직접 배우면서 하나씩 경험을 늘려 갔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위 과정을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씩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현장에서 실제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운동에 최선을 다하세요.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Part8

스포츠 전문 분야

- > 01 스포츠 심판
- > 02 피지컬 트레이너
- > 03 스포츠 경기장 디자이너
- > 04 장내 아나운서
- > 05 스포츠 전문통역사
- >>> 멘토 인터뷰 | 김민수 스포츠 전문통역(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스포츠 심판

선수들과 함께 뛰는 그라운드의 매의 눈

스포츠 심판이란?

스포츠 심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경기를 판정,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심판은 그 자체로 공정한 승부였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경기 후 흔히 '심판 때문에'라는 변명이 나오곤 하는데 그 말은 경기 전반에 걸쳐 심판의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의미다. 스포츠 심판은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선언할 권한을 가졌다.

경기 중 규정을 어긴 플레이를 지적하고 그에 적합한 패널티를 부과한다. 해당 종목의 규칙을 합리적인 선에서 적용하여 경기 전체를 경기답게 운영할 책임을 지낸다. 규칙 적용을 위해서는 경기 시 선수들의 동작이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만약 규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호루라기나 수신호, 깃발, 카드 등을 이용해 위반 사항을 알리고 적절한 판정을 내린다.

경기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기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도 심판 고유의 권한이다. 간혹 규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는

데 이 경우 심판의 재량으로 판단한다. 심판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하고 원활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자면 그만큼의 권한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심판원이 되려면 우선 해당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판 학교나 심판 강습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관련 분야의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마추어 경기심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프로 경기심판원은 전직 선수나 국제심판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 특채로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종목의 심판 협회에 확인이 필요하다.

국제심판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과정은 경기 종목별로 다르다. 다만 국제축구연맹(FIFA)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1급 심판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 후 직전 해에 성인 경기 10경기 이상을 소화한 사람들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이 국제심판원 시험은 이론과 체력테스트로 나뉜다. 이론의 경우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테스트, 경기 리포트 작성과 영문 규칙 시험 등의 필기 위주 시험이다. 반면 체력테스트는 40m를 6.2초 안에 달리고 1분 30초 휴식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등 고강도 시험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혹독한 시험을 거친 뒤 곧장 선발된다면 좋겠지만 FIFA가 각국 당 심판원의 수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넘길 경우 선발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은 주심 7명, 선심 9명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힘들게 국제심판이 되어도 안심하거나 안주할 수 없다. 올해 국제심판이 내년의 국제심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심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년 치러지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심지어 만45세 이상이면 국제

심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절차들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뒤에는 충분한 보상이 치러진다. 국제심판 자격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세계 대회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국가대표 이상의 자긍심을 안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활동 영역과 비전

국제심판들의 연봉은 각 경기나 종목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그들의 평균연봉은 2,506만 원이다. 물론 매 경기마다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추어 경기는 아주 적은 보수로도 진행이 되지만 프로심판이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더욱이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수준이라면 그 대우는 급격히 상승한다.

연봉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프로야구의 2군 심판이 받는 연봉이 아마도 앞서 언급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평균연봉 2,506만 원과 비슷한 수치일 것이다. 그에 비해 만 5년 차 이상의 1군 심판은 최소 4,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역대 연봉은 능력과 경력 모든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조건을 갖췄을 때 주어진다.

심판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직업이다. 선수들이나 경기 관련자들과 친분을 쌓을 경우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기에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리그나 활동단체의 경기 일정에 충실해야 하므로 항시 일정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제아무리 몸값이 높은 선수라도 심판의 관리 하

에 놓인다. 어떤 측면에서 그 경기의 주관자는 심판일 수도 있다. 나름대로 매력 있는 직업이기에 심판 지원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절대자처럼 여겨지던 심판의 영역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비디오 판독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판정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경기 후에 오심이었음이 밝혀지는 일도 있다. 그럴 경우 인터넷에서는 심판을 심판하는 일들도 벌어진다.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직업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프로심판을 제외하고는 스포츠 심판을 전업으로 삼는 경우가 드물다.

사회인 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별 고민 없이 동료들이 심판을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생활 스포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경기장과 심판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다. 프로심판은 선수 출신이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생활스포츠 영역에서는 부업으로 심판을 담당하는 일도 가능하다. 물론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심판으로서의 자질을 확보했을 때의 이야기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스포츠 심판은 아직 전업으로 삼기엔 부담이 있는 직업이다. 다만 프로구단의 전문 심판이나 국제심판이 된다면 전업 심판으로도 활약이 가능하다. 국제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을 갖춰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비디오 판독이 등장하면서 심판의 권위가 도전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뢰도가 향상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경기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인 동시에 공정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직업이기도 하다.

참고 정보



대한축구협회 심판 홈페이지

피지컬 트레이너

체력을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매니저

피지컬 트레이너란?

피지컬 트레이너(Physical Trainer)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 및 기초기술 훈련을 담당하는 스포츠팀의 전문 트레이너다. 용어 자체의 해석으로는 선수들의 체력을 전담하는 코치로 이해되기 쉽지만 사실상 감독이 구상하는 팀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선수단 전체를 이끄는 중요한 스태프다.

최근 들어 해외 축구구단을 중심으로 피지컬 트레이너의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그들의 역할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피지컬 트레이너의 영역은 스포츠 전 분야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는 축구 종목에 한정된 느낌이 있다.

피지컬 트레이너의 역사는 축구 피지컬 트레이너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1954년 피파 스위스 월드컵에서 최초로 피지컬 트레이너가 일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단 명단에 등록되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피지컬 트레이너는 그 전문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과학적 지식 기반 없이 선수들에게 오로지 강력한 체력 트레이닝만 주문했던 것이다. 피지컬 트레

이너의 역할이 전문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벨기에에서 서킷 트레이닝 등 다양한 트레이닝 기법이 개발되면서 유럽에서는 피지컬 트레이닝 부문의 발전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반면 비유럽권은 피지컬보다는 테크닉에 더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그 결과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 남미 국가들은 잉글랜드를 비롯한 유럽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이번 그리고 충격이었다. 이후 ‘체력이 기술을 이긴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 축구계에서도 피지컬 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상이 축구에서 피지컬 트레이너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전까지도 여전히 체력 훈련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트레이너 자리는 그저 은퇴 선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직책 정도로 여겨졌다. 그런 식의 분위기는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선임되면서부터다. 히딩크 감독은 피지컬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팀을 바꾸기 시작했고 월드컵에서 그 효과를 증명했다. 이후 K리그를 중심으로 브라질 피지컬 트레이너 영입이 유행처럼 퍼졌으며 지금은 거의 모든 팀이 피지컬 트레이너를 보유하고 있다.

활동 영역과 비전

한국에서는 여전히 피지컬 트레이너와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선수 트레이너는 선수의 부상 시점에서부터 재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지도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부터 선수 트레이너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 피지컬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체력강화와 유지, 부상 방지뿐 아니라 재활 이후 선수단 훈련 복귀와 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준다.

피지컬 트레이너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동계훈련기간이다. 다가오는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의 체력 회복 및 강화 훈련에서 피지컬 트레이너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피지컬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팀은 시즌 마지막까지 체력과 멘탈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뿐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도 크게 줄어든다.

이런 점 때문에 영세한 구단에서도 동계 훈련 시즌에만 단기계약직으로 피지컬 트레이너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까지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즌 내내 선수들의 몸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기에 전속 피지컬 트레이너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피지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에도 아직 해당 교육기관이 없다. 현재는 주로 브라질 유학을 거쳐 자격증을 받아오는 상황이기에 한국인 피지컬 트레이너는 그 수가 극히 적은 편이다. 다행히 피지컬 트레이너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아지면서 그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이들이 증

가하는 추세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최근 국내 스포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강력한 피지컬이다.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코칭하는 피지컬 트레이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예전에는 외국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피지컬을 테크닉과 스피드로 보완하려 했으나 선수들의 평균 신장과 체격이 향상되면서 이제는 피지컬 승부가 가능해졌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아직 전문적인 피지컬 트레이너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것은 곧 영역 확장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포츠 경기장 디자이너

최고의 경기장을 만드는 사람

스포츠 경기장 디자이너란?

스포츠 대회나 경기의 수준을 기늠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장이다. 마라톤처럼 별다른 시설 없이 길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 스포츠는 종목별 전용 경기장에 대한 시설 규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국제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준을 통과한 경기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경기장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장 디자이너의 역할이다. 스포츠 경기장 디자인의 경우 시각 디자인보다는 공간 디자인과 건축 디자인의 영역에 가깝다.

프로 스포츠의 각 구단은 일반적으로 전용구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용구장 내에 다양한 체험존과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구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구단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이용하기도 한다. 경기장에는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필드가 있고 필드 주변에는 믹스트존이 자리 잡는다. 크게는 선수들의 활용 공간과 관람석, 관람객들의 활용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 전광판과 같은 시설물도 경기장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

스포츠 경기장 디자인을 위해선 경기와 관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선수 및 관람객들의 동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것이 해당 경기장을 선수와 관람객 모두에게 사랑받게 만드는 최우선 요소다.

직종 현황과 비전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스포츠 경기장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경기장 시공 시에도 필드와 전광판의 책임자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국가 단위에서 경기장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은 국제 대회 유치와 같은 당면한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같은 빅이벤트가 아니면 대형 경기장 프로젝트는 좀처럼 시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낡은 경기장을 리뉴얼하거나 리빌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기존의 낡고 전통적이던 경기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경기장 디자이너의 미적 감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마케팅적인 감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 모든 요소가 충족될 때 비로소 선수와 관객이 호흡하며 경기를 즐길 수 있고 그것이 구단 운영의 성공을 보장한다.

아직 하나의 직종으로 뿌리내리지 못했다고는 해도 스포츠와 건축에 대한 애정이 깊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공간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인테리어나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건물 설계에 관심이 있다면 건축 전반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팁을 제공하자면 건설사보다는 경기장 조성사레가 많은 설계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건축설계사는 평균 연봉이 4,000만 원 정도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미 많은 설계사가 진출하고 있어서 어려운 경쟁이 되겠지만 스포츠 경기장에 집중해 일하고 경력을 높여간다면 해외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경기장 디자이너의 영역은 아직 모호하다. 건설이나 설계와 같은 건축 영역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스포츠의 영역이 아니기에 학생선수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심을 두고 살펴보면 접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지점이 의외로 많다. 직접 경기장을 디자인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팀의 일원 혹은 자문 역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장내 아나운서

경기장을 들었다 놔다 하는 힘

장내 아나운서란?

경기가 긴박하게 진행될수록 관람석은 흥분과 열기로 달아오른다. 그런 장내에서 차분함을 유지한 채 경기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때로는 재치 있는 멘트로 응원의 분위기를 한층 다이내믹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경기장 장내 아나운서다.

기존의 장내 아나운서들은 지극히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단순한 안내방송 정도가 전부였기에 일반 방송요원과 구분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장내 아나운서의 역할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장내 아나운서는 심판이나 운동경기기록원, 운영 스태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경기상황을 살핀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 교체선수, 판정내용 등을 상황에 따라 관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들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장내 소란을 예방하거나 안내방송을 통해 사람을 찾아주는 등의 소소한 역할도 담당한다.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방송프로듀서의 지시를 받아 경기 진행에 필요한 해설도 한다.

경기 이후 시상식 등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기도 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준비된 음악을 내보내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한다. 방송 장비와 장내의 스피커 등을 점검해 방송사고를 막는 것도 이들의 업무에 포함된다.

직종 현황과 비전

장내 아나운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곳은 경마장과 경륜장, 경정장이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종목인 경마를 예로 들어 장내 아나운서들의 업무를 살펴보자. 우선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 및 장비, 마필 등의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 그 정보를 관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방송장비 전반을 사전에 점검한다.

경주 중계가 시작되면 선수명단, 경주상황, 결과 등을 실황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한다. 장내 질서를 바로 하기 위한 방송 및 안내방송도 병행한다. 방송 이후에는 중계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경주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해설한다. 선수, 교관 등과 인터뷰 하며 정보를 입수하기도 한다.

몇몇 종목에서 장내 아나운서들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전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뿐 아니라 해당 종목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승부의 팁을 제공하는 해설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독립된 장내 아나운서의 등장 가능성도 엿보인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방송의 영역이 커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유명 은퇴 선수가 진행하는 방송도 있고 선수출신 아

마추어가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연예인이나 개그맨 중에는 ‘편파방송’임을 밝히며 노골적으로 한 팀을 응원하는 이도 있다.

장내 아나운서는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가 있을 때는 해당 업무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의 기준을 경기 일정에 맞춰야 한다. 휴일이 규칙적일 리 없다. 근무조건은 일반적인 직장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지상파 아나운서의 평균연봉이 4,027만 원(출처 : 노동부 2018) 정도인 것에 비해 일반 장내 아나운서 연봉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정확하게 취합된 데이터가 없기에 분명하게 기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연봉을 떠나 해당 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이라면 과감하게 장내 아나운서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프로 스포츠 세계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경기장 장내 아나운서의 영역도 다르지 않다. 장내 아나운서는 등장 초기만 해도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안내 역할 정도로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정 팬층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최근엔 선수나 심판 출신의 장내 아나운서들이 지면을 장식하는 일도 있었다.

경험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관람객들이 열광하는 요소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기존의 장내 아나운서들이 갖지 못한 전문성으로 팬들의 환호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선수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장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선 정확한 어휘 구사력, 관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언어 구사력, 해당 스포츠에 대한 전문지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선수 학생이나 은퇴 선수들의 경우 그 이력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스포츠 전문통역사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소통 전문가

스포츠 전문통역사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항상 선수단과 함께 하면서 용병 혹은 외국인 스타프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이들이 바로 스포츠 전문통역사다. 국내 프로 스포츠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외국인 선수와 감독, 코치진의 합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스포츠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선수들에게 전략을 설명하고 팀 전체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만약 팀 내에 외국인 선수나 감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역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소통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통역의 역할은 비단 프로 스포츠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스포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외교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전문통역사들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 전문통역사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선수와 24시간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이 낮선 선수들은 식사나 물품

구입 등 소소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 기초적인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경기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포츠 전문통역사는 통역이라는 기본 업무 외에 팀 내 외국인들의 친구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미를 필요로 하는 직업인 셈이다.

스포츠 전문통역사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후 통역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해당 언어를 전공하거나 2~3년 정도 외국 체류 경험에 있는 사람이 주로 스포츠 전문통역사로 활동한다.

스포츠 전문통역사 업무는 대부분 훈련장이나 경기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영역으로 삼고 싶은 스포츠 종목을 미리 정해 살펴보는 것이 좋다.

활동 영역과 비전

스포츠 전문통역사는 대개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며 보수도 높은 편이다. 팀 내의 대우도 구단의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며 보통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단점을 꼽자면 시즌 중에만 활동한다는 점이다. 시즌 중에는 팀과 함께 일을 하고 비시즌에는 단기적 일 자리를 얻는 경우도 많은데 일정의 조율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팬들의 취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스포츠 전문통역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종목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는 외국어 능력이 스포츠 전문통역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지만 앞으로는 외국어 능력 외의 것들도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수한 지원자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전문통역사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좋아할 수 있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종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해당 종목의 규칙이나 전문용어를 습득하는 등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준비 과정을 입사 지원 시 표현한다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외국인 선수 혹은 코칭스태프의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 흐름의 영향으로 스포츠 전문통역사 역시 전문가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국제무대에서 스포츠 스타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네이티브에 준하는 언어능력과 일정 수준의 협상력도 필요하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다양한 독서와 논리력, 언어는 기본!”



스포츠 전문통역사
김민수 스포츠 전문통역(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수 스포츠 전문통역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의 지휘봉을 잡은 조세 모라이스 감독과 코치진 그리고 브라질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 모두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훈련, 일상생활, 경기 때마다 서로 언어가 다르더라도 의견 교환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하는 역할입니다.

직업 선택의 동기와 준비 과정은?

어린 시절 남미 축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에서 7년간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포르투갈어를 익혔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운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와

서는 프로선수 생활을 4년 했으나 큰 부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축구와 관련한 일에 끈질기게 도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속 구단에서 감사하게도 통역 일을 제안했고, 그때부터 필드를 뛰는 선수가 아닌 외국인 지도자 혹은 외국인 선수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스포츠 통역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생활 중에도 간간히 통역을 병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과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더구나 선수 출신이어서 의사전달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선수 경력이 없이 언어에 정통한 통역사보다는 훨씬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저만의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근무환경과 직업의 장단점은?

구단은 보통 사무국과 선수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은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원스태프의 일원이며 모든 구성원이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은 굉장히 세심한 분야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

기할 때 그 안에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팩트의 전달뿐만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감정과 팩트를 종합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의사를 전달받으면 단순한 직역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의 전달과 함께 서로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감정까지 적절하게 전달하는 배려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스포츠 통역은 팀워크를 위해 감정과 팩트를 모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능력이 마음의 배려로 잠재하게 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 배우자와 두 아들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팀 생활을 하면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주말과 저녁의 삶이 생각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그런 문제 때문에 늘 미안하고 아이들과 다른 아빠들처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계발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스포츠 전문통역이라는 일은 단순히 언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스포츠 분야든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축구팀의 통역이 되고 싶다면 축구단 전체의 실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구단이나 선수, 코칭스태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곧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통역이 잘 못되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사람들과 오해라는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선수를 위하여

통역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 꼭 한번은 기회가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평소에 다방면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생각하던 일이든 새로운 분야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히면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 말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Part9

미래 유망 분야

- > 01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
- > 02 스포츠 1인 방송
- > 03 스포츠 큐레이터
- > 04 익스트림 여행 가이드
- >>> 멘토 인터뷰 | 홍성찬 교수(초쿠바대학교)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

스포츠와 관련한 미래 유망 직종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가 화두로 떠올랐다. 아날로그 시대만 해도 모든 데이터는 수집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발생과 수집에 걸리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데이터 수집의 편리로 인해 사회전반의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빅데이터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주요 배경이다.

실제로 공공부분과 기업에서는 이미 빅데이터가 필수 기반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도 이런 트렌드가 빠르게 형성 중이다. 사실 스포츠는 데이터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분야다. 스포츠 경기는 아주 다이내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순간이 데이터 발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뿐 아니라 육상 같은 기록경기에서도 상시적으로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 기록들은 정교하게 축적된다.

디지털 시대에도 기록원이라는 직종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기록원은

단순히 발생한 데이터를 숫자로 기록하는 수준으로 엄밀하게 빅데이터 전문가와는 다르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즉, 기록원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선수 개인 혹은 팀의 경기 데이터를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해당 선수나 팀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생성된다. 데이터가 누적되고 거기에 신뢰할 만한 분석 작업이 진행된다면 그때부터 그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교한 과학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스포츠 빅데이터 현실과 비전

빅데이터 전문가 업무는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또한 그 분야는 영역별로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먼저 스포츠 부문에서는 기록을 수집하고 정렬하는 분야,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분야, 데이터를 분석해 유효한 결과물을 창출하는 분야 등으로 간단히 나뉜다.

전체적인 빅데이터 솔루션은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등 컴퓨터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스포츠를 잘 알고 있는 공대생이라면 더구나 그 사람이 선수출신이라면 한층 더 정교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분야는 의외로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단순히 데이터를 추적하고 해설진이나 캐스터가 연간 추적된 단순 정보를 바탕으로 선수 평가에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 데이터

의 활용 폭과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경마나 경륜 같은 종목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박진감과 수익성이 배가될 수 있다. 경마를 예로 들어보자. 가령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말과 기수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만큼 우승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고, 그것은 곧바로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진다.

단순한 경기 기록이 아니라 말과 기수의 신체리듬 주기, 기상조건에 따른 경기 결과, 스타일의 조합 등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런 빅데이터의 활용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최상 등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수요에 비해 아직 전문가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수학과와 통계학과, 컴퓨터 관련 학과는 최근 빅데이터 덕분에 취업에 어려움이 없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다. 스포츠 분야 역시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취업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최근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도 데이터를 다루는데 신중해졌으며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대학의 수학과, 통계학과 학생들의 취업이 유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스포츠를 전공하는 동시에 이공계 공부에 관심을 둔 학생이라면 스포츠 빅데이터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업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1인 방송

내 방송은 내 마음대로, 자유가 있는 방송

스포츠 1인 방송이란?

최근 인터넷 방송의 보편화와 더불어 1인 방송이 뜨고 있다. 초등학생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로 유튜브 1인 방송가가 꼽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특정 분야에서는 연예인의 인기를 뛰어넘는 1인 방송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은 국경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의 범위 또한 넓다. 한번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미 이런 1인 방송 혹은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1인 방송(미디어)이란 개인이 혼자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인터넷을 매개로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 기자, 프로듀서, 해설자가 될 수 있으며 방송국을 운영할 수도 있다. 1인 방송은 인간의 소통 욕구와 표현 욕구를 극대화한 결과물로 개인이 대중들과 호흡하는 새로운 문화적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직업을 1인 크리에이터(Creator)라고 부르고 있다. '창조

자'라는 의미로 1인 방송 제작자를 단순히 동영상의 창작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을 매개로 팬 커뮤니티를 만드는 커뮤니티의 창조자이며 더불어 소통의 리더로 보는 것이다.

활동 영역과 비전

국내에서 1인 방송 플랫폼이 생성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국내 토종으로는 아프리카TV가 유명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대표적이다. 이런 방송에서는 저마다의 콘셉트를 가지게 마련이다. 게임, 신변잡기, 패션 등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다.

1인 방송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비용에 있다. 작은 공간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1인 방송이 가능하다. 프로야구 해설을 예로 들어보자. 보통 프로야구 중계는 TV방송국에서 이루어지며 방송법에 준한 권위 있는 해설과 진행으로 전파를 탄다. 하지만 시청자 중에는 격식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해설과 진행을 원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체물이 바로 1인 방송이다.

1인 방송은 방송법의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 솔직하고 재미있는 방송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올림픽 같은 스포츠 빅이벤트의 틈새시장이나 일반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비인기종목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 지상파 방송이 소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진출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재미있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1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은퇴한 축구나 야구의 인기 스타들이 1인 방송 혹은 팀 방송을 시도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실제로 1인 방송 분야에서 역대 수입을 올리는 방송가가 속속 등장하고 더 나아가 1인 기업화한 방송가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 덕분에 1인 방송 진행자가 지상파로 혹은 케이블TV로 진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스포츠 분야의 1인 방송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자신만의 매력을 살려 특화된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굳이 포털이나 케이블TV, 지상파까지 진출하지 않는다 해도 다수의 팬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광고 수입과 후원 수입 등으로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독창적인 콘셉트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신만의 매력이다. 그리고 남은 하나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아이들 세계에서 유튜브 1인 방송의 인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른들도 1인 방송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인기 있는 1인 방송가의 수입이 억 단위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창작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유튜브 방송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1인 방송은 진입이 자유로운 데 반해 성공의 문은 턱없이 좁다. 도전해 볼 가치는 있지만 그만큼의 재능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와 유튜브의 경우 각각 1인 방송 방법과 절차 등이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정보



아프리카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포츠 큐레이터

내게 맞는 운동을 설계하는 사람

스포츠 큐레이터란?

생활체육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스포츠 각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보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아마추어 운동가들도 동네 헬스장에서 단순히 기구의 활용법을 코칭받던 단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전문적인 레슨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직이 바로 스포츠 큐레이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먼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꼼꼼하게 비교한다.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변의 비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가능할지 몰라도 체계적인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 때 필요한 조력자가 스포츠 큐레이터다. 스포츠 큐레이터는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의 관심도와 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그 사람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큐레이터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개념을 스포츠 분야로 가져와 접목시킨 것이 바로 스포츠 큐레이터다. 누구나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클럽 스포츠를 할 것인지 개인 운동을 할 것인지 혹은 집에서 할 것인지 헬스장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시설을 찾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스포츠 큐레이터는 그런 아마추어 운동가들에게 개인 성향과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을 골라주고 장기간 집중해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한다.

활동 영역과 비전

스포츠 큐레이터라는 단어는 지극히 생소하다.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스포츠 큐레이터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포츠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소개하고 서비스의 개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초기 활동을 시작해서 일정 기반을 마련한 뒤 각종 스포츠 시설이나 단체와 협력해서 고객을 매칭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컨설팅한 고객의 운동 능력과 건강 상태, 체력 증진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재설계하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평생 서비스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대량생산된 옷을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 입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맞는 수제 옷을 제작 의뢰해서 입고자 한다. 그만큼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스포츠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최적화된 종목과 방식을 찾기 위해 스포츠 큐레이터와 상의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스포츠의 개인화 서비스는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다. 활동 범위도 넓다. 단순 트레이너와는 달리 실내외 모든 스포츠에 관여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기도 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앞서 말했듯 큐레이터란 본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을 수집, 관리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직업이다. 그 직업을 스포츠와 접목한 것이 스포츠 큐레이터라고 이해하면 접근이 쉬울 듯하다.

차이가 있다면 개별화 작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운동 능력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운동을 통해 그가 얻고자 하는 바를 알아야 제대로 된 컨설팅 작업이 가능하다. 미술관 큐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큐레이터에게도 창의력과 관찰력,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다. 요구되는 자질이 많은 만큼 매력적인 작업이 가능한 직업이기도 하다.

익스트림 여행 가이드

다이내믹한 체험 여행을 가이드 하는 사람

익스트림 여행 가이드란?

익스트림 스포츠는 흔히 ‘X게임’이라는 약칭으로 통용되며 위험을 동반한 극한의 스포츠를 일컫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서 모험을 즐기는 스포츠 혹은 레저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 암벽 등반, 스카이 서핑, 스노크로스, 프리스키, 빙벽 등반 같은 스포츠가 해당된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는 분야다. 대자연과의 호흡, 역경을 뛰어넘는 강인함과 테크닉,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전 정신, 스릴을 즐기고 싶은 욕구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위험을 담보로 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레저 스포츠가 각광받고 있다.

익스트림 여행 가이드는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할 내용이 많고 항상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하므

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익스트림 스포츠 가이드는 스포츠 강습 및 기술 훈련을 돕고 적절한 장비와 이용법을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활동 영역과 비전

이 직업도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개척 단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익스트림 스포츠를 무리하게 고집하는 대신 인기 스포츠부터 여행과 접목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투어가 그것이다. 자전거 라이딩이 가능한 코스는 세계적으로 여러 곳이 소개된 바 있다. 실제로 라이더를 대상으로 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여행사도 있다. 적절한 모험이 가미된 코스를 라이더들과 함께 달리며 안내하는 것도 익스트림 여행 가이드로서는 뿌듯한 일일 것이다.

또 하나는 다이빙이나 프리스키 등의 코스 개발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 유명한 다이빙 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코스를 안내한다면 익스트림 여행의 대중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리스키나 크로스컨트리 같은 스포츠는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특정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

익스트림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하고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스포츠의 종류가 많을수록 몸값은 상승하게 마련이다. 언어능력 또한 중요하다. 가이드는 현지에서 팀을 리드하며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현지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자칫 팀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과 언

어 능력이 갖춰진 상태라면 가이드 역할을 뛰어넘어 매력적인 투어 설계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익스트림 전문 여행사를 운영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각광받는 분야이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초기 시장의 최고 강자로 등극할 수도 있다.

선택을 위한 필수 팁

익스트림 스포츠는 극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 심리가 작용하는 스포츠 분야이다. 격렬하고 위험한 만큼 짜릿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하지만 막상 도전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교육이나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우려도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우려를 해소해 주기에 적합한 직업이 바로 익스트림 여행 가이드이다. 뛰어난 체력과 운동신경, 언어능력을 갖추었다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열정과 능력은 기본!”



스포츠 용품 개발자
홍성찬 교수(츠쿠바대학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는 홍성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육상을 했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하면서 다시 운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교직 대신 대학원을 선택해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했고 일본에서는 축구 코칭학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역학과 유체역학을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는 축구 무회전슛에 관한 연구였는데 대학시절 골키퍼를 하면서 무수한 실점을 해봤기에 공의 비행 궤도에 관한 연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2012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문부성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R&D 코어」 연구지원 부분에 유일한 외국인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스키 점프웨어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축구공을 개발하는 일을 10여 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츠쿠바대학 체육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공인구나 축구공에 대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 나름 ‘축구공 오타쿠’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8~2019 시즌 분데스리가의 공인구, 2019년 아시안컵 공인구 개발에 참여했으며 스위스 스키활강 선수의 유니폼 등 주로 스포츠 용품 관련 기업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의 스포츠 용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직종은

4차산업 혁명시대 구글에서 미래유망직종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직업들이 나옵니다.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그렇다고 모든 취업 준비생이 이 분야에만 몰리면 안 되겠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혹은 좋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변화와 유행에 민감한 사회입니다. 그런 반면 오래된 것에 대한 향수도 있고 동경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몇백 년이 된 가옥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고집스런 직업이 가장 유망한 아니 가장 현명한 직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도전에 볼 만한 미래 유망 직종은?

컴퓨터를 이용한 스포츠 용품 디자이너, 시뮬레이션(스포츠엔지니어)이나 경기분석관(게임분석) 등이 가장 가까운 미래에 스포츠 현장에서 활약하게 될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용품 개발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품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은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포츠 용품 개발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선수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세는 무엇인지 그때의 선수 주위의 공기흐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선수가 입은 유니폼이나 선수가 사용하는 용품은 어떻게 제작해야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를 현장의 선수나 코치들에게 전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포츠 코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축구와 배구, 야구 등에 도입된 게임분석 역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손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코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수시절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과 선수로서의 노하우를 토대로 컴퓨터 관련 엔지니어나 경기분석관, 용품 디자이너 등을 통해 현장의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다

면 매력적인 직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야로는 인간 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의 직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카운셀러와 같은 심리상담이나 심리코치는 현장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선수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발달로 대부분의 직종이 컴퓨터로 대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일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누구든 완벽하게 준비하고 사회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초조함을 갖고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일이든 직접해 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직접해 보고 나서 느끼고 반성하고 바로잡는 순순환적인 사이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순순환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자신만의 인생 방향이 잡히고 그곳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 소개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포츠 용품의 공력 특성을 측정하여 새로운 용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외의 몇 개 기업들과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지만 처음 4~5년 동안은 공동연구를 하

자는 기업이 없어 매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면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꾸준히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과 자부가 일의 추진력이 되고 효율성으로 발전합니다. 사회 진출에 앞서 본인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아 관심 갖고 연구한다면 분명 즐거운 사회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선수를 위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 미래의 유망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유망 직종, 흔히 뜨는 직업이라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10여 년 전에는 스포츠마케팅 분야가 유망하다는 말로 당시 큰 인기와 함께 취업 역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포화상태가 되어 스포츠마케팅의 인기는 예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T(Athletic Trainer)와 PT(Personal Trainer)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만을 위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기 있으니까 혹은 친구들이 하니까, 멋져 보이니까 등은 내 직업선택에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 변화합니다. 변화를 예측해서 그 변화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만을 쫓게 된다면 나만의 것을 잃게 되어 스스로의 일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 시간적인 여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경험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와 그들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Round 3 |

취업 준비
작전 타임.
이력서와
면접의 기술

취업도 전략이다

선수와 취업준비생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전 앞에선 설렘과 두려움이 늘 함께 찾아온다. 결과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고 해내야만 한다.

취업 과정은 스포츠 경기와도 흡사하다. 목표를 확실히 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전략이 있다면 승률은 높아진다. 취업이라는 관문도 다르지 않다. 실전에 강한 선수들에게는 많은 장점과 강점이 있다. 자신만의 장점과 강점을 찾고 이를 직무와 잘 연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주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갖고 취업 준비를 시작해 보자!

선수에게 취업이란 무엇인가?

1) 목표는 취업이 아니라 내 일 찾기

처음 운동을 접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왜 운동을 하려고 하는가?”, “운

동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처럼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취업 준비 활동 역시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취업 준비에서 조급함은 금물이다. 충분한 자기 탐색이 선행될수록 취업이 주는 기쁨도 커진다. 반대로 삶의 가치관, 비전, 행복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취업은 조기 퇴사로 이어지기 쉽다.

취업포탈 사이트 사람이인 신입 채용 기업 6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내 일을 찾는 데 실패해 1년 이내에 퇴사를 결정한다. ‘조직, 직무 적응 실패’는 퇴사자 2명 중 1명이 꼽는 대표적 퇴사 사유이다. 기업에서도 ‘묻지마 취업’으로 인한 조기 퇴사율이 30%에 육박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적성과 직무 연관성’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취업 준비의 궁극적 목표가 취업 그 자체일 수는 없다. 오랜 시간 함께 할 내 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적성검사를 활용해 나와 맞는 직업 찾기

직장에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금상첨화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열정을 쏟거나 잘하지 못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오랜 선수생활과 대학생살을 거치면서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면 취업 준비에 앞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는 객관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장

쉽게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으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 이보다 더 객관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면 적성검사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여러 가지 적성검사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적성), 뭘 하면 즐거운지(흥미),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가치관)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 편한지(성격)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온라인에서도 실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계 직업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성격과 직업 연계 검사〉

다중지능검사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개인마다 우수한 영역이 있다. 다중지능검사는 인간의 지능을 8개 유형(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 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탐구)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직업군도 알려준다. 검사를 통해 자신의 발달 지능을 확인하고 연관 직업도 알아볼 수 있다.

홀랜드검사

개인과 환경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성향이 환경과 일치할수록 직업적 만족도가 높다. 홀랜드검사는 성격유형(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과 일치하는 직업군을 찾도록 안내한다.

MBTI검사

개인 에너지의 방향성을 4가지 영역(내향-외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4가지 선호 지표가 조합된 양식을 통해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며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고 적합한 직업군도 안내한다.

〈온라인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자아분석을 도와주며 각 분야별 직업과 전망 등 정보와 계열별 학과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진로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청소년, 청년, 중장년, 여성으로 대상을 구분해 대상별 자기이해검사와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검사할 수 있고 고용통계 및 고용현황, 채용 트렌드와 같은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진로, 직업훈련, NCS기반 채용, 노동법상식, 면접 준비, 직무훈련 등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교육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수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직업 및 학과 정보,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진로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3) 직무를 알아야 내 일도 찾을 수 있다

선수에게 종목이 중요한 것처럼 직장에서 직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실적으로 선수들이 팀을 바꾸는 것보다 종목을 바꾸는 것이 어렵듯 직장인도 회사를 바꾸는 것보다 직무를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다.

일례로 영업 업무를 10년 하던 직장인이 회사를 옮겨 상품 설계를 할 수는 없다. 해당 경력이 전혀 없는 10년차 직장인을 받아줄 곳도 없다. 처음부터 직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기업에는 영업, 마케팅, 생산관리, 연구 등 흔히 들어본 직무 외에도 다양한 직무가 있다. 일반 기업의 직무는 경영일반과 홍보/마케팅, 생산/제조 등으로 나뉜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업무 영역이 있다. 직무에 대해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업 종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홈페이지 또는 채용 공고에 직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직무는 같지만 산업군에 따라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영업관리만 보아도 일반 소매업 제조사의 경우 판매실적, 손익관리 및 인원관리가 주된 업무지만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유통사의 경우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관리한다. 외식기업의 경우 매장 관리인 매출과 손

경영, 인사, 총무, 재무	마케팅, 광고, 홍보	생산, 제조, 연구개발	인터넷, 프로그래밍, 시스템
경영 전략, 기획, 조사 분석, 총무, 법무, 특허, 경리, 회계, 세무, 재무, IR, 자금, 비서, 안내, 인사, 인재 개발, 채용, 평가, 운영, 사무 지원, 문서 작성	브랜드 전략, 마케팅 전략, 홍보, PR, 광고, 광고 기획, 홍보 기획, 리서치, 조사 분석, 통계 분석, 이벤트,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 전시 기획, 판촉 기획, 사보기획, 사보 제작	기술, 연구 개발, 설계, CAD, CAM, 생산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생산, 조립, 포장, 기계, 금속, 금형, 도금, 용접, 전기기술, 제어, 회로, 정비, 설치, 수리	웹마스터, 웹기획, 웹마케팅, 사이트 운영, 웹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서버 보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분석, 하드웨어 설계, 게임 기획, 게임 개발, 게임 운영, 모바일 기획

익관리가 영업 관리의 주요 업무가 된다. 개인적 생각으로 어림짐작하지 말고 구체적인 직무를 확인해야 한다.

스펙 쌓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1) 오직 열정으로! 공모전에 도전하라

최근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선호하는 스펙 1순위는 공모전과 인턴십 참가자들이다. 공모전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서류 전형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기업에서는 공모전 입상자와 인턴 경험자들을 이미 검증된 지원자들로 보고 본다. 지원하는 업종과 희망 직무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련 경험을 쌓은 이들은 업무 성과는 물론 만족도 높다. 회사로서도 장기근속을 기대할 수 있어 채용에 우선순위를 둔다.

공모전 당선자들의 이력은 다양하다. 경영학 전공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인 혹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모전도 많다. 혼자서 어렵다면 팀을 이뤄 공모전에 도전해 보자.

2) 채용의 디딤돌, 인턴십을 잡아라

인턴십은 채용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직무 경험을 제시할 수 있어 가산점이 추가된다. 때문에 취업을 방불케 하는 쟁쟁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한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턴십은 채용전제형, 공채우대형, 직장체험형이 있다. 채용을 약속하거나 공채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린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직무의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이를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로 기록할 수 있으므로 관심이 가는 분야를 살펴보고 기업의 인턴십 공고를 눈여겨 봐두어야 한다.

몇몇 기업의 인턴십 선발은 채용과정만큼이나 까다롭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과정을 거치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나 학과 연계 기관들 그리고 각종 취업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3)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능력 키우기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시채용과 직무별 채용이 증가하면서 취업 준비 과정도 변화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따거나 실무 경험을 쌓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장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기 어렵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 직무 능

력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와 대학교, 각종 기관들은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부합한 기관을 찾아 상담해 보도록 하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

취업성공패키지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지막 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상담, 훈련, 일경험, 인턴, 창업, 일자리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로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만 34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현장견학, 창직 등에 관한 교육 멘토링을 지원한다.

배움나라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 OA활용, 웹디자인, 프로그래밍실무, 자격증과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강좌, 스마트폰, 4차산업 혁명과 같은 정보화교육 강좌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HRD콘텐츠네트워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동영상 강의와 훈련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관

심 있는 분야의 직무교육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코바코 광고교육원

국제광고인자격, 전문광고, 사회교육, 스마트광고전문가, 지역광고 등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행사개최 정보를 제공한다.

콘텐츠인재캠퍼스

방송, 문화, 게임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세미나 개최정보 및 창업,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NCS시스템 정보와 분야별 교육 및 훈련 과정, 경력개발 정보,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직무분석과 경력관리, 블라인드채용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4) 혼자 어렵다면 함께! 취업스터디

구직 기간이 다소 길어지면 초조와 불안이 싹트기 마련이다. 취업 스터디는 이럴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동일한 목표 하에 취업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처럼 취업 준비를 함께하다 보면 목표 의식이 뚜렷해지고 동기 부여도 된다.

취업 스터디는 자기소개 패턴 연구, 영어면접 준비, 프레젠테이션면접 준비, 시사상식 정리, 경험 정리 등 팀원들이 주제를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지식과 역량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각자의 역량을 모으는 과정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5) 아르바이트 경험도 큰 자산이 된다

최근 공모전, 인턴십, 해외연수 등 직무와 관련된 스펙이 강조되다 보니, “경험이 없어서 지원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하는 취업준비생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장기적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은 많지 않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작은 경험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발굴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좋은 자산이 된다. 자신이 부딪혔던 경험들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남다른 스펙을 쌓을 수 있다. 일례로 품질 평가 아르바이트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형태와 질 향상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프리마켓에서 물건을 팔았던 경험을 영업직에 어필할 수 있다.

나만의 취업 지도 완성법

1) 채용 사이트 100% 활용법

일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채용 사이트들이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서 직접 기업들에 어필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채용 사이트는 잡코리아와 사람인이다. 수시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무료로 채용공고를 올릴 수 있는 직무별 카테고리

고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심 있는 직무 카테고리에서 수시로 채용공고를 확인하도록 한다.

직무가 확실히 정해졌다면 분야별 일자리를 제공하는 채용 사이트가 더 적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직무별 채용 사이트를 선호한다. 대표 사이트를 중심으로 채용 정보를 섭렵해 나간다.

2) 스포츠산업 전문 사이트를 확인하라

스포츠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스포츠산업 전문 채용 사이트를 방문해 본다. 이들 사이트에는 선수 출신을 우대하거나 선수 경력을 인정하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등재돼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 구인구직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홍보관에서는 스포츠 전문 기업의 정보를 자세히 제공한다. 선수 출신 지원자의 이력서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도 은퇴선수 잡매칭을 운영하고 있다. 1:1 컨설턴트 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전화문의 02-419-1114)도 가능하다.

3) 취업센터와 박람회 활용하기

기업에서는 취업사이트 외에도 학교추천, 산학장학제도,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사내추천, 헤드헌팅 등을 활용해 직원을 채용한다. 다양한 채용 정보를 구하기 위해 취업센터와 박람회를 활용한다.

대학이나 기관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는 인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면접에 필요한 코디네이션 서비스, 단기 일자리 알선 등을 지

원한다. 수시 상담과 취업아카데미, 진로설계캠프 등도 있다. 인턴십이나 공모전과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취업박람회에서는 채용 정보는 물론 특정 분야의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외국계기업 자체에 특화된 경우 기업 정보와 채용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미리 확인하고 갈 수도 있다.

스포츠산업 관련 박람회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잡페어’가 있다. 학생선수와 은퇴 선수들의 안정적인 취업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4) 취업컨설턴트와 멘토를 만나라

보통 대학의 취업지원팀은 취업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취업컨설턴트와 학생을 연계해준다. 취업컨설팅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군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얻는 방법,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길 원한다면 멘토를 찾아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멘토는 구직자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족, 동문회, 학과 사무실,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취업컨설턴트를 통해 멘토를 만날 수 있다.

취업컨설턴트들은 취업준비생들을 많이 만나보았고 합격자들도 알고 있다. 취업컨설팅의 일환으로 멘토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멘토의 도움은 취업 후에도 빛을 발한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이력서 만들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평생에 걸쳐 경험하는 직업의 개수는 10여 개가 넘는다. 새로운 직업의 선택은 누구나,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은 전생애에 걸쳐 필요한 스킬이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문서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작성법을 익힘으로써 서류전형이라는 허들을 가뿐히 넘어보자.

이력서는 설득을 위한 문서

1) 보여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인성과 적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감 없이 보여주는 문서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기업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는 이유는 지원자가 회사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인지 판별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인사담당자의 관심과 호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의 문서여야 한다.

2) 이력서 양식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어필해서 취업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지원자는 비즈니스 문서에서 요구하는 간결성과 구체성, 주제의 일관성에 부합하게 그것들을 작성해 나가야 한다. 우선 항목별로 제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다음의 사항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력서〉

본인의 신상정보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온 학력사항, 어학능력, 자격증, 연수, 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에 입각해 작성하고 사진은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을 사용한다.

인적사항

이름(한글, 영문, 한자),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트위터 등), 지원자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를 작성한다.

사진

최근엔 사진이나 학력사항을 없앤 기업도 있으나 인사담당자의 눈길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사진란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단정하고 밝은 모습의 사진을 부착한다. 셀카나 포토샵 사용은 자제한다.

지원분야

기업 홈페이지나 채용 공고된 자료에 제시된 직무를 숙지한 후 지원분야를 기재한다. 1, 2, 3지망이 있는 경우 관련된 직무를 선택한다.

희망연봉

회사내규 또는 멘토로부터 정보를 확인한 후 작성한다. 너무 낮거나 높은 금액은 지원자의 자질 부족이나 급여 문제로 이직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학력사항

고등학교부터 작성하되 대학교(전공, 복수전공), 졸업(예정) 연·월·일, 작성일 현재의 전학년 평균평점, 학교 소재지를 기재한다. 학점은 대학생활의 성실성을 말해 주는 자료로 사용된다.

경력사항

평소 목표와 계획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선수 활동, 동아리, 아르바이트, 인턴, 연수, 자원봉사 등을 기재한다.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최우선으로 적는다.

외국어 능력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외국어 자격증을 인증기관, 취득 연·월·일과 함께 기재한다.

자격/면허사항

사무 관련분야(컴퓨터 활용능력 등), 기술, 교원 자격증, 운전면허증도 기재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 사실을 기입한다.

수상경력

대회 수상경력은 물론 대외기관 또는 교내 수상경력과 군복무기간 수상 경력, 공모전 수상경력을 기재한다.

해외 연수/교육

어학연수나 전공 관련연수 등을 국가(기관)와 기간, 목적과 함께 기입한다. 연수(교육)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취미, 특기사항

관심분야, 자기계발, 시간 활용 능력을 통해 열정과 목표의식을 보여준다. 운동, 독서나 영화감상, 등산 등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직무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좋다.

기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은 입대와 제대 연·월·일, 군별, 군번, 계급 등

을 기재한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항목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리한다. 요약능력, 표현력, 기획력, 창의력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작문 실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원 회사의 업종과 분야, 해당 직무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부모님의 직업이나 거주지 같은 특정 요소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이 지원자를 어떻게 단련시켰고 어떤 성품을 갖게 했는지 인과관계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성공과 실패, 성취경험

성공과 실패 경험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자신에게 남은 교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서술한다.

학교생활 및 경험

학창시절에 겪은 다양한 경험이 현재의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살펴서 관련 있는 경험들을 선별해 기입한다. 전공, 부전공 및 수행 프로젝트, 동아리 등

에서 경험한 역할이 지원 분야의 역량과 직무 전문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성격의 장단점(강약점)

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례를 들어 자신의 장점을 어필한다. 단점을 장점으로 포장하거나 단점에 대해 얼버무리는 작성 방법은 지양한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보완점을 함께 언급한다.

능력과 역량

성과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친 자기자랑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주변의 명성 등을 인용할 수도 있다.

관심분야와 취미

회사 혹은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소개한다. 관심분야와 취미로 인해 자신이 성장한 경험을 소개할 수도 있다.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인사담당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항목이다. 직군과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어필하고 자신의 포부도 확실히 소개한다.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신의 논리에 맞게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희망업무

직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희망업무가 지원자의 어느 부분과 잘 맞는지, 희망 업무에 배정되면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미래 나의 모습

어떤 직급에 올라가겠다고거나 회사를 성장시키겠다고는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정확한 진로와 목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3) 설득의 힘을 키우는 4가지 질문

자기소개서의 독자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읽고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프로이다. 한두 장의 문서만으로도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대한 이해, 기업과 직무에 대한 공부, 지원자의 경험치를 귀신같이 간파하고 평가한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단계 점검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첫째,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했는가?

둘째, 구인공고에 제시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각 항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셋째,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는가?

넷째, 서류 심사관의 마음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가?

지원자가 4가지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이는 실패한 자기소개서이다. 지원자는 입사 지원을 할 때마다 이 4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해 보고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소개서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설득력을 높이는 스토리텔링의 기초

1) 스토리텔링의 밑그림, 인생이슈 정리하기

잘 만들어진 자기소개서의 핵심 기법은 ‘스토리텔링’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것을 통해 자신(지원자)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기업이 자신을 채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점검 없이는 쉽사리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완성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직자의 능력과 인성까지 확인하는 셈이다.

자기소개서를 위한 스토리텔링에는 지원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밑그림이 필요하다. 밑그림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에 부합하게 지원자의 독특한 경험담을 소개할 수 있다. 밑그림 작업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핵심 키워드를 소재로 한 인생 그래프와 마인드맵, 스왑분석 등이 있다.

〈스토리텔링 핵심 키워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한 일, 열심히 했던 일, 즐거웠던 일 - 취미, 동아리 활동 - 봉사활동 - 인간관계, 노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 적성, 성격 - 가치관, 생활신조, 좌우명 - 장단점/강약점 - 나의 역량 - 정신적, 신체적 특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목표, 계획 - 입사 후 포부 (3년, 5년, 7년, 10년 등) - 자기개발계획 - 관심사

〈이슈 정리하기〉

인생 그래프

인생의 이슈를 시간대별로 작성해 본다. 개별 사건에 점수를 매겨서 이를 그래프로 연결한다. 선수 생활의 시작, 대학입시, 대학 진학, 팀 입단 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마인드맵

빈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정보를 정리해 나간다. 백지 위에 글이나 기호로 키워드를 표시하고 이를 선으로 연결하며 확장시켜 나간다. 나를 주제로 두고 자유롭게 표현해 나가면 자신의 중심 생각과 경험을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스왑분석

지원자가 경험한 사건, 교육, 성과 등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으로 정리해 본다. 하나의 사건에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다 보면 자신 안에 잠재된 능력의 장단점을 알 수 있다. 선수 시절 경험을 스왑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스토리텔링 소재가 된다.

2)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기업의 인재상 알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성공적인 경기를 위해서는 나와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 취업의 상대는 기업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확인해야

그에 부합하는 스토리텔링을 이어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는 각 사의 홈페이지, 관련기사, 사보, 영업보고서, CEO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기업의 업종, 창업정신(경영이념), 주요제품과 서비스, 조직구조, 매출 등 영업현황, 마케팅 전략,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신규 사업부터 비전과 기업문화, 인재상, 경쟁구도(시장 환경, 점유율)까지 매우 다양하다. 관련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회사 정보 수집 항목〉

기본 정보

기업연혁, 사업 분야, 매출현황, 조직도, 회사 비전

직종 정보

주요 업무, 업무에 필요한 지식, 관련 자격증, 해당 직종의 성공 스토리

업계 정보

업계 동향, 경쟁업체 현황, 업계 이슈, 제품개발 현황, 서비스 현황, 마케팅 전략, 소비 취향 등 업계 전반의 내용

기업의 인재상은 스토리텔링이 보여주어야 하는 지원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 도덕성, 열정을 주요 덕목으로 꼽고 있다.

지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인재상을 종합해 스토리텔링에서 강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한다.

〈기업의 인재상에 대한 주요 키워드〉

인재상	주요 키워드
도전정신	개척, 모험, 도전, 과감한 시도, 위험감수, 변화선도 등
전문성	최고, 전문(지식, 기술), 자기계발, 프로정신, 실력, 탁월 등
주인의식	책임의식, 자율, 성실성, 사명감, 솔선수범 등
창의성	상상, 창의, 독창성, 인식전환, 가치창출, 새로운 아이디어 등
도덕성	정직, 신뢰, 매너, 인간미, 직업윤리, 투명성, 기본 충실 등
열정	승부근성, 몰입, 끈기, 체력, 강한 의지, 자신감 등
팀워크	상호협력, 동료애, 배려, 공유, 화합, 공동체 의식 등
글로벌 역량	어학능력, 열린 사고, 문화 이해, 글로벌 마인드, 국제적 소양 등
실행력	신속한 의사결정, 행동우선, 실천, 추진력, 리더십 등

3) 경험을 풀어내는 STAR 기법 이해하기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6하 원칙에 근거해 이야기를 하듯 스토리텔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기법(STAR)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스타기법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할 때 상황(Situation), 과제(Task), 행동(Action), 결과(Result)를 기준으로 전개시키는 방법이다. 제시된 단어 순서대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는데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정리하면 누구나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STAR 과정의 핵심은 행동에 있다. 어떤 일을 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배웠는지를 강조함으로써 많은 취업 지원자 중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제

시한다.

4) 나만의 카피로 예고편 완성하기

“문장의 도입부는 영화의 예고편처럼 쓰라”는 말이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사실 영화로 치면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본편은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나를 보여주는 면접이다. 하지만 예고편을 잘 만들지 않으면 본편을 보여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스토리텔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는 영화의 예고편 같은 1줄 카피로 소재목들을 정리한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자신의 이미지를 오버랩시킬 수 있는 강렬한 카피가 좋다.

‘두 마리 토끼 잡기_스포츠와 마케팅을 한 번에 마스터’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수 중의 선수_브랜드 마케터 1년의 활동’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비인기 종목에서 금을 캐내다_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경험한 사람_부상을 딛고 프로로 나아간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카피는 인사담당자와 면접진행자들의 뇌리에 남아서 합격은 물론 추후 회사생활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1) 열정과 능력을 어필하라

“기업은 어떤 구성원을 원하는가?”

역지사지 정신으로 생각해 보자. 답은 간단하다.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원한다. 기업에서 구성원을 선발하는 이유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성과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능력과 태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열정은 성과를 키우는 대표적인 플러스 요인이다.

전문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과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기업이 열정과 근성, 책임감과 희생정신 등의 인성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기소개서의 질문과 항목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들 대답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은 결국 지원자의 열정과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간결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라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에서는 답을 먼저 제시하고 설명을 덧붙인다. 앞서 소개한 대로 소제목을 달아 한 문장의 카피로 답을 우선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장은 되도록 간결하고 담백하게 작성한다. 문장이 너무 길면 읽기가 어렵다. 수식어와 부연설명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졌다면 되도록 끊어서 나열한다.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장은 글로 읽기도 힘들다. 소리 내어 읽으면서 긴 문장은 줄여간다.

문장의 군더더기도 최대한 없앤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의 접속

사는 굳이 없어도 어색하거나 이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삽입한 긴 수식어들은 문장을 읽기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은유적 표현, 영어, 한자성어의 남발도 지양한다.

문장의 세세한 부분은 한두 번 모니터로 보아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되도록 소리 내어 읽어보고 출력해서 종이 문서로 확인하며 정돈해 나간다.

3) 구체적 경험으로 마음을 움직여라

설득의 핵심은 마음이다. 경험이라는 고유한 스토리텔링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다’는 말보다 ‘20회의 헌혈 경험을 통해 제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자존감도 높아졌다’는 말이 더 공감을 일으키는 이유이다.

경험을 써내려갈 때는 단순히 과정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참여한 부분을 언급하고 성과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지역 수영장에서 수상 구조 요원으로 활동함’보다는 ‘공공 수영장의 수상구조 요원으로 선발되어 회기 당 15명에서 150명 사이의 이용객을 담당함. 수영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관리를 전적으로 맡음. 정기적으로 회기 당 6 시간씩 근무함’ 처럼 더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꼭 리더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경험이 아니어도 된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 매장 아르바이트, 연극 제작 참여, 합창단의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 등의 이력도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자신의 경험과 어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연결해 스토리텔링에 활용한다.

4) 읽고 고치고 의견을 들어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오타자와 맞춤법 오류, 미완된 내용 등이 눈에 띄면 그대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다.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맞춤법을 틀리거나 오타자가 많으면 꼼꼼하지 못하고 부주의하다는 인상을 주고 신뢰감을 떨어트린다. 공란이 많아도 성실성이 부족하거나 입사를 위한 열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면 무척 어렵다. 3~5배 정도의 분량을 먼저 작성한 다음 퇴고를 통해 줄여나간다. 일단 초안을 작성하고 며칠 뒤에 프린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유치하거나 어색한 부분은 삭제하고 고쳐나간다. 지인이나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다음은 잡코리아에서 정리한 취업준비생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과 피해야 할 표현들이다.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구분	내용	
되/돼	되: '되다'에서 다를 제외한 것	돼: '되어'의 준말
든지/던지	든지: 이것과 저것을 선택할 때	던지: 지난 일을 떠올릴 때
계발/개발	계발: 정신적인 것	개발: 물질적인 것
몇일/며칠	몇일: 틀린 말	며칠: 맞는 말
의례/으레	의례: 의식과 같은 말	으레: 당연하다는 뜻의 부사
안/않	안: '아니'의 준말	않: '아니하'의 준말

〈자기소개서에서 피해야 할 표현〉

단어	설명
나는	겸손하지 못하게 보일 수 있어 저는 이 적절하다.
그렇지도 모릅니다	추측성 표현은 우유부단한 인상을 준다.
소심해서, 의존적이어서	기업에서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을 선호하지 않는다.
고집불통이라서	융통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밖에 부정적 단어는 되도록 피한다.
대학원 진학 계획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업무에 소홀할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흡연	기업에서 흡연가는 환영받지 못한다.
진짜, 정말로	강조하는 다른 표현을 선택한다.
말거만 주시면 뭐든 다 하겠다	소신이나 특별한 목표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사례로 보는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과거 기업들은 일정한 틀에 맞춰서 표준형 인재를 한꺼번에 채용하는 투망식 채용방식을 선호했다. 다음으로 평균적 인재를 채용해 일정한 교육훈련 후 배치하는 양어장 채용방식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기업은 전문 분야별로 꼭 필요한 역량 인재를 채용하는 낚시형 채용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이 직무 관련 전문성이 뛰어난, 잘 준비된 인재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실전 사례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익혀보자.

살아온 인생을 펼쳐 보여라!

기업입장에서 성장과정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성격과 가치관, 적성과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기업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자기소개, 가정환경, 성장과정은 정서와 신체,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청소년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무난하다. 성공, 실패, 극복, 성취경험은 보다 최근의 것이 좋다. 학교생활, 봉사활동, 동아

리 경험 역시 지원 기업과 산업에 대한 관심 혹은 직무역량과 관련된 소재가 좋다.

1) 자기소개/가정환경/성장과정

〈잘못된 사례〉

자동차 매매업을 하늘이 내려준 직업으로 여기는 장인 정신의 소유자로 다른 사람 같으면 은퇴해야 할 나이가 지나서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인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편안하게 안주하기보다는 소일거리를 찾아 노력하며 사람들과 교제하는 어머니 덕분에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안정 속에서 1남 1녀의 장남으로 성실하게 자라난 결과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석 : 문장이 너무 길다.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

〈개선된 사례〉

1994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1남 2녀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가진 인성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소중하게 가꾸신 가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매매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몸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장생활을 했다면 은퇴했을 나이인데 아직까지 일할 수 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긍정적인 자세로 일상에

만족하며 사는 분입니다. 부지런하시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저의 장점인 긍정적인 마인드, 근면성실함 그리고 현실감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분석 : 짧게 끊어 쓰고 성장 과정에서 얻게 된 역량을 보여준다.

2) 성공/실패/극복/성취경험

〈잘못된 사례〉

저는 여자지만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가수와 배우들을 쫓아 다닐 때 K리그를 보러 갔고 많은 선수들을 직접 보며 가슴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가기 마련인지라 저는 좋아하는 축구팀의 응원과 팬클럽 결성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어 좋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성 팬들이 모여서 사사로운 시비가 있기도 했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잘 넘기도록 애썼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제가 좋아하던 팀의 팬클럽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석 : 이색적인 경험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빠져 있다.

〈개선된 사례〉

다른 친구들이 연예인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때 저는 남다른 취미활동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축구를 좋아해

FC서울의 열혈 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설득해 응원을 다니던 수준에서 점차 흥미가 애정으로 발전해 FC서울의 팬클럽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습니다.

처음 팬클럽이 만들어질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통해 배웠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야말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직업윤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축구의 다이내믹함을 즐기는 팬클럽 식구들은 함께 성장하는 저의 팀 플레이어들이입니다.

분석 : 스포츠 정신과 자신의 경험을 연관 지어 어필했다.

3) 학교생활/ 봉사활동/ 동아리

〈잘못된 사례〉

초중고를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캡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중학교 시절에는 방송반 활동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운동의 적성을 살려 스포츠 관련학과 진학을 결정하고 이에 전념하며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자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해서는 열심히 활동한 결과 3학년 때 학회장 일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해 심신을 수양했습니다.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어

*) 보이스카우트의 어린이 조직으로 10~13세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드리기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교 3년을 마치고 현역 해군으로 입대했습니다. 해군 훈련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분석 :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였고 경험이 만들어낸 성취가 없다.

〈개선된 사례〉

“리더십, 추진력, 패기를 갖춘 인물로 성장하다.”

운동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 스포츠심리학 등 관련 학문을 접할수록 제 전공이 저 자신의 이상과 잘 맞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소망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열정 때문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도 전념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대학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참석하고 태권도 학술대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남다른 기회였기에 의미가 컸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생소한 행사를 알리며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13개 관련 학과 및 동아리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지금도 그 학술대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회장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남다른 해군 경험은 리더십, 추진력, 책임감 등 시물을 폭넓게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었습니다.

분석 : 인상 깊은 사건과 자신의 성과 그리고 이로 인한 역량 강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나를 보여줘라!

기업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성격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 직무에서 요구하는 인성, 역량 등과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아무리 지식이나 기술이 뛰어나도 인성, 태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인재상과 지원 직무에서 선호되는 인성 역량을 파악한 후 자신의 성격과 연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장점, 강점, 역량 등이 입사 후 업무를 할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1) 성격 장단점/강약점

〈잘못된 사례〉

제 성격의 장점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주변 사람들을 잘 살핀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빠르게 상황에 적응해 갑니다. 특히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시간을 내서라도 마스터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셋째는 보여주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게 직장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저의 꿈과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남의 눈에 집착해서 일하지 않고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분석 : 근거의 제시가 없는 단순 나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칫 자기 자랑으로 비칠 수 있다.

〈개선된 사례〉

“배려와 빠른 적응력으로 준비된 신입사원.”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대학생생활과 군대생활처럼 변화가 있을 때 저는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변화를 받아들였고 긍정적으로 적응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좋은 성적, 동기들이 주는 우정상, 사단장 표창장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역지사지 정신으로 이해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면 서슴없이 다가가다 보니 인간관계도 좋다는 평판을 듣습니다.

물론 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이자 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와 빠른 적응력으로 신입사원의 덕목을 성실하게 지켜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분석 : 결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장점을 표현했다.

〈잘못된 사례〉

저의 단점은 귀가 얇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휘둘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꼭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우유부단한 것을 알고 조심해 주는 때가 많습니다. 회사생활에서는 족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분석 : 단점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없다.

〈개선된 사례〉

저의 단점은 '관계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지향적인 사람과 업무 지향적인 사람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지향적인 사람은 인간적이라거나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공적인 영역에서 실수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체화된 성격을 단기간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저는 제 장점인 환경 적응력을 통해 잘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업무 우위의 사고로 사람들과의 관계와 업무 성과의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분석 : 단점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 능력/역량

〈잘못된 사례〉

CAD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며 세계 신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해서 영어도 초급회화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자세로 귀사

에서도 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분석 : 구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어필하지 못했다.

〈개선된 사례〉

군대를 제대한 후 복학하기 전 1년 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평소 관심이 있던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건축 기능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CAD도 자신감을 갖고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학년 여름 방학 때는 20일간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틈틈이 공부한 영어로 여행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건축양식과 최첨단 건축물을 보면서 건축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전문 지식과 견문을 넓히며 건설업계에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관심분야를 쫓는 집요함은 회사 업무에도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분석 :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현재의 능력과 역량을 얻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3) 관심분야/전문지식/좋아하는 것

〈잘못된 사례〉

바야흐로 21세기는 인터넷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못하면 어디서

도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로 블로그와 카페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인의 블로그와 카페를 방문하고 샐럽들도 팔로우하며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연결은 인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취미생활로는 급한 성미를 고치기 위해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혼이 나면서 배웠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꺾을 때도 더러 있습니다. 복잡한 일을 정리할 때도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분석 : 너무 거창한 문구는 부담스럽다. 표현이 정돈되지 않았다.

〈개선된 사례〉

최근 열심히 하고 있는 취미생활은 블로그에 글을 포스팅 하는 것입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와 저의 의견을 공유하고 읽은 책이나 영화도 감상과 함께 소개합니다. 이렇듯 블로그를 통해 저의 생각을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포스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같은 블로거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인맥을 형성해 정보를 얻기도 수월합니다.

저의 특기는 바둑입니다. 급한 성격을 다듬기 위해 아버지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바둑 두기를 즐겼고 지금은 아버지와 대등하게 둘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바둑은 잡념을 떨쳐내고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취미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단증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분석 : 담백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관심분야와 특기를 소개했다.

미래의 나를 표현하라!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동기와 입사 후 포부이다. 인사 담당자가 최대한 읽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

기업이 지원자에게 바라는 것은 직무전문성과 애사심이다. 지원자가 직무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이번에 뽑히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다’는 주장은 하나마나 한 말이다.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이 회사인지, 입사 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왜 그 일이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동종 업종의 스타 기업 가운데 해당 기업을 지원한 동기와 10년을 가정한 구체적인 포부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3년, 5년, 7년 뒤의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해 보는 것도 좋다.

1) 지원동기/입사 후 포부

〈잘못된 사례〉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전자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귀사에서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의 영광을 주신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분석 : 거창하지만 목표 의식이 없어 보인다.

〈개선된 사례〉

네오픽셀은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미디어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현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광고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리라 믿습니다.

네오픽셀의 창업주이신 송정찬 회장님의 “영상이 언어다”라는 신조는 제게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쌓아놓은 영역에서 저의 역량을 쏟고 그 터전을 넓히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스포츠인으로 다져온 끈기와 긍정적인 마인드, 책임감 등은 미디어 영업에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분석 : 지원동기와 포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2) 희망업무/적임자인 이유/채용 사유

〈잘못된 사례〉

오랜 선수 생활 동안 운동을 주력으로 했지만 저의 관심 분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 업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대유업은 인원 감축이 없고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근무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의 일을 해내는 일도 잘합니다. 일반 사무 관리에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분석 : 회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개선된 사례〉

“보이지 않는 곳도 빛나게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선수생활을 하면서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한 분야는 사무관리 분야로 꼼꼼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오랜 선수생활을 통해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다시 계획하는 자기관리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피드백을 상시화하여 매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과정을 몸으로 익혀 학과 공부에서도 남달리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간 현대유업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인위적인 인원감축 없이 직원 교육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회사의 안정적 운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을 내며 일하는 사무관리 파트의 저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내는 현대유업의 사무관리 파트에서 제가 익히고 배운 능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고 싶습니다.

분석 : 자신의 지원 업무의 특징을 간파해 자신의 장점이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다.

3) 미래의 나의 모습

〈개선된 사례〉

글로벌화로 세계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빛전자가 이르지 못한 해외시장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한빛전자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유럽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유럽의 전자 시장의 5%만 차지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유럽의 전자 시장을 위해 뛰겠습니다. 제가 유럽 전자 시장의 5%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 구체성이 떨어진다.

〈개선된 사례〉

10년 후 저는 한빛전자의 미개척 시장인 유럽의 신규제품 영업을 담당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계에 한빛전자를 알릴 것입니다.

제가 유럽을 주목한 이유는 유럽이 세계 전자 시장의 각축장이자 의사결정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인의 선택은 미국과 남미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에도 크나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겠지만 현지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마케팅, 본사의 전략적 지원으로 한빛전자는 유럽에서 발판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입사 후 3년간의 영업 경험, 5년간의 해외 시장 동향 분석, 7년간의 세

계 바이어와의 적극적 미팅은 저를 한빛 전자의 유럽 신규제품 영업인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분석 : 장기적인 목표와 중기의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면접의 기본기

면접의 기본은 자신감이다. 입사 지원자의 고학력화, 경력을 보유한 신입 지원자 증가, 합격 후 입사 포기자 증가를 이유로 기업에서는 신중한 면접을 통해 기업과 맞는 직원을 뽑으려 한다. 자신감 있는 지원자는 능력과 열정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입사지원서를 점검하며 예상 질문지를 뽑고 이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며 자신감 충만한 면접을 준비하자.

쉬운 면접 공식

1) 면접의 유형과 절차

구직자가 많고 상향평준화되면서 면접의 방식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독립된 공간에서 1대1로 진행되는 단독면접이지만 지원자 1명과 다수의 면접관(3~5명)이 진행하는 다대일면접, 여러 명의 지원자와 면접관이 대화하는 집단면접,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는 다차원 면접도 있다. 지원자는 제시하는 구인공고

에서 면접의 유형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이 없다면 지원 회사에 문의하는 적극성도 필요하다.

〈면접의 다양한 유형〉

단독면접

응시자 개인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경력직 채용 시 적합한 유형으로 공개채용 방식에서는 많이 채택되지 않는다.

다대일면접

면접관 중 임원이나 사장이 포함된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질문이 오갈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집단면접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공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식이다. 동일한 질문에 여러 명의 지원자가 답을 하므로 비교 관찰할 수 있다.

집단토론면접

지원자 5~10명이 30~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역할분담과 조직력, 리더십을 평가한다.

프레젠테이션면접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지원자가 10~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지원자의 지식, 가치관, 문제 분석능력, 논리 전개 방식 등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영어면접

말하기 평가 위주로 진행되며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면접의 절차〉

면접은 대기-호출-입실-면접-퇴실 순으로 진행된다.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 당시 질문지를 염두에 두고 면접준비를 하지만 대기, 호출, 퇴실도 면접의 과정인 만큼 모의 면접을 통해 준비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면접관이 평가하는 것 알기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겠는가?’를 고려하며 면접의 평가항목을 살펴본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인성, 업무능력, 성실성과 책임감, 협조성과 표현력, 열정, 직업의식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직무 적합도와 관련 능력 유무도 점검 포인트이다. 관리파트라면 꼼꼼함과 차분함, 영업이나 마케팅 파트라면 적극성과 열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원자는 자신의 분야에 충분한 자신감을 갖도록 준비하고 이를 잘 어필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 면접관이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맞춰 면접 준비를 해나간다.

〈면접관이 질문을 통해 점검하는 사항〉

- 회사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가?
- 질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가?
-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했는가?
-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는가?
-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 침착함을 유지했는가?
- 일관성과 진실성이 담겨 있는가?
- 난처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 임기응변의 순발력과 센스가 있는가?

면접에 유리한 정보 습득법

1) 뉴스 조사는 필수, 방문은 선택

면접준비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업과 직군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긴장감을 낮춰준다. 또한 기업은 자사에 관심이 많은 직원을 뽑고 싶어 한다. 면접장에서 오갈 질문을 예상하며 산업-기업-직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본다.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경영방침과 취급품목 등이 잘 소개돼 있다. 최근 연구개발 동향, 신규 사업 발굴, 언론사 보도용 자료까지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종 기사를 통해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 이슈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력이 된다면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 팸플릿이나 사내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분위기도 미리 느껴볼 수 있다. 한번 다녀온 곳인 만큼 면접 당일에도 덜 긴장된다.

2) 인맥을 활용해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다

구직 단계에서는 뽑아만 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막상 입사가 결정돼 회사에 다니면 조직생활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내가 회사에 맞출 수 있는지와 회사는 나와 잘 맞는지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면접준비를 넘어 회사와 내가 잘 맞을까를 고려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취업컨설턴트나 인터넷 지원 후기를 통해 기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믿을 만한 정보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정보이다. 인맥을 활용해 지원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아본다.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맥을 만들기도 한다. 지원하는 회사에 지인이 있다면 기업의 문화, 분위기, 최신 이슈, 면접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면접 실전을 위한 액션 플랜

1) 자기소개는 1분 스피치로

자기소개서가 예고편이라면 면접은 본편이다. 자기소개 1분 스피치는 면접에서 빠지지 않는 요청사항이다. 반드시 기초 원고를 만들고 모의 면

접에서 시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분 스피치의 내용은 4가지 원칙에 근거해 작성한다. 첫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선수경력, 아르바이트, 실패담을 통해 드러낸다. 둘째, 지원하는 기업과 최신 트렌드, 현재 추진 중인 중점 전략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솔루션을 제시한다. 셋째, 지원동기와 자신의 특징점에 대해 공모전, 인턴십, 전공, 선수경력 등을 활용해 어필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관련된 비전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입사 후 포부를 정리한다.

1분 스피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나 당당한 모습으로 진행해야 한다. 책을 읽는 톤이나 웅변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연습한다.

〈1분 스피치의 소재들〉

- 회사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자신의 해법
-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이를 통한 깨달음
- 좌우명, 속담, 사자성어 인용
- 기업의 비전과 자신의 강점 제시
- 회사명, 본인 이름을 통한 3행시로 포부 제시
- 입사를 위해 준비한 것 3가지
- 회사의 최근 뉴스와 자신의 비전 연결
- 지원자의 지식과 회사의 비전 연결
- 경쟁기업 등 사업의 움직임과 지원자의 강점연결

2) 예상 질문지를 활용한 답변 준비

아무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자신의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예상 질문지를 뽑고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해 입으로 내뱉어 보는 준비가 필요하다. 성격의 장단점, 흥미와 비전, 지원 사유, 직무와 관련된 경험 등은 면접장에서 흔히 등장하는 질문이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두로 된 답변을 준비한다.

답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학창 시절의 경험, 선수 시절의 경험은 대인관계, 도전정신, 리더십, 열정 등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의 좋은 자원이 된다.

〈면접 예상 질문지 작성의 예〉

-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 어떤 분야, 무슨 직무를 하고 싶은가?
- 본인의 성격 중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대학생활과 선수생활은 어떠했는가?
-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 입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가?
- 조직 활동과 관련해 어떤 경험이 있는가?
- 취미와 특기는 무엇인가?
- 당신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3)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준비하라

면접장에서는 구체적인 업무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

“아파트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시오”/
롯데건설

“혼수시장 점유율을 높일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시오”/ 삼성전자

“경쟁사를 추월할 수 있는 LG제품은 무엇이고 어떤 영업전략이 필요한가?”/ LG전자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효성

관련 자료가 없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업의 기술이슈, 생산 효율성 증대 방안, 불량률 감소 방안, 마케팅, 영업전략, 매출 향상 방안 등을 고민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준비해 둔다.

면접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원하는 업무, 선발 이유 등의 질문에 준비한 아이디어를 덧붙여 발표한다.

4) 면접력을 높이는 모의면접 훈련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은 운동경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실전에서 관중과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기하기 위해 연습도 실전처럼 해야 한다. 면접도 실전처럼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면접관으로 앉혀두고 예상 질문을 연습해 본다. 태도와 표정까지도 연습하고 임해야 한다. 면접관과 지원자 모두 복장을 갖추고 모의 면접을 진행한 후 녹음본이나 동영상을 통해 평가해 본다. 이때 대부분의 지원자는 모의 면접을 해 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전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며 꾸준히 연습하면 면접장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건강한 외모, 밝은 인상 만들기

1) 좋은 첫인상을 위한 용모 관리

면접은 첫인상을 만드는 자리이다. 합격이 되면 출퇴근을 하며 매일 마주 칠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용모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일단 거울 앞에 서보자. 좋은 첫인상을 위해 단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한다. 머리모양, 피부, 체형, 어울리는 옷, 구두, 가방 등 액세서리까지 현재 상태 스스로 평가해 본다. 여기서 건강하고 밝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할지 고려한다.

지원자는 모두 20여 년 넘게 유지해 온 자신만의 이미지가 있다. 취업을 위해 이를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주위의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가며 자신만의 세련된 스타일을 찾도록 한다.

2) 할 수 있다는 마인드 컨트롤

표정은 인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면접은 굉장한 긴장을 요

구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지원자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은 면접관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긴장감을 내려놓고 밝고 건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

때때로 면접장에서 횡당한 질문, 압박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면접관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 내용과 지원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감정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한다.

면접장에서 환한 미소와 긍정의 눈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지원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과했기 때문에 면접까지 보게 된 것이다. 최소한 서류평가에서 채용을 해도 좋다는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긴장감을 줄여나간다. 경기 중에 사용했던 자신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면접에 적용하는 것도 좋다.



3) 면접력을 높이는 컨디션 관리

면접일정은 지원자가 임의로 잡을 수 없다. 급하게 면접이 잡혔는데 컨디션이 엉망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소 기본체력과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과식과 과음은 삼가야 한다. 충분한 수면도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사회생활에 술과 담배가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요즘 기업들은 금연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성공 면접을 위한 테크닉

면접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원자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참신함과 열정으로 인사담당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행동이나 사소한 실수가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의나 복장 또는 발언 내용 등 다양한 면에서 체크한다. 막상 실전에서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스펙만큼 면접 매너가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한다. 자신이 준비한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면접 테크닉을 주의해서 익혀보자.

용모와 자세 점검법

1) 안정적인 복장

옷차림도 전략이다. 복장관리는 자기관리이기도 하다.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안정적인 복장을 선택한다.

남성은 기본형 슈트에 와이셔츠와 넥타이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위아래 색상이 다른 스타일과 조끼는 피하는 것이 좋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체형에 맞는 정장을 선택한다.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 면접에 앞서 정장과 구두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여성은 유행에 뒤지지 않는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을 한다. 검정, 화사한 베이지, 회색, 파스텔톤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한다. 보통 스커트 길이는 무릎의 반을 덮는 정도가 무난하고 전문직이나 영업직은 바지정장도 무난하다. 시선을 분산시키고 산만한 느낌을 주는 반지나 팔찌 등 액세서리는 피한다.

2) 용모와 화장법

얼굴이 칙칙해 보이거나 각질, 여드름 등으로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평소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남성의 경우 깔끔하게 면도하고 코털은 보이지 않도록 제거한다. 화려한 염색이나 파머는 피하고 무스나 젤을 사용한 과도한 연출도 자제한다.

여성의 화장은 밝고 상큼한 이미지를 주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좋다. 의상의 색상, 헤어스타일 등과 조화를 이루되 진한 눈화장, 진한 눈썹, 강렬한 립스틱, 진한 향수, 현란한 매니큐어는 피한다.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3) 바른 자세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이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절반은 판단이 된다고 한다. 면접장에 들어갈 때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입장한다. 움직임은 적게 하고 차분함을 잃지 않는다. 시선은 앞 사람의 눈높이

에 두고 되도록 초롱초롱하고 맑은 인상을 주도록 한다.

부산한 몸짓은 산만한 느낌을 준다. 머리카락 만지지 않도록 하고 면접관과는 자연스럽게 아이컨택을 하는 것이 좋다. 다른 지원자가 질문을 받을 때도 눈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밖에도 다리 떨기, 불필요한 추임새, 한숨 쉬기, 다리 꼬기, 머리 긁적이기, 손톱 뜯기 등은 자신감과 집중력이 없어 보여 감점요인이 된다.

성공 면접을 이끄는 7가지 방법

1) 말의 형식을 지킨다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면접장에서는 고운말, 바른말 그리고 경어를 써야 한다. 평상시 사용하는 은어와 비속어가 튀어나와서는 곤란하다. ~어요, ~인데, ~같은데요 등 애매한 대답도 삼가야 한다. 음~, 저~, 에 등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밖에도 말끝 흐리기, 말더듬기, 같은 질문 되묻기도 피해야 한다. 사투리가 심한 경우 강한 악센트도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표준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긴장하면 말이 빨라진다. 면접관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인다. 적절한 눈 맞춤과 몸짓은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2) 경청은 면접의 시작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다. 단순히 취미를 묻는 질문 하나에도 지원자

의 인간성이나 적극성, 건강을 위한 노력, 협력성,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살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면접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지원자는 잘 들어야 한다. 경청의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다른 지원자의 질문과 답변도 열심히 경청하며 눈빛이나 고개 끄덕임으로 공감을 표시해 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답하고 설명한다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결론부터 답하고 이어서 결론에 대한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두괄식 대화는 이야기의 집중도를 높여주고 이야기가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것을 막아준다. 면접관이 다음 질문을 준비하기도 수월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간결한 키워드로 구체적으로 답한다

답변에는 핵심이 있어야 한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한다. 이를 위해 예상 질문지에 2~3개의 키워드를 배치해 둔다. 장점 - 장거리 수영이 가능한 체력, 특기 - 12명을 한 팀으로 이끄는 리더십 같은 식으로 직무, 인성, 비전과 관련된 키워드를 선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5) 솔직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라

관련한 질문이 주어질 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감이 떨어진다. 소극적인 태도는 대표적인 감점 요인이다. 솔직하게 답한 후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친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 너

무 느리지 않은 답변 속도, 바른 자세와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열정과 능력을 어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6) 불리한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하라

면접에서는 “운동을 오래 했으면 학과 공부는 소홀했겠군요?”처럼 부정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실패 경험, 전공이나 경력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미리 준비해 둔다. “학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운동으로 만들어진 체력 덕분에 공부에서도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성심 성의껏 답하다보면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7) 일관성을 유지한다

면접관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담에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칫 회사나 직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앞서 답한 것과 다음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자신의 답변을 기억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8) 마무리는 확실하게!

긴장한 상태에서 대담이 길어지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지나친 미사여구도 말을 늘어지게 해 주제를 희석시킨다. 답변을 맺고 끊을 때는 분명히 하고 답변에 대한 한 줄 정리로 마무리도 확실히 한다. 확실한 마무리를 구직자가 일처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반드시 피해야 할 면접장 실수들

1) 지각은 금물

면접을 진행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인사담당자들이다. 이들은 합격시킬 권한은 없지만 불리한 증언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지각은 제1차 탈락대상이다. 면접장에는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최소 10분 전에는 면접 대기실에 도착한다.

2) 스마트폰은 꺼둔다

대기할 때는 침착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예상 질문지를 준비해 가서 답변을 정리하거나 회사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면접실에서 스마트폰이 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실 전에 꺼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으로 예상 질문이나 회사 관련 자료를 보면 글씨가 잘 들어오지 않고 배터리가 신경 쓰며 불안해진다.

3) 상호는 반드시 외운다

지원자의 입에서 회사의 상호와 관련 내용이 나오면 호감이 높아진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상호가 많다 보니 면접장에서 상호가 헛갈리는 경우가 있다. 면접 전에 입으로 몇 번씩 반복해서 입 밖에 내는 연습을 한다.

4) 인사가 먼저다

호출을 받으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지시에 따라 입실한다. 가볍게 노크하고 조용히 문을 여닫은 뒤 면접관을 향해 인사하고 지시에 따

른다. 인사를 빼먹으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예의가 없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앉으라는 말을 들은 다음 자리에 착석한다.

5) 나쁜 표정은 피한다

질문을 경청한 후 밝은 미소로 솔직하고 자신 있게 대답한다. 너무 빨리 대답하거나 큰소리로 답하면 경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당황스러운 질문에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푹 숙이는 자세, 불만스러운 표정 등으로 감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나쁜 질문은 삼가라

지원자들도 면접관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조직 문화를 해치거나 부담스러운 질문은 삼가야 한다. 급여나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 단순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7) 다시 안 본다는 생각은 금물

간혹 면접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돌아서 나오는 구직자들이 있다. 하지만 취직은 하나의 관문이지 종착지가 아니다. 동종 업계라면 회사가 달라도 볼 기회가 많다. 다시 구직을 할 때 마주칠 수도 있다. 예의를 갖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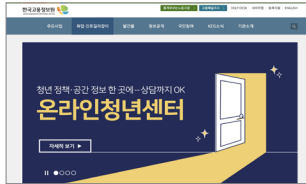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자아 분석을 도와주고 각 분야별 직업과 전망 등도 제공한다.
www.work.go.kr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고용통계 및 고용현황, 채용 트렌드와 같은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www.keis.or.kr

사이버진료교육센터



진로, 직업훈련, NCS기반 채용 등 진로 관련된 정보와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다.
www.work.go.kr/cyberedu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직업 및 학과 정보,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www.career.go.kr

교육 및 훈련 정보 제공 온라인 사이트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일경험, 인턴, 창업,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www.work.go.kr/pkg

청년취업아카데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실습, 현장견학, 구직 등에 관한 교육 멘토링을 지원한다.

myjobacademy.kr

HRD-net



근로자는 물론 구직자에게도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www.hrd.go.kr

배움나라



컴퓨터기초부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정보화교육 강화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www.estudy.or.kr

HRD콘텐츠네트워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동영상 강의와 훈련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직무교육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www.hrdbank.net

KOBACO 광고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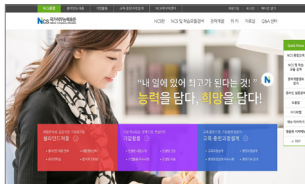
국제광고인자격, 전문광고 등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행사개최 정보를 제공한다.
edu.kobaco.co.kr

한국콘텐츠아카데미



방송, 문화, 게임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세미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edu.kocca.kr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CS시스템 정보와 분야별 교육 및 훈련 과정, 경력개발 정보,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www.ncs.go.kr

공모전 · 인턴십 등 취업스터디 관련 온라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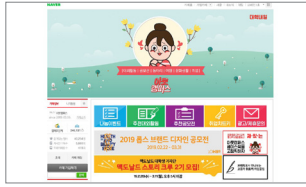
대티즌



각 대학 신문사들과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www.detizen.net

아웃캠퍼스



공모전 경험담이 많다.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고 팀원 구하기도 활성화 되어 있다.

cafe.naver.com/outcampus

스펙업



인턴,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팀원을 구하기에 좋다.

cafe.naver.com/specup

씹곳



공모전 코칭 서비스가 있어서 초보자가 공모전에 대한 감을 잡는 데 유용하다. 실제 수상자들의 인터뷰를 참고한 코칭 서비스가 있다.

www.thinkcontest.com

캠퍼스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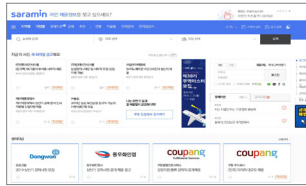


공모전, 인턴 모집 공지도 자주 올라온다. 공모전 정보와 수상자 인터뷰도 살펴볼 수 있다.

campusmon.jobkorea.co.kr

채용 포털 사이트

사람인



대기업 공채 정보와 대기업/중소기업 채용, 기업정보, 연봉정보 등을 제공한다.

www.saramin.co.kr

잡코리아



구인, 구직 정보와 함께 공채전략, 맞춤채용정보, 기업정보, 연봉정보 등도 제공한다.

www.jobkorea.co.kr

인크루트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자소서 관련 맞춤법 검사, 사진수정, 첨삭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www.incruit.com

워크넷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일자리 정보와 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안내도 포함돼 있다.

www.work.go.kr

분야별 일자리 정보 제공 온라인 사이트

대한민국공무원되기(공공)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며 공무원 통합 채용정보, 공무원 직무소개, 시험, 시간선택제, 기간제, 임용, 공직박람회 정보를 제공한다.

injae.go.kr

나라일터(공공)



공무원인사교류센터에서 운영하며 특별채용, 별정직, 계약직, 전입공모 등 채용정보 및 시험정보를 제공한다.

www.gojobs.go.kr

잡알리오(공공)



공공기관 채용 정보 사이트로 채용검색, 박람회, 기관정보 등을 안내한다.

job.alio.go.kr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해외)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워킹홀리데이 국가 및 지역정보, 구인구직, 체험수기 등을 제공한다

whic.mofa.go.kr

월드잡플러스(해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 해외진출 사업안내 사이트로 채용정보, 연수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www.worldjob.or.kr

잡스포이즈(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스포츠 관련 구직 매칭 서비스와 취업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s://spobiz.kspo.or.kr/job/>

미디어잡(방송)



미디어 취업포털로 언론·방송·광고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초심자도 지원 가능하다.

www.mediajob.co.kr

| Round 4 |

스포츠
관련 자격증
살펴보기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2급 /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2급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2급 / 건강운동관리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 스포츠경영관리사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안내

2015년 새롭게 시행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기존의 자격제도에서 많이 바뀌었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류와 등급을 비롯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 요건과 자격의 취득 과정인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연수 과정의 내용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정에서 일부 면제가 되는 대상과 사항이 바뀌었고 자격검정 기관과 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등도 개편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를 세분화한 것이다. 개편 전에는 경기 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화되어 있던 자격의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과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그리고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와 수준(1급·2급) 등의 기준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자격제도 변경과 관련해 기존의 자격취득자는 별도 과정 없이 새롭게 개편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1급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가 되었고,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로,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그리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바뀐 자격제도에 따른 자격증으로 승계되었다.

체육지도자 자격체계 분류

지도 내용	대상		분야	자격등급 · 종류
스포츠 종목	비장애 인	유소년 (만3세~초등학생)	체육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청소년 · 성인	전문체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개정 전 1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개정 전 2급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개정 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개정 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노인(65세 이상)	생활체육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		체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운동 수행 방법 지도 · 관리			건강운동관리사 (개정 전 1급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연수(250)	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 이상)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②~④ 적용시한 : 2019.12.31.까지 / ⑤~⑥ 적용시한 : 2020.12.31.까지)		
② 2015년 1월 1일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연수(250)	· 경기지도 경력증명서(1년 이상) · 병적증명서
③ 2015년 1월 1일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연수(250)	· 체육분야 학위(졸업)증명서(석사 이상) ·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④ 2015년 1월 1일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연수(250)	· 체육분야 학위(졸업)증명서(석사 이상) · 지도경력증명서(1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사업자등록증사본 · 병적증명서
⑤ 2015년 1월 1일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2015.1.1. 이후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18.4.7.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필기 연수(250)	· 체육분야 학위(졸업)증명서(석사 이상) ·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2015.1.1. 당시 체육관련학과 석사과정 재학증명서류(학적부 또는 재학증명서 등) · 병적증명서
⑥ - 2015년 1월 1일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학과(석사과정 한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 2015.1.1. 이후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체육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18.4.7.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필기 연수(250)	· 체육분야 학위(졸업)증명서(석사 이상) · 지도경력증명서(1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사업자등록증사본 · 2015.1.1. 당시 체육관련학과 석사과정 재학증명서류(학적부 또는 재학증명서 등) · 병적증명서
⑦ 국가대표 선수(국가대표 선수가었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을 것	연수(250)	·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 해당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 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 이상)

2급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경기실적증명서(4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 이상) · 선수등록확인서(4년 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4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 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③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경기실적증명서(2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 · 선수등록확인서(2년 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 이상)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④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졸업예정자 포함)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예정)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④		*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㉗~㉙번 중 해당) ㉗ 체육분야 학사 ㉘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 ㉙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다음 ㉗~㉙번 중 어느 하나 제출 ㉗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㉘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2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 · 선수등록확인서(2년 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 이상) ㉙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 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⑥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 구술	·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 경력증명서 ·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 학교장 발급 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 이상)
⑦ 국가대표 선수(국가대표 선수가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구술	·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 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 스포츠 단체 선수 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구술 연수(4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 해당 종목 프로 스포츠 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정회원확인서(3년 이상, 홈페이지 자료실)
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구술	

시험 및 합격 기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의 과목은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등 총 4개 과목이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은 스포츠 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로 총 7개 과목을 치른다. 각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을 해야 하며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어야 한다. 동일한 자격 등급에 한하여 한 사람이 1종목의 자격증만을 취득할 수 있다. 매년 필기 및 실기시험의 일정과 장소 등은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해 면제한다. 연수과정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때 병역 복무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실시 및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실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구술시험을 보게 되나 자격 종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전문스포츠지도사 관련 체육분야 55개 종목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켈레톤,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해 매년 시험일시 및 주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체육지도사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 단체 등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다. 해당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취득하며 1급과 2급이 있다.

1급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120)	·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②~⑥ 적용시한 : 2020.12.31.까지 / ⑦ 내용 중 참조)		
② 2015년 1월 1일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120)	· 경기실적증명서(3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3년 이상) · 선수등록확인서(3년 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3년 이상) · 병적증명서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③	2015년 1월 1일 당시 해당 자격 종목의 종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120)	·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 경력증명서(3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사본 · 병적증명서
④	2015년 1월 1일 당시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120)	· 체육분야 학사학위(졸업)증명서 · 병적증명서
⑤	2015년 1월 1일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120)	· 체육관련학과 학사 또는 체육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졸업)증명서 · 경기실적증명서(2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 · 선수등록확인서(2년 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2년 이상) · 병적증명서
⑥	2015년 1월 1일 당시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체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120)	· 체육 관련학과 학사 또는 체육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졸업)증명서 ·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경력증명서(2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병적증명서
⑦	2015.1.1.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의 체육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2015.1.1. 이후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18.4.7.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적용시한 : 2015년 1월 1일 이후 체육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필기 실기 구술 연수(120)	· 2015.1.1.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학사학위 수여학교) 체육 관련학과 재학증명서류(학적부 또는 재학증명서 등) · 체육 관련학과 학사학위(졸업)증명서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⑧ 학교 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연수(40)	·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 이상)
⑨ 국가대표 선수(국가대표 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연수(40)	·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 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 스포츠 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구술 연수(4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프로 스포츠 단체 발급 해당 종목 프로 스포츠 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또는 정회원확인서(3년 이상)
⑪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구술	
⑫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 구술 연수(40)	

2급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 경기실적증명서(4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 이상) · 선수등록확인서(4년 이상) 또는 선 수경력증명서(4년 이상)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 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구술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 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시험 및 합격 기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의 필기시험 과목은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총 4개 과목이며 2급 필기시험은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로 총 7개 과목 중 5개를 선택해 치를 수 있다. 각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모든 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한다. 동일한 자격 등급에 한하여 한 사람이 1종목 자격증만 취득이 가능하다. 매년 필기 및 실기시험의 일정과 장소 등은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다음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1회 면제 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때 병역 복무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실시 및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실

기시험을 합격한 경우 구술시험을 보게 되나 자격 종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관련 체육분야 54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하키, 핸드볼, 행글라이딩.

*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해 매년 시험일시 및 주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체육지도사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해당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1급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250)	·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가대표 선수(국가대표 선수이었던 사람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 지도경력이 있을 것	연수(250)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장애인선수 대상 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 이상)

2급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②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 구술 연수(40)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체육과목) 정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및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 이상)
③ 국가대표 선수(국가대표 선수가었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구술 연수(40)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구술	
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술	2008년~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 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 및 합격 기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필기시험 과목은장애인스포츠론,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총 4개 과목이며 2급 필기시험은 필수과목으로 특수체육론을 이후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

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로 총 7개 과목 중 4개를 선택해 치를 수 있다. 각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모든 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한다. 동일한 자격 등급에 한하여 한 사람이 1종목 자격증만 취득이 가능하다. 매년 필기 및 실기시험의 일정과 장소 등은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다음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1회 면제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때 병역 복무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실시 및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실기시험을 합격한 경우 구술시험을 보게 되나 자격종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관련 체육분야 36개 종목

골볼, 공수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노보드, 승마,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크로스컨트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핸드볼.

*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해 매년 시험일시 및 주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는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5년 신설된 자격증으로 기존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의 38%가 병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령상에는 의료인이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환자)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법령의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 결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환자)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인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외에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필기 실기 구술 연수(200)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증 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 사, 석·박사 *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 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 야 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 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 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 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 를 말한다)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 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정 외국의 체 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필기 실기 구술 연수(2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 사, 석·박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정 외국학교 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 증서 제출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 건을 갖춘 경우 - 2015.1.1. 당시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 의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적용시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필기 실기 구술 연수(200)	· 경기실적증명서(3년 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3년 이상) · 선수등록확인서(3년 이상) 또는 선수경력증명서(3년 이상) · 병적증명서
④ 2015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 건을 갖춘 경우 - 2015.1.1. 당시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종전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 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적용시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필기 실기 구술 연수(200)	· 행정·연구·지도 경력증명서(3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병적증명서

시험 및 합격 기준

건강운동관리사의 필기시험 과목은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등 총 8개 과목으로 치른다. 각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모든 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한다. 동일한 자격 등급에 한하여 한 사람이 1종목의 자격증만 취득이 가능하다. 매년 필기 및 실기시험의 일정과 장소 등은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다음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1회 면제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때 병역 복무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실시 및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실기시험을 합격한 경우 구술시험을 보게 되나 자격 종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해 매년 시험일시 및 주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시험 안내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소년의 행동 양식과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②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 구술 연수(40)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및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③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구술	
④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시험 및 합격 기준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필기시험 과목은 유아체육론을 필수과목으로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모든 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한다. 동일한 자격 등급에 한하여 한 사람이 1종목의 자격증만 취득이 가능하다. 매년 필기 및 실기시험의 일정과 장소 등은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다음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1회 면제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때 병역 복무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실기 및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실기시험을 합격한 경우 구술시험을 보게 되나 자격 종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관련 체육분야 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플라이디스크, 피구, 하키, 핸드볼, 행글라이딩.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해 매년 시험일시 및 주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응시 자격 및 제출 서류

응시자격	취득절차 (이수시간)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 구술 연수(90)	
②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 구술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④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시험 및 합격 기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필기시험은 노인체육론을 필수과목으로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중 4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모든 과목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한다. 동일한 자격 등급에 한하여 한 사람이 1종목의 자격증만 취득이 가능하다. 매년 필기 및 실기시험의 일정과 장소 등은 <체육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다음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은 1회 면제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때 병역 복무를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실시 및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실기시험을 합격한 경우 구술시험을 보게 되나 자격 종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노인스포츠지도사 관련 체육분야 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 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하키, 핸드볼, 행글라이딩.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해 매년 시험일시 및 주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체육지도사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안내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는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시행 자격제도이다. 스포츠경영관리사는 스포츠와 관련된 조직의 경영 또는 일반기업이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 혹은 홍보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스포츠 빅이벤트의 계획과 집행은 물론 선수의 매니지먼트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가 넓은 편이다. 학문으로서 스포츠경영학은 국내에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어 새롭게 각광을 받는 분야이다.

한편 국내 스포츠 시장과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스포츠경영 전문가이다. 스포츠경영 분야에서의 적응과 올바른 직무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문의 교류와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스포츠경영관리사의 주요 업무

스포츠경영관리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스포츠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 스포츠 스폰서 및 광고주 유치
- 프로 및 아마 스포츠 구단 스포츠 마케팅 기획 및 운영
- 스포츠 콘텐츠의 확보 및 상품화
- 스포츠 선수 대리인 사업
- 스포츠 시설 회원 모집과 관리 등 회원서비스
- 스포츠시설 설치 및 경영 컨설팅
-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관리 운영

자격증 취득 방법

스포츠경영관리사의 자격 취득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가능하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기관	4년제 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등 체육계열 학과 및 스포츠산업 관련 대학원 졸업자
시험과목	〈필기(매과목 100점)〉 스포츠산업론, 스포츠경영론, 스포츠마케팅론, 스포츠시설론 〈실기(100점)〉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실무
검정방법	필기 :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시험시간 150분) 실기 : 주관식 필답형 (3시간 정도)
합격기준	필기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60점 이상

*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해 매년 시험일시 및 주요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산업인력
관리공단 큐넷 홈페이지 중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에서 스포츠경영관리사를
검색하면 항상 최신 정보 확인 가능.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시험 안내

설립취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는 대학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의 협업체로서 대학스포츠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연구·조정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립

* 2010. 6. 8.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총회, 2010. 7. 16.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 2018. 8. 13.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로 기관명 변경

임무

- 대학스포츠 방침 심의·결정 및 규정 집행·감독
- 대학스포츠 제도 연구·협의·조정
- 대학스포츠 권익 증진
-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연구·지원
- 대학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 대학 학생선수의 대학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지·덕·체의 건전한 리더십을 함양한 전인적 스포츠 인재로 양성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운동부 평가를 통한 운동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특기자 대입 지원서 폐지, 학업성적 반영, 체육특기자 대입포탈운영, 설명회 개최 등 공정한 입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C°규정 시행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을 위한 학사관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및 지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스포츠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출신 대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 KUSF U-스포츠마케팅 리더 - 대학생 대학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운영 - KUSF 대학생 기자단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USF 대학스포츠 U-리그 주최 - 농구(남/여)·배구·아이스하키·야구·정구·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스포츠동아리 축제 KUSF 클럽챔피언십 개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

2018. 12. 31. 기준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목포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배재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대학교	 백석대학교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대전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공주대학교	 동강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경기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선문대학교
 경남대학교	 국민대학교	 동양대학교	 성결대학교
 경동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군장대학교	 명지대학교	 세종대학교
 경성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목원대학교	 세한대학교
 경인대학교	 남부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승호대학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

2018. 12. 31. 기준

 순천대학교	 위덕대학교	 창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송실대학교	 인제대학교	 청주대학교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인천대학교	 초당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충북대학교	 호서대학교
 여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호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홍익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2018. 12. 31. 기준 98개 회원대학
 영산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용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우석대학교	 중부대학교	 한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라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원대학교	 한려대학교	

2019 학생선수 진로 · 취업 가이드 스포츠 두드림

발행일 | 2019년 1월 30일

발행처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발행인 | 김창수

기획 · 편집 | 북마크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경기장

전 화 | 02-707-3767

팩 스 | 02-707-3766

ISBN | 979-11-85846-76-7 13320

값 | 비매품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북마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매품



ISBN 979-11-85846-76-7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